A history of leadership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평가보고서

2025. 3.

건국대학교 입학처

Contents

Ⅰ.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4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 분석 6

Ⅳ. 문항 분석 및 평가 10

Ⅴ.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2

Ⅵ. 부록 13

- 본교 규정 13
- 문항카드 1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영어(공통)) 15
- 문항카드 2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국어(인문,예체능계)) 29
- 문항카드 3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수학(자연계) 49
- 문항카드 4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사회계 Ⅰ) 58
- 문항카드 5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사회계 Ⅱ) 74
- 문항카드 6 (논술(KU논술우수자)_자연계) 96
- 문항카드 7 (논술(KU논술우수자)_KU자유전공학부) 110

검증위원 의견서 125

Ⅰ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건국대학교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 (KU재외국민과외국인)	전체	O	O					O	준수
	논술 (KU논술우수자)	전체	O	O					O	준수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전체	O		O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O		O				X	
	실기/실적 (KU연기우수자)	예술계열	O			O			X	
	실기/실적 (KU체육특기자)	체육계열	O		O				X	
	학생부교과 (KU지역균형)	전체	X							
	학생부종합 (사회통합)	전체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전체	X							
정시	수능(KU일반학생)	예술계열 체육계열	O			O			X	
	수능(KU일반학생)	전체 (예술계열, 체육계열 제외)	X							
	수능(농어촌학생)	전체	X							
	수능 (기초생활및차상위)	전체	X							
	수능* (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전체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O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O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 〉 입시안내 〉 통합 공지사항)	O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O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 · 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O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O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O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O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O,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 (KU재외국민과외국인)	전체	O	O					O	준수
	논술 (KU논술우수자)	전체	O	O					O	준수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전체	O		O				X	해당없음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O		O				X	해당없음
	실기/실적 (KU연기우수자)	예술계열	O			O			X	해당없음
	실기/실적 (KU체육특기자)	체육계열	O		O				X	해당없음
정시	수능(KU일반학생)	예술계열 체육계열	O			O			X	해당없음

3. 대학별 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 유형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영어
						인문사회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과 외국인 (KU재외 국민과 외국인)	인문, 예체능계	(공통)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1 ~ 40										○
			국어, 독서, 문학	1 ~ 40		○								
		자연계	(공통)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1 ~ 40										○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	1 ~ 25					○					

시험 유형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영어
						인문사회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 (KU 논술 우수자)	인문 사회Ⅰ	국어, 사회	1		○	○							
			국어, 사회	2		○	○							
		인문 사회Ⅱ	국어, 사회	1		○	○							
			국어, 사회,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2	2-1		○		○					
				2	2-2		○		○					
				2	2-3		○		○					
		자연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1					○					
				2					○					
				3					○					
				4					○					
		KU자유 전공학부	국어, 통합사회	1		○	○							
			수학, 수학Ⅰ, 수학Ⅱ	2	2-1				○					
			수학, 수학Ⅰ, 수학Ⅱ	2	2-2				○					
			수학, 수학Ⅰ, 수학Ⅱ	2	2-3				○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본교는「공교육정상화법」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에 의거,「입학전형 운영규정」(3-1-89)을 2023년 9월 11일에 제정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고사의 출제 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본교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위의 공교육정상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됨.

제 16 조 (기구)
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입학전형심의위원회
3. 사정위원회
4. 입학정책연구위원회
5.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6.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본교 입학전형 운영규정 중〉

제 6 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 32 조 (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33 조 (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입학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교 입학전형 운영규정 중〉

● 위원회 조직 구성

— 내부 8명, 외부 3명, 간사 1명으로 구성

— 내부 8명 중 6명은 전임교원(입학처장 포함)이며, 2명은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 외부 3명은 모두 현직 교사 3명으로 구성

내부 8명	외부 3명
· 위원장(입학처장) 1명 · 교원 5명(전임교원) · 입학실무자 2명	· 현직 교사 3명(교과목별 각 1명)

구분	성명	직책(소속)	비고
위원장	박○○	입학처장	
위원	신○○	교원	
위원	이○○	교원	
위원	이○○	교원	
위원	최○○	교원	
위원	전○○	교원	
위원	김○○	입학팀장	당연직
위원	이○○	입학팀	
위원	김○○	의정부 A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위원	안○○	서울 B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위원	김○○	서울 C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간사	장○○	입학팀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 분석

1. 대학별고사 출제에 참여한 인원 및 고등학교 교원 참여 현황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재외국민과외국인 (KU재외국민과외국인)	출제위원	6명	6명	0명
	검토위원	3명	0명	3명 (3명)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고사 (KU논술우수자)	출제위원	17명	17명	0명
	검토위원	8명	0명	8명 (8명)

2. 출제 전, 출제 과정

● 재외국민과외국인

—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 출제위원(교수): 6명(인문계 4명, 자연계 2명), 검토위원(교사): 3명(현직 교사/과목별)을 선정하여 문제 출제

—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출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 검증위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검증위원의 업무 범위와 일정 등 제공

— 검토의견서 작성: 검증위원이 출제문제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단계	기간	추진내용	
방향 설정 (공통)	2024. 3. ~ 4.	**입학정책연구위원회(1차)**	•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 시기: 2024. 3. 12.(화) • 내용: 동점자 최소화방안(채점방식 세분화) 논의, 전형결과 보고 등
		입학정책연구위원회(2차)	•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 시기: 2024. 4. 17.(수)

			• 내용: 계열별 출제유형 및 평가방법 논의, 논술 KU자유전공학부 계열 신설 관련 논의, 계열별 전형결과 보고 등
↓			
위원 선정	**2024. 7.**		• 출제위원: 인문계 교수 4명, 자연계 교수 2명 • 검증위원: 현직 교사 3명 • 출제관리위원: 2명
↓			
출제 및 검증	**2024. 7.**		• 출제: 2024. 7. 23(화) ~ 7. 26.(금) (본교 교원 6명) -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수자료 제공,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안내 - 선행학습 영향평가 문항카드 작성 • 검증: 2024. 7. 24.(수) ~ 7. 26.(금) (현직 교사 3명) - 출제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이내 여부 검증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검증)
↓			
환류 단계 (공통)	**2025. 1. ~ 3.**		•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 교원, 입학 실무자 및 현직 교사 구성 - 회의 개최: 2025. 3. 17.(월) 18:00 ~ 19:00 - 내용: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감수, 대학별 고사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분석·평가, 다음 연도 대학별 고사에 반영 사항 제안

● 논술고사

—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 출제위원(교수): 17명(인문계 10명, 자연계 7명), 검토위원(교사): 8명(현직 교사/과목별)을 선정하여 문제 출제

—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출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 검증위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검증위원의 업무 범위와 일정 등 제공

— 검토의견서 작성: 검증위원이 출제문제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단계	기간	추진내용	
방향 설정 (공통)	**2024. 3. ~ 4.**	**입학정책연구위원회(1차)**	•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 시기: 2024. 3. 12.(화) • 내용: 동점자 최소화방안(채점방식 세분화) 논의, 전형결과 보고 등
		입학정책연구위원회(2차)	•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 시기: 2024. 4. 17.(수) • 내용: 계열별 출제유형 및 평가방법 논의, 논술 KU자유전공학부 계열 신설 관련 논의, 계열별 전형결과 보고 등

↓		
공유 검증	2024. 7. ~ 10.	• 논술가이드북, 모의논술 고사 및 논술 특강 등을 통한 방향 공유 • 논술가이드북 배포: 2024. 7. ~ 2024. 8. • 모의논술고사: 2024. 7. 8.(월) ~ 8. 7.(수) • 온라인 논술 특강(상시): 건국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		
위원 선정	2024. 11.	• 출제위원: 인문계 교수 10명, 자연계 교수 7명 • 검증위원: 현직 교사 8명 • 출제관리위원: 3명
↓		
사전 교육	2024. 11.	• 교육과정 총론 및 고교 교육과정 안내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연구 내용 교육 • 출제 및 검증 관련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		
출제 및 검증	2024. 11. ~ 12.	• 출제: 2024. 11. 7.(목) ~ 11. 16.(토) (본교 교원 17명) -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수자료 제공,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안내 - 선행학습 영향평가 문항카드 작성 • 검증: 2024. 11. 13.(수) ~ 11. 16.(토) (현직 교사 8명) - 논술 문제, 예시 답안, 문제풀이 등 고교 교육과정 이내 여부 검증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검증)
↓		
환류 단계	2025. 1. ~ 3.	•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 교원, 입학 실무자 및 현직 교사 구성 - 회의 개최: 2025. 3. 17.(월) 18:00 ~ 19:00 - 내용: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감수, 대학별 고사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분석·평가, 다음 연도 대학별 고사에 반영 사항 제안

● (공통) 출제 관리 노력

— 출제위원·검증위원 업무 숙지 강조, 출제 과정의 공정성 및 보안 강화

— 출제위원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출제에 관련한 업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

— 공정한 출제를 위한 출제장 및 인쇄장 관리(관리위원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관리)

— 출제 전 과정을 공정관리위원이 입소하여 관리

— 통신기기 회수 및 보안 서약서 작성

— 교과서 및 EBS 교재 제공(제공된 이외의 교재는 불허하거나, 공정위원이 사전검색 후 허용)

— 현직 교사 동반 입소: 검증위원인 현직 교사들이 동반 입소하여 출제 위원들(교수)과 출제 내용과 문제 풀이 등에 실제 참여하고 보완,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작성, 문제풀이 검토 및 확인

—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 중 고교 교육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 참여

— 검증위원은 계열별(교과별, 과목별) 현직 교사로 구성

— 출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 검증위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검증위원의 업무 범위와 일정 등 제공

— 검토의견서 작성: 출제문제 전반적인 내용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여부 검토의견서 작성

3. 출제 이후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문, 전년도 비교 등 변화 추이, 개선 노력사항 등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출제 교과 관련 전임교수 및 고교 교사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선행학습 예방 및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성 등을 확인

● 출제 문제에 대한 홍보

—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본교 커뮤니케이션본부를 경유하여 언론 보도

— 기출문제, 출제 의도, 문항 해설 등 실질적인 출제 내용을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

● 논술 채점에 관한 사항

—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가채점 회의를 개최하여 채점 자료집 등을 작성

— 계열별 출제위원장이 출제 의도, 채점 기준, 평가방법 등을 채점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출제위원들은 채점기간 동안 채점위원들의 자문 역할을 진행

— 문제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및 선행학습에 대한 노력 등을 설명하고, 채점 자료집 등을 활용하여 채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 채점장 운영 시 관리위원을 배치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함

Ⅳ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분석 결과 요약표

시험 유형	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부록2)
선다형고사	재외국민과외국인 (KU재외국민과외국인)	인문, 예체능계	1 ~ 40		영어, 영어 회화, 영어 Ⅰ, 영어 독해와 작문	○	1
			1 ~ 40		국어, 독서, 문학	○	2
		자연계	1 ~ 40		영어, 영어 회화, 영어 Ⅰ, 영어 독해와 작문	○	1
			1 ~ 25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	3

시험 유형	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부록2)
논술등 필답고사	논술 (KU논술우수자)	인문사회 Ⅰ	1		국어, 사회	○	4
			2		국어, 사회	○	
		인문사회 Ⅱ	1		국어, 사회	○	5
			2	2-1	국어, 사회,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	
			2	2-2	국어, 사회,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	

			2	2-3	국어, 사회,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	
		자연	1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6
			2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3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4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KU자유 전공학부	1		국어, 통합사회	○	7
			2	2-1	수학, 수학Ⅰ, 수학Ⅱ	○	
			2	2-2	수학, 수학Ⅰ, 수학Ⅱ	○	
			2	2-3	수학, 수학Ⅰ, 수학Ⅱ	○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맞추어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논술(KU논술우수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음.

-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 과정 전과 출제 업무 마무리 단계에서 출제위원들이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고, 현직 고교 교사로 이루어진 검증위원들이 확인하였음. 또한, 고교 교사가 출제된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제 문제에 대해 이중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함.

- 2025학년도에도 KU논술우수자전형 방법에 대한(수능 최저도입, 논술고사 100% 선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경향, 형식, 분량 및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음.

- 논술에 대해서는 ① 모의논술, ② 논술특강, ③ 논술가이드북 등을 통하여 논술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논술과의 일치도를 높인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며, 수험생과 교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

- 특히, 논술고사와 동일한 범위로 시행되는 모의논술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논술시험 난이도 및 적절성에 대해 현직 고교 교사 및 본교 교육과정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며, 2026학년도에도 위 방법과 절차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

- 2026학년도 출제에도 각 교과목별로 현직 교사를 검증위원으로 동반 입소하게 하여 고사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종 확인할 예정

- 고사 출제·검증 업무 숙지 절차 및 사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
  - 2015 고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출제위원, 채점위원, 검증위원, 입학실무자 등 모든 구성원이 2015 교육과정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
  - 2015 고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는 논술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를 통하여 개정된 고교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본교에서 운영하는 KU모의논술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변화된 고교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하여 연습(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본 논술에서는 모의논술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시험 난이도 및 적절성을 유지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
  -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출제 관련해서도 논술 출제와 마찬가지로 관리하여 난이도 및 적절성을 유지할 예정

Ⅵ 부록

1. 본교 규정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운영규정

제정 2023. 9. 1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장 제3절(입학과 등록)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캠퍼스 입학처가 진행하는 신(편)입학전형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 신고"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란 대학의 장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을 해당 수험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부위주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 하는 전형을 말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4.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을 말한다.
5.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6. "입학사정관"이라 함은「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전임입학사정관(채용, 전환, 교수)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분류한다.
7. "채용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처 소속으로 본교의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8. "전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일반직원 중에서 입학처에 발령받아 입학사정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

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위촉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중략)

제 6 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 32 조 (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33 조 (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입학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하 생략)

2. 문항카드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

[문항카드 1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영어(공통)]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공통(영어) / 문제 1 ~ 40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어휘, 어법, 담화 수준에서의 이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자료

※ 밑줄 친 (A)~(D) 가운데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6]

1. I feel (A)sincerely honored and privileged that you have invited me (B)to be the guest speaker at the upcoming regional conference of the Personnel Management Association. I am fully aware that this will be a prestigious event, (C)considered that you have invited (D)a few senators to this gathering.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2. Spring is in bloom and the park wears (A)a new green coat. There (B)is the tennis courts, a garden, and a small hill with an old house (C)that used to be a manor and is now used for events and a food stand (D)selling ice cream and snacks to sticky-fingered children.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3.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A)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B)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Consumer engagement levels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C)has simply exploded — and they show (D)little or no signs of slowing.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4. AI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already disrupting the traditional view of democracy, and not always for (A)the better, ensuring that processes are more inclusive. In fact, if anything, AI is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s, supporting the manipulation of information (B)to meet the needs of a few, and (C)enabled the emergence of super economic powers (D)that are outside democratic scrutiny and control.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5. Competition maintains the system of inequality in (A)either schools and society. Supporting competitive systems (B)is the ideology of competitive individualism — the notion that an individual's success or failure in life (C)depends on her or his own efforts and merits, and (D)that each person has a equal chance to compete and succeed. [5점]

① (A) ② (B) ③ (C) ④ (D)

6. Low-level anxiety is present in our lives (A)so often, like the air we breathe, that we might not even notice (B)them. It happens when we open the door to meet our new boss or when we look outside and see snow (C)coming down as we're packing up for our drive home; suddenly we're paying close attention to something we'd really (D)rather not think about, but the feeling doesn't last for more than a minute or two. [10점]

① (A) ② (B) ③ (C) ④ (D)

※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7-22]

7. Know-how and information are _____, but they are also intimately connected. The ability of a system to pack know-how depends largely on the fluidity with which it can use information to reconstruct the dynamic networks it needs to accumulate that know-how. [10점]

① forgettable ② distinct ③ influential ④ valuable

8. The communicative relevance of algorithms is actually related to their _____ from understanding. We are facing a way to process data that is different from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d understanding. [10점]

① facilitation ② reproduction ③ efficiency ④ independence

9. Your anxiety most likely has _____ roots. For example, many people that I treat at my center tend to have a family history of phobias, panic attack struggles, o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10점]

① genetic ② diverse ③ fragile ④ vague

10. One of the things that often block our creativity is our own _____. Psychologists believe we have a built-in censor that limits the information we are prepared to accept from the preconscious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from being overwhelmed by the

information we contain in our brain. [10점]

① motivations ② inhibitions ③ behaviors ④ emotions

11. People tend to _____ how harshly others will judge them. This dynamic may apply to the case of help-seeking. Even a small request can make the help-seeker feel self-conscious, embarrassed, and guilty. [10점]

① ignore ② ascertain ③ overestimate ④ interpret

12. Most people don't equate _____ with appreciation. People whose work is always good still need to hear it from you occasionally. Let them know you've noticed they are meeting their goals. [10점]

① silence ② success ③ competence ④ value

13. Certain hindrances to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may lie in _____ specialization, i.e.,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or to focus on developing one ability too early in life. [10점]

① premature ② flexible ③ unique ④ consistent

14.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had a great impact on reducing _____. Blogs and social media link rural residents with people who share their interests around the world. [10점]

① consumption ② competition
③ diversification ④ isolation

15.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 exist in physical space, where their _____ can be perceived and their capabilities at least roughly calculated. [10점]

① recollection ② authorization
③ deployment ④ exposition

16. There is an abundance of evidence that residents of communities with high crime and _____ traffic and air pollution do not exercise as much for rear of being outside. [10점]

① transient ② congested
③ impressive ④ commutative

17. In the most extreme cold, the feet of a warm-blooded animal are at risk of becoming frozen to the ground. Mammals in Arctic regions such as polar bears are _____ for life in these conditions by having thick hairs to protect their feet from the cold. [10점]

① adapted ② transferred
③ exhausted ④ disgusted

18. The climbers had two options: climbing straight down the ice cliffs or taking a(n) _____. [10점]

① detour ② anchor
③ encore ④ contour

19. Talent shows make it difficult for viewers to make _____ decisions by adding personal stories of the contestants. [10점]

① prevalent ② controversial
③ competitive ④ objective

20. After witnessing many tragic deaths during the war, Nightingale knew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unnecessary deaths was to improve _____ conditions in army hospitals. [10점]

① sanitary ② artificial
③ depressive ④ professional

21. In 1492, when Christopher Columbus, the Italian explorer, set sail from Spain to find a new route to India, the purpose of his journey was to find a way to safely bring black pepper from Asia and _____ the kitchens of Europe. [15점]

① transplant ② secure
③ decorate ④ appreciate

22. To reduce global warming, AI could _____ much better ways to generate energy without polluting the environment. [15점]

① put up with ② make up with
③ come up with ④ catch up with

23.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Is water really scarce? Earth sometimes called “the Blue Planet” because it is covered by so much water. (A)_____, Earth does contain over a billion trillion liters of water. (B)_____, very little of that water is safe to drink. Over 97% of the water on Earth is salt water. Of the fresh water that remains, over two thirds is locked away in ice caps and glaciers. Most of the rest is trapped in the soil or underground.

	(A)	(B)
①	For example	Furthermore
②	In fact	However
③	Similarly	As a result
④	Moreover	On the contrary

24.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20점]

Although we all fail, the experience and the result differ from one person to another.

If we were asked which one we prefer between success and failure, we would all choose success. **(A)** That is, no one wants to fail. **(B)** However, despite our fear of failure, it is not always avoidable. **(C)** While some turn failure into success through the lessons they learn, others continue to fail because they are not aware of the lessons failure offers. **(D)** In order to learn from failure, it is important for us to reflect. Writing a failure resume can help us to do this.

① (A) ② (B) ③ (C) ④ (D)

25.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점]

When we bemoan the lack of originality in the world, we blame it on the absence of creativity. If only people could (A)<u>generate</u> more novel ideas, we'd all be better off. But in reality, the biggest barrier to originality is not idea generation — it's idea selection. In one analysis, when over two hundred people (B)<u>dreamed up</u> more than a thousand ideas for new ventures and products, 87 percent were completely unique. Our compan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don't necessarily suffer from a shortage of (C)<u>old</u> ideas. They're constrained by a shortage of people who excel at choosing the right novel ideas. The Segway, a two-wheeled, self-balancing personal transporter, was a false positive; it was forecast as a hit but turned out to be a miss. *Seinfeld*, an American sitcom television series, was a false negative: it was expected to fail but ultimately (D)<u>flourished</u>.

*bemoan: 한탄하다

① (A) ② (B) ③ (C) ④ (D)

26. 밑줄 친 (A)~(D) 가운데 어법상 옳지 <u>않은</u> 것은? [20점]

Disposable plastic plates caus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they can take about 100 years to break down. (A)<u>Little have</u> we done about them until now. The answer is to make plates from something else. Why not edible ingredients, like birdseed and potatoes? That is precisely the idea behind birdseed plates. They are designed to be eaten by animals. When you are done with your meal, just throw the plate into a tree or bush. When the plate hits something hard, it breaks into smaller pieces (B)<u>which</u> animals like to pick up and eat.

If people in the past had been as eco-friendly as the designers of these products, they would not (C)<u>cause</u> the crisis the world is facing today. Sustainable design clearly shows that we can keep the crisis from (D)<u>getting worse</u>. It only takes creativity and willingnes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hand over a cleaner planet to future generations.

① (A) ② (B) ③ (C) ④ (D)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7-40]

[27-28]

We come into the world ready to start relationships and, as we gain (A)control of our body, we're keen to take part in games and tasks that involve working with others. In this way, we're so different from young chimps. Experiments have shown chimps can understand collaborative tasks perfectly well, but they only (B)bother to take part if they can see how it will result in their getting a piece of fruit or some other reward. Humans, _____, often work together just for the joy of it. Experiments have shown that working with others affects children's behavior. Afterward, they're more (C)economical in sharing any treats the experimenters give them — as if working with others has put them in a better mood. It seems unlikely that children's greater willingness to share is simply the result of learning that they should pay people for working with them, but the way we feel about everything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that (D)shaped the development of our brain. Our childhood observations of others don't just help us learn how to behave; they help us understand how we're supposed to feel.

27.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① (A) ② (B) ③ (C) ④ (D)

28.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for example ② by contrast ③ thereby ④ moreover

[29-30]

Although it may seem like common sense to anyone who has ever learned something new or developed a skill, the idea that the brain can change has become fashionable in recent years. Neuroplasticity refers to the brain's ability to change and reorganize throughout the life of an individual.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conditions has always been crucial to our survival, so this capacity has been hardwired into the mind of all higher life forms. You can build new neural pathways, and reinforce or diminish old ones through learning, conditioning, and practice. In fact, it would be impossible to prevent the modification of your mind. Everything you do or experience _____ your mind. Even sharing pictures of your food is a form of practice that will strengthen the connections between certain neurons at the expense of others. Multi-linguists, professional musicians and academics with encyclopedic knowledge are living proof of the incredible human capacity for neuroplasticity.

*neuroplasticity: 신경가소성

29.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threatens ② weakens ③ alters④ reflects

30.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Neuroplasticity: Incredible Human Capacity
② The Origin of Neuroplasticity
③ Reinforcing New Neural Pathways
④ Living Proof of Creative Human Mind

[31-32]
If we think about feelings as (A)being part of us but not all that we are, then our feelings can feel more manageable. This idea is captured in this metaphor: you are the blue sky; your feelings are the weather. If you are the blue sky and your feelings are the weather, then just as the worst hurricane or tornado can't damage the blue sky, and it eventually ends, your feelings can't damage you, and eventually they will pass. Sometimes we just have to wait out the storm. Does that mean it's fun (B)to live through a tornado or a rainstorm? Of course not! Is it easier to live your life when it's sunny and 80 degrees Fahrenheit compared to when it's rainy and stormy? Of course! But if I let the weather (C)determines what I can get done, I'll forever be at the mercy of something I can't control. Our job is to make space for our feelings, to be the blue sky, so we don't have to engage in unhealthy habits to cope with our feelings and we can continue to do the things (D)that matter to us.

31. 밑줄 친 (A)~(D) 가운데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5점]
① (A) ② (B) ③ (C) ④ (D)

3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The Blue Sky and Feelings
② The Weather and Its Metaphor
③ How to Manage Feelings
④ Eliminating Unhealthy Habits

[33-34]
Attention is selective. We cannot focus on everything, and the knowledge we bring to a given situation allows us to direct our attention to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nd to ignore the rest. The extent to which our schemas and expectations guide our attention was powerfully demonstrated by an experiment in which participants watched a videotape of two "teams" of three people, each passing a basketball back and forth. The members of one team wore white shirts, and the members of the other team wore black shirts.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count the number of passes made by the members of one of the teams. Forty-five seconds into the action, a person wearing a gorilla costume strolled into the middle of the action. Although a large black gorilla might seem hard to miss, only half the participants noticed it! The participants' schemas about what is likely to happen in a game of catch directed their attention so intently to some parts of the videotape that they _____ to see a rather dramatic stimulus they did not expect to see.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5점]
① 실험참가자들은 두 팀이 각자 농구공을 주고받으며 패스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보았다.
② 각 실험참가자는 두 팀 중 한 팀의 구성원들이 한 패스의 횟수를 세도록 요청받았다.
③ 한 팀의 구성원들은 흰색 셔츠를 입었고, 다른 팀의 구성원들은 검은색 셔츠를 입었다.
④ 실험참가자들 모두가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을 알아챘다.

3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needed ② had ③ intended ④ failed

[35-36]

Located in northern Tanzania, the Serengeti region includes Serengeti National Park and several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Its ecosystem is one of the oldest on Earth, where the climate, plants, and animals have barely changed in the past million years. The Serengeti is perhaps best known for its animal migrations. Every October and November, more than one million wildebeest and some 200,000 zebras move from the northern hills to the southern plains for the short rains. Then after the long rains in April, May, and June, they head west and back to the north.

During the 1960s and 1970s, to Serengeti's regret, a severe economic depression in the country hit Serengeti National Park. Due to deep budget cuts, wild animals were not given enough protection against illegal hunting. _____, the elephant population declined to only a few hundred, and the rhinoceros population fell to just two individuals. As the economy improved, in the 1980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onations grew, park rangers were better able to protect the animals from illegal hunters. The 1989 worldwide ban on ivory also helped reduce illegal hunting.

*wildebeest 누 (영양의 일종)

35.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① However ② Moreover
③ As a result ④ Nonetheless

36. Serengeti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5점]
① 오랫동안 기후와 동식물의 변화가 없었다.
② 10월과 11월에 동물들이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한다.
③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 불황으로 코끼리 수가 감소했다.
④ 1980년대 이후 불법적인 코끼리 사냥이 감소했다.

[37-38]

It's important to observe our behaviour at home or outside and be (A)conscious of ways in which we might react to a wasp, say, or a spider. Obviously wasps can be annoying and no one wants a wasp to sting their child, but they are not the (B)friend. If a child's first

experience of a spider or moth is a parent wanting to swat and kill it as quickly as possible, it's not exactly going to sell spiders or moths to the child as other beings to respect or protect. We are the greatest influences on our children and if we communicate (C)mindless fear and disgust for insects, for example, it's likely to limit the child's growing interest. How we talk about other creatures (D)matters. A relationship of love and kinship with nature is cultivated by the way _____.

37.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① (A) ② (B) ③ (C) ④ (D)

38.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parents show their love to their children
② we consider and perceive other species
③ people managed to face natural disasters
④ we domesticate wild animals

[39-40]
AARON is AI software that paints pictures by itself. It has been producing paintings since 1973. At first, it could only make abstract images in black and white. However, over the last 40 years, it has acquired the ability to paint plenty of _____ images of things like rocks, plants, and people, and it can now paint in color, too. AARON cannot paint new images and styles of painting by itself, but once they are coded into the software, it can draw an almost infinite number of unique paintings. Several of AARON's paintings have been widely praised and exhibited in art galleries around the world Some people even say that they are more artistic than paintings done by humans.

39.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① artificial ② artistic
③ creative ④ realistic

40. AARON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5점]
①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이다.
② 처음에는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다.
③ 코딩 없이 독창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④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3. 출제 의도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영어고사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무난하게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

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주어진 50분 이내에 40문항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어휘, 문법, 독해, 및 쓰기(간접 측정)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출제되었다. 영어로 쓰인 전공 교재의 내용을 막힘없이 이해하여 전공 교과목의 수업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의 파악을 위하여, 주제와 대의의 파악, 지칭어 추론, 사실적 정보의 정확한 파악,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문항별 난이도에 맞게 배점에 차등을 두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 영어		관련 문항
성취 기준1 (읽기)	고등학교 영어의 ‘읽기’ 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와 중심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글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과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0영03-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5]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10영03-06]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1 2 3 4 5 13 14 20 23 24 30 31 32 33 34
성취 기준2 (쓰기)	고등학교 영어의 ‘쓰기’ 영역에서는 목적, 상황, 형식에 맞는 글을 조리 있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 과정 중심 활동, 동료 수정 활동 등을 통해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 및 매체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글의 맥락 및 목적에 맞도록 타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등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10영04-0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10영04-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0영04-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0영04-04]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0영04-05]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0영04-06]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6 29 39

과목명 : 영어 I		관련문항
성취 기준1 (읽기)	고등학교 영어 I의 '읽기'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며,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높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여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2영I03-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I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I03-03]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I03-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2영I03-05]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12영I03-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6 7 10 12 15 21 22 28 35 36
성취 기준2 (쓰기)	고등학교 영어 I의 '쓰기' 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간단한 글로 표현하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 언어 재료 및 맥락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처리 능력을 길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2영I04-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12영I04-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2영I04-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2영I04-04]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하여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2영I04-05]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2영I04-06]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7 38

과목명 : 영어독해와 작문		관련문항
성취 기준1 (읽기)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의 '읽기' 영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며, 맥락 및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생활 주제의 글에서부터 기초적인 학문 분야의 글을 읽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 앞으로의 다양한 전공 분야와 진로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및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4]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5]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12영독03-06]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8 9 11 16 17 18 19 25
성취 기준2 (쓰기)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의 '쓰기' 영역에서는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문장과 글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글쓰기 활동과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도록 한다. [12영독04-01]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12영독04-02]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2영독04-03]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2영독04-04] 학업과 관련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2영독04-05] 미래의 계획이나 진로 등에 관하여 글을 쓸 수 있다. [12영독04-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37 40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High School English I	최인철 외 7인	금성출판사	2017	132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I	박준언 외 6인	YBM	2017	40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Reading & Writing	안병규 외 5인	천재교육	2017	137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Reading & Writing	양현권 외 5인	능률교육	2017	91, 118, 119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Reading & Writing	신정현 외 6인	YBM	2017	86, 87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Reading & Writing	김진완 외 5인	비상교육	2017	12, 91, 129	지문	X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 EBS 수능특강(독해)	이상기 외	EBS	2022	193	지문	O
2024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황종배 외	EBS	2023	14	지문	O
2024 EBS 수능특강(영어)	이현우 외	EBS	2023	15, 19, 26, 62, 70	지문	O
2024 EBS 수능완성(영어)	이창수 외	EBS	2023	40, 88, 91, 121	지문	O
2024 EBS 수능특강(독해)	황종배 외	EBS	2023	9, 51, 187	지문	O
2025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황종배 외	EBS	2024	9, 23, 43, 116	지문	O
2025 EBS 수능특강(영어)	류혜경 외	EBS	2024	26, 102, 146, 174	지문	O

5. 문항 해설

1번부터 6번 문항까지는 제시된 비교적 짧은 담화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고르는 유형으로, 영어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영어 구조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7번부터 22번 문항까지는 30~70단어의 비교적 짧은 담화 안에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글의 주제부터 함축적 의미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3과 24번 문항은 접속

사 이해 능력 문항과 주어진 맥락 속에서 특정한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5번과 26번 문항은 비교적 긴 지문 내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어휘를 활용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올바른 어법에 관한 묻는 문항이다. 27번부터 40번 문항은 비교적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1지문 2문항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세부 정보 파악, 글의 주제와 흐름 파악, 올바른 어법 및 어휘 사용 등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30번과 32번은 일반적인 글을 읽고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번호	정답
1	3
2	2
3	3
4	3
5	1
6	2
7	2
8	4
9	1
10	2
11	3
12	1
13	1
14	4
15	3
16	2
17	1
18	1
19	4
20	1

문항번호	정답
21	2
22	3
23	2
24	3
25	3
26	3
27	3
28	2
29	3
30	1
31	3
32	3
33	4
34	4
35	3
36	4
37	2
38	2
39	4
40	3

[문항카드 2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국어(인문, 예체능계)]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예체능계(국어) / 문제 1 ~ 40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문법, 읽기, 쓰기, 화법,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산문, 고전소설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자료

1. ㉠~㉤ 중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5점]

>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서점에 갔다. 지하철을 잘못 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해 책을 보는데, 뛰어서 그런지 ㉢갈증이 나고 발도 아파 잠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이가 살 책을 결정한 뒤에 밥을 먹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꾹 참고 책을 골랐다. 책을 산 뒤, 지은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ㅢ'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표준발음법]**
>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다만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 다만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 다만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① '희망'의 'ㅢ'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니 [ㅣ]이라고 발음해야겠다.
② '의사(意思)'의 'ㅢ'는 단어의 첫 음절에 해당하므로 [ㅣ]로 발음할 수 있겠다.
③ '국민의'의 'ㅢ'는 조사이기에 [ㅔ]로 발음할 수 있겠다.
④ '동의'의 'ㅢ'는 첫 음절이 아니기에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거나 [ㅣ]로 발음할 수 있겠다.

3. 밑줄 친 말이 문맥에 맞게 적절히 사용된 것은? [20점]
① 우리 누나는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했어.

②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③ 걷잡아서 천 명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④ 안개가 거치니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4. 다음 중 문장 성분이 올바르게 호응하는 것은? [15점]
① 문제는 상점에 전시된 상품들이 낯선 장소로 이동되었다.
②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③ 가정과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까요?
④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겠는가? 단지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한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라고 했다.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적어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고자 한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① 자신을 경계하며 마음에 새기기 위해 쓴 글이다.
② 선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③ 부정적 일화를 사례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6. 다음 속담 중 윗글의 '말'에 대한 관점과 가장 유사한 것은? [15점]
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②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④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고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끓어 보며,
어니 먼 산 뒷 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쥔을 붙이다: 주인집에 세 들어 갈다.
*누긋하다: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하다.
*북덕불: 짚이나 풀, 겨 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쌔김질: 새김질 *나줏손: 저녁 무렵 *어니: 어느

(나)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백설 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성삼문

*낙락장송(落落長松):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만건곤(滿乾坤):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7.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① 화자가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인식한다.
② 화자가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한다.
③ 화자가 겪는 시련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④ 화자의 의지를 객관적인 사물로 표상하였다.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①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② 암담한 시대 상황과 가난한 현실이 그려진다.
③ 시의 운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장 부호를 활용한다.
④ 유구한 민족사를 떠올리며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한다.

9. (가)의 ㉮~㉱ 중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전환되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은? [5점]
① ㉮ ② ㉯ ③ ㉰ ④ ㉱

10.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① 문화적으로 양식화된 정형시이다.
② 관습적 상징을 활용하고 있다.
③ 주제의식을 시각적 심상으로 제시한다.
④ 타인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가)의 ㉠~㉣ 중 (나)의 '백설'과 시적 의미가 상응하지 않는 것은? [10점]
① ㉠ ② ㉡ ③ ㉢ ④ ㉣

1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다. 즉, 제목은 화자가 거처하는 주소지이며 작품의 내용은 편지의 사연에 해당하여, 작품 전체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① 사적인 사연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독자의 기대를 구성한다.
② 편지 형식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③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의 주제를 전달한다.
④ 편지라는 문화적 양식을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기에 가독성을 갖는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

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십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①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두괄식의 구성 방식을 통해 논지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
③ 구체적 예시를 통해 뇌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④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4. 뇌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② 진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③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영역이 관여한다.
④ 집중하지 않은 정보는 슬며시 뭉개버린다.

※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외가 식구들이 친가에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내뱉으면서 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한편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져 있지만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에 삼촌은 오지 않고 난데 없이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까무라쳐 쓰러진다.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티 맽기고 자네 혼자 몸띵이나 지발 성혀서 먼 걸음

펜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펜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에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중략)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윤흥길, 〈장마〉

15. 윗글에 등장하는 구렁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① 구렁이는 죽은 외삼촌의 환생이라 할 수 있다.
② 구렁이가 신령한 동물이라는 무속적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③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④ 외할머니는 구렁이와 교감하며 소통했다고 믿고 있다.

16.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① 외삼촌이 죽은 이후 두 할머니는 크게 다투었다.
② 집을 나간 삼촌은 국군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여하였다.
③ 할머니는 아버지보다 밖에 있는 삼촌을 더 염려하였다.
④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주술적 행위에 소용되었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점]
① 구렁이가 집 안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한을 풀고 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담겨 있다.
② 구렁이가 '성님'에 대한 원한 감정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겼다.
③ 구렁이가 외할머니를 공격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④ 구렁이가 용한 점쟁이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있다.

18. ㉯에서 할머니가 운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5점]
① 아들을 영영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② 구렁이가 되어서라도 찾아온 삼촌에 대한 슬픔 때문에
③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④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 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 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0점]

① 갈등 전개에 따른 구성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
②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제재로 삼고 있다.
③ 글쓴이가 자연물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④ 글쓴이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투로 서술하고 있다.

20. ㉠의 계기가 된 것은? [5점]

① 나무에게 빈 결과 어머님의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② 참나무처럼 나도 속마음을 변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③ 참나무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④ 느티나무가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우주 나무이기 때문에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5점]

①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많다.
② 글쓴이는 참나무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참나무는 계절에 따라 그 모습과 의미가 바뀌고 있다.
④ 참나무를 통해 굳건함과 포용성을 배울 수 있다.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원(淳園)의 꽃 중에는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꽃이 아직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나)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맛난 회와 구이가 있다면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다면 입기만 하면 된다. 입어 따뜻하면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좋아할 만한 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다)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굴원(屈原)과 함께 배향하였다.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굴원**은 〈초사(楚辭)〉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칙(正則)이니 영균(靈均)이니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굴원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런데도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백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이름은 정말 이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 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 주어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답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이다.

(라)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라서 없는 것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를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신경준, 〈이름 없는 꽃〉

*순원: 글쓴이의 고향 순창에 있는 정원
*굴원과 어부: 굴원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한탄하며 오물을 뒤집어쓰며 살 수 없다고 하자, 어부가 굴원의 고고한 처세를 비판하였다. 사람들은 굴원뿐만 아니라 어부의 말에도 감동하여 굴원과 어부를 함께 기렸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0점]
① 특별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서술되었다.
② 상식에 의문을 품고 독창적인 생각을 펼쳐나간다.
③ 반박하는 이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강조한다.
④ 널리 알려진 사례를 근거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3. (가)~(라)의 구성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0점]
① (가):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③ (다): 논의의 흐름을 전환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 논의를 종합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24. '굴원'과 '어부'에 대한 글쓴이의 시각으로 적절한 것은? [15점]
① 굴원은 제 이름을 꾸며 자신을 높였다.
② 굴원의 이름이 아름다워진 것은 어부의 덕이다.
③ 어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겨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④ 초나라 사람들은 굴원보다 어부를 더 좋아한다.

25. 다음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점]

선생님: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명분과 같은 허울에만 빠지지 말고 사물의 실질을 주목하고 실생활의 가치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학의 근간이 되는 사고입니다.

① 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관념적인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② 이름도 모르고 즐기는 음식이나 옷은 실질적인 사물이라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는 명분보다는 실질에 주목하는 실학적 사고가 담겨 있다.
④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관념적인 대부의 삶에 비해 실천적인 어부의 삶을 더욱 가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

이다.

※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수성궁에서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안평 대군의 초청으로 김 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 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된다. 김 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된다. 운영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어 보내고, 김 진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안평 대군 몰래 수성궁에서 만나며 사랑을 이어간다.

하루는 대군이 서궁(西宮) 수헌(繡軒)에 나와 앉았으니 때에 철쭉이 성히 피었는지라. 시녀를 명하여 글을 지으라 하시니 각각 오언절구(五言絶句)를 지어 올리는데, 대군이 받아 보시고 크게 칭찬하사 왈,

"너희들의 글이 날로 점점 더하니 내 심히 아름다이 여기노라. 그러나 다만 운영의 글에는 분명히 사람 생각하는 뜻이 있으니 전일 부연시(賦烟詩)에 그 뜻을 잠깐 보았더니 이 글에 또한 여차한 뜻이 있으니 너의 좇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뇨? 김생의 상량문(上樑文)에 말이 의심되고 이상한지라, 네 혹시 김생을 생각하는 바가 있느냐."

하시니 첩이 즉시 뜰에 내려 고두(叩頭) 왈,

[가] "주군이 한 번 의심됨을 보이시매, 그때 즉시 자진코자 하오나 스무 살도 못 되어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마음이 심히 원통할지라. 이러므로 구차하게 이때까지 살아왔삽더니 이제 또 의심을 뵈온지라. 한번 죽음이 무엇이 아까우리잇가. 천지 귀신이 도처에 벌여 있고 시녀 오인(五人)이 경각(頃刻)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더러운 이름을 홀로 첩신(妾臣)에게 돌려보내시니 첩이 이제 죽을 곳을 얻었나이다."

하고 즉시 ㉠**수건**으로써 스스로 난간 아래 가 목을 매니, 자란이 가로되,

"주군이 이같이 영명(英明)하시나 무죄한 시녀로 하여금 사지(死地)로 나가게 하시니 이후로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잡아 글을 짓지 아니하리로소이다."

대군이 비록 성히 노하시나, 마음속으로는 실로 죽이든 아니하시려 하므로 즉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하라" 하시매 능히 죽지 아니한지라, 대군이 이에 흰 ㉡**비단** 다섯 필을 내어 오인(五人)을 나눠 주며 왈,

"너희가 지은 글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이럼으로써 상(賞)하노라."

하시니, 이로부터 진사가 다시 출입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병들어 누워 눈물이 ㉢**금침(衾枕)**을 적시매, 명(命)이 실낱같은지라. 노복(奴僕) 특이 들어와 보고 가로되,

"대장부 사즉사의(死則死矣)라. 어찌 차마 상사하는 원을 맺어 설설히 아녀자의 상회(傷懷)함을 본받아 스스로 천금같이 소중한 몸을 버리리잇고. 이제 마땅히 계교로써 취하면 어려움이 없을지라, 한밤중 고요한 때를 타 담을 넘어 들어가 솜으로 그 입을 막아 업고 뛰어나온즉 뉘 감히 나를 따르리오."

진사 왈,

"그 계교 또한 위태한지라. 성실로써 이룸만 같지 못하다."

하고 그 밤에 들어오매 첩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자란으로 하여금 맞아 들어와 술 먹더니, 첩이 봉서(封書)로써 부쳐 왈,

"이후는 능히 다시 보기 어려운지라. 삼생(三生)의 연과 백 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다하도다. 천연(天緣)이 끊이지 아니하면 마땅히 ㉣**구천(九泉)**의 지하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노라."

한대, 진사가 글을 안고 서서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가슴을 두드려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자

란이 그 참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기둥을 의지하여 몸을 감추고 눈물을 뿌리고 섰더라.

-작자 미상, 〈운영전〉

*부연시: 안평 대군이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궁녀들에게 한시를 짓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은 한시를 말함.
*상량문: 상량식을 할 때에 상량을 축복하는 글. '상량'은 집을 지을 때에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놓는 일을 말함.
*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조아림.
*영명하다: 뛰어나게 지혜롭고 총명하다.
*사즉사의: 죽으면 죽는 것이다.
*봉서: 겉봉을 봉한 편지

26.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5점]
① 안평 대군은 시를 통해 운영의 마음이 김 진사에 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② 자란은 안평 대군 앞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③ 특은 김 진사를 위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험한 계책을 내놓았다.
④ 김 진사는 특의 꼬임에 빠져 자신과 운영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하였다.

27. ㉠~㉣ 중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5점]
① ㉠ ② ㉡ ③ ㉢ ④ ㉣

2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0점]
① 안평 대군이 이전에도 운영을 의심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운영은 김 진사와 계획한 대로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
③ 운영이 한 말은 이후 안평 대군이 분노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④ 운영은 진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했다.

29. 위 소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① 안평 대군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②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 진사의 금지된 사랑을 다루고 있어 더욱 애절하게 느껴져.
③ 김 진사가 아픈 운영에게 찾아왔을 때 운영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니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여겨져.
④ 운영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고 운영과 함께 슬퍼하는 자란의 우정과 의리는 대단해.

※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대중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고 한다.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여러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대중 영상물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대중문화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는 작가와 감독(연출자)을 비롯한 제작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으므로 역사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인식을 높

이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과연 허구가 개입된 역사 영상물은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적 매개체인가, 아니면 대중이 소비하는 영상 자료들 가운데 실화 혹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오락 품목의 하나인가? 이러한 질문은 역사와 대중을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인 극화된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대변한다. 하나는 ㉠**'역사 대중화'**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대중문화화'**라는 차원이다. 양측 모두 '쉬운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가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후자는 '역사의 재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사 영화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이 공유하는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요시하며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것과, 역사를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이자 자원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서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것,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 영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역사 대중화는 역사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생산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근래에는 역사 자료들이 속속 번역·정리되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제 누구나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역사가만이 아니라 영화·드라마의 제작진도, 일반 대중도 얼마든지 '문학하기', '철학하기'처럼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전문 영화감독이 사라지지 않듯이 누구나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도 단순히 자문을 받거나 감수를 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획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등 역사가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다.

30. '역사 영화'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15점]
① 역사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제작진의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다.
② 역사 영화는 역사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③ 역사 영화는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④ 대중도 공공의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 영화를 찍을 수 있다.

31. ㉠와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① ㉠과 ㉡은 역사 교육에 역사 영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역사와 대중이 만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③ ㉠보다는 ㉡이 문화상품의 소비자로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역사의 의미를, ㉡은 역사의 재미를 중시한다.

3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점]
① 역사하기 ② 역사 영화 보기
③ 역사 교육하기 ④ 역사 해석하기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뇌 속에는 수백 억에서 수천 억 개에 이르는 신경 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 개의 신경 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 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나) 1921년 오토 뢰비 박사는 미주 신경이 붙어 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액에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 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이를 통해 오토 뢰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 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3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미주 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 신경 물질'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임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는 마흔 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분의 1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 틈에서 신경 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 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미주 신경: 열째 머릿골 신경으로, 운동과 지각의 두 섬유를 포함하며 내장의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

33. 윗글의 핵심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0점]
① '신경 세포'는 다른 신경 세포들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②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세포 사이의 정보 교신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이다.
③ '소포체'는 신경 정보를 전기 신호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수용체'는 신경 세포막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0점]
① 이온 통로는 신경 세포막이 확장된 것으로 연접 틈에 존재한다.
②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의 특수 단백질 분자와 결합한다.
③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④ 신경 정보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전달된다.

35. (나)의 '오토 뢰비 박사'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은? [15점]
① 미주 신경 물질이 아세틸콜린임이 증명되었다.
② 개구리 심장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였다.
③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④ 이온 통로가 생성되는 방식이 밝혀졌다.

36. (다)~(마)를 종합하여 다음의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넣으면? [10점]

[㉠] 에서 연접 틈으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 세포막의 [㉡] 와/과 결합함으로써 [㉢] 이/가 열리고 신경 정보가 전달된다.

	㉠	㉡	㉢
①	소포체	수용체	이온 통로
②	수용체	소포체	이온 통로
③	이온 통로	수용체	소포체
④	소포체	이온 통로	수용체

※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 상보다 촉각 상에 더 치중하여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다.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

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이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으며,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이를 시각적 사실성에 의지해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 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이 있다.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이다. 이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 상에 가깝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촉각 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벽화에 [㉮]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다. 촉각 상은 시각 상에 비해 이런 [㉯]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다.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0점]

①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적 특성은 시각적 사실성에 있다.
②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시각 상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③ 이집트 벽화에는 정면과 측면 중 어느 한쪽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④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하는 미술의 시대는 그리 길지 않다.

38. 윗글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	㉯
①	세계의 변화	기능의 전달
②	세계의 질서	진리의 전달
③	세계의 변화	진리의 전달
④	세계의 질서	기능의 전달

39. 윗글을 참조할 때 다음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15점]

① 책거리 그림 ② 추상화
③ 이집트 파라오 그림 ④ 르네상스 시대 그림

40. 윗글을 바탕으로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① 미술은 시각적 감각으로 파악한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데 있다.
③ 미술의 진수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꽃피웠다고 할 수 있다.
④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원근법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3. 출제 의도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독서, 문학 범위 내에서 40문항을 객관식 4지선다형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어 교과와 합하여 100분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문학, 문법, 독서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로 구성하였으며, 독해 능력은 물론,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 독서, 문학 교과서 내에서 발췌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td><td>문항 1
문항 2</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td><td>문항 3
문항 4</td></tr>
<tr><td>성취기준 3</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td><td>문항 5
문항 6</td></tr>
<tr><td>성취기준 4</td><td>[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td><td>문항 7
문항 9
문항 11
문항 12</td></tr>
<tr><td>성취기준 5</td><td>[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td><td>문항 10</td></tr>
<tr><td>성취기준 6</td><td>[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td><td>문항 8</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d>문항 13
문항 14</td></tr>
</table></td></tr>
</table>

1		문항 19 문항 22 문항 23 문항 30 문항 33 문항 34 문항 35 문항 37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20 문항 21 문항 24 문항 25 문항 31 문항 32 문항 36 문항 38 문항 39 문항 40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17 문항 18
성취 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항 15 문항 26 문항 27 문항 28 문항 29
성취기준 3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문항 16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신유식 외	미래앤	2020	203	문제1 한글 발음	X
고등학교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0	182	문제2 한글 발음	○
고등학교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0	186	문제3 한글 맞춤법	○
고등학교 국어	이성영 외	천재	2020	208	문제 4 한글 호응	○
고등학교 국어	신유식 외	미래앤	2020	394	문제 5-6 담화 관습	X
고등학교 문학	신유식 외	미래앤	2020	279-280 254	문제 7-12 현대시 고전시가	X
고등학교 국어	박안수 외	비상	2020	182	문제 13-14 사회 지문	X
고등학교 국어	박영민 외	비상	2020	76-78	문제15-18 현대소설	X
고등학교 국어	박영민 외	비상	2020	108-109	문제 19-21 수필	X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20	17-18	문제 22-25 고전산문	X
고등학교 문학	류수열 외	금성	2020	80-82	문제 26-29 고전소설	X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2020	62-63	문제 30-32 인문 지문	X
고등학교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20	54-57	문제 33-36 과학 지문	X
고등학교 독서	박영민 외	비상	2020	40-41	문제 37-40 예술 지문	X

5. 문항 해설

1~4번 문항은 각각 음운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문법 영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

5~6번 문항은 제시문 속 윤휴의 글을 통해 '말'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7~12번 문항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과 성삼문의 시조를 자료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작품의 구성 요소가 작품 전체의 내용 및 주제 구현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13~14번 문항은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자세를 피력하는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글의 서술 방식과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15~18번 문항은 윤흥길의 〈장마〉를 지문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심리 및 주요 소재인 구렁이의 문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19~21번 문항은 수필을 읽고 서술상 특징과 글쓴이의 삶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22~25번 문항은 인문 분야의 지문을 읽고, 글의 구성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고, 나아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 또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26~29번 문항은 고전 소설 〈운영전〉을 제시하여 서사적 이해 능력, 인물의 심리 이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30~32번 문항은 인문 분야의 지문을 제시하여 역사 대중화와 역사의 대중 문화화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33~36번 문항은 과학 분야의 지문을 제시하여,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정보들에 대한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37~40번 문항은 예술 분야의 지문을 제시하여 미술의 보편적 기능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더불어 문맥에 맞는 빈칸의 내용을 묻는 문항을 통해 추론적 이해 능력과 어휘적 소양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번호	정답
1	2
2	2
3	1
4	4
5	3
6	1
7	4
8	4
9	3
10	4
11	3
12	4
13	2
14	2
15	1
16	2
17	1
18	3
19	4
20	1

문항번호	정답
21	3
22	1
23	3
24	1
25	4
26	4
27	4
28	1
29	3
30	3
31	1
32	1
33	3
34	1
35	3
36	1
37	2
38	2
39	4
40	2

[문항카드 3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수학(자연계)]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수학) / 문제 1 ~ 25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다항식, 평면도형, 집합, 함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극한, 도함수, 적분, 경우의 수, 확률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세 수 $A=2\log_2 3$, $B=1+\log_2 5$, $C=2\log_3 2$의 대소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0점]

① $A<B<C$ ② $A<C<B$ ③ $B<A<C$ ④ $C<A<B$

2.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t$와 두 곡선 $y=4^x$와 $y=2^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선분 AB의 길이가 3일 때, t의 값은? [10점]

① 1 ② 16 ③ 32 ④ 64

3. $\sum_{k=2}^{n}\log_2\left(1-\frac{1}{k^2}\right)=-4+2\log_2 3$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n은? [10점]

① 8 ② 9 ③ 10 ④ 11

4. 함수 $f(x)=ax(x^2-3)$에 대하여 $(f\circ f)'(\sqrt{3})=-18$일 때, 상수 a의 값은? (단, $a>0$) [20점]

① $\frac{1}{6}$ ② $\frac{1}{2}$ ③ 1 ④ 3

5. 함수 $f(x)=\begin{cases}x^2+(a-1)x & (x\le a)\\ 2a^2-a & (x>a)\end{cases}$ 가 $x=a$에서 미분가능할 때, $f(-3)$의 값은? (단, a는 0이 아닌 실수) [20점]

① 3 ② 7 ③ 11 ④ 15

6.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20점]

$2^{2x+1} - 15 \cdot 2^x + 7 \leq 0$

① 0 ② 4 ③ 8 ④ 15

7. 직선 $x + 2y = 10$과 원 $x^2 + y^2 = 25$의 교점이 A와 B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20점]

① $2\sqrt{3}$ ② $2\sqrt{5}$ ③ $2\sqrt{7}$ ④ 6

8. 함수 $f(x) = -\cos^2 x - 2a\sin x + 4$의 최솟값이 -2일 때, 실수 a의 값은? (단, $a > 1$) [20점]

① 3 ② 5 ③ 7 ④ 9

9.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점 $(1,\ 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 = ax + b$라고 할 때, $a + b$의 값은? [20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2) = e^{x^2+3x+2}$이다.

① e^6 ② $\frac{5}{2}e^6$ ③ $5e^6$ ④ $10e^6$

10.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mathrm{P}_n(n,\ \sqrt{15}n)$과 원 $x^2 + y^2 = 4$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a_n, b_n이라 할 때, $\sum_{n=1}^{\infty} \frac{4}{a_n b_n}$의 값은? [20점]

① $\frac{1}{4}$ ② $\frac{1}{2}$ ③ 1 ④ $\frac{3}{2}$

11. 열린구간 $\left(0,\ \frac{\pi}{2}\right)$에서 정의된 함수 $f(x) = \sqrt{3}x\tan x$의 역함수를 $h(x)$라 할 때, $\lim_{x\to\pi} \frac{3h(x) - \pi}{x - \pi}$의 값은? [20점]

① $\frac{3 + 4\sqrt{3}\pi}{9}$ ② $\frac{9 + 4\sqrt{3}\pi}{9}$ ③ $\frac{9}{3 + 4\sqrt{3}\pi}$ ④ $\frac{9}{9 + 4\sqrt{3}\pi}$

12. 닫힌구간 $\left[0, \frac{\pi}{2}\right]$에서 정의된 함수 $f(x)=\cos 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int_{\frac{1}{2}}^{\frac{\sqrt{2}}{2}} \frac{1}{f'(g(x))} dx$ 의 값은? [20점]

① $-\frac{\pi}{6}$ ② $-\frac{\pi}{12}$ ③ $\frac{\pi}{12}$ ④ $\frac{\pi}{6}$

13. 정적분 $\int_0^{\pi} \left| 2\sin x - \frac{6}{\pi} x \right| dx$의 값은? [20점]

① $-2\sqrt{3}+\frac{13}{6}\pi$ ② $-2\sqrt{3}+\frac{15}{6}\pi$ ③ $-2\sqrt{3}+\frac{17}{6}\pi$ ④ $-2\sqrt{3}+\frac{19}{6}\pi$

14.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int_{-2}^{2} (x+\sin x+5) f(x) dx$의 값은? [20점]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이다.
(나) $\int_0^2 f(x) dx = 7$

① 10 ② 14 ③ 35 ④ 70

15.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int_0^2 f(x) dx$의 값은? [20점]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1)=2$이다.
(나) $\int_0^5 f(x) dx = 5$

① -6 ② -4 ③ -2 ④ 0

16.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20점]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이다. (나) $\int_{-1}^{1}(f'(x)-f(x))dx=6$

① 5 ② 6 ③ 7 ④ 8

17. 0이상 10이하의 정수 x, y의 순서쌍 $(x,\ y)$중 $\sin\frac{(x^2+y^2)\pi}{2}=0$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는?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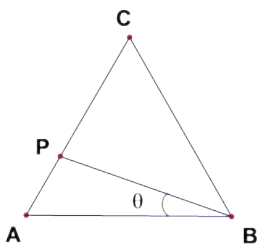
① 50 ② 61 ③ 72 ④ 90

18.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는? [20점]

(가) $\lvert a\rvert \le 10,\ \lvert b\rvert \le 10$ (나) $\{x\lvert 2x^2+ax+b=0\}\cap\{x\lvert 2x^2+bx+a=0\}=\{1\}$

① 15 ② 16 ③ 18 ④ 20

19.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점 P는 변 AC를 1 : 2로 내분하는 점이다. $\angle ABP=\theta$라 할 때, $\cos\theta$의 값은? [20점]



① $\frac{3}{14}\sqrt{7}$ ② $\frac{5}{14}\sqrt{7}$ ③ $\frac{7}{14}\sqrt{7}$ ④ $\frac{9}{14}\sqrt{7}$

20. 집합 $A=\{1, 2, 3, 4, 5\}$에서 정의된 함수 $f: A \to A$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의 개수는? [20점]

(가) $\{(f \circ f)(x) \mid x \in A\} = A$
(나) $\{x \mid (f \circ f \circ f)(x) = x\} = \{1\}$

① 6 ② 9 ③ 12 ④ 24

21. 6개의 문자 a, b, c, d, e, f 를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 앞에문자 b와 c가 모두 나타나는 방법의 수는? [20점]

① 200 ② 240 ③ 280 ④ 320

22.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종류의 공이 있다.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공 16개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의 수는? (단, 각 종류의 공은 충분히 많다.) [20점]

(가) 1부터 6까지 모든 숫자에 대하여, 숫자가 적힌 공은 각각 1개 이상 선택한다.
(나) 숫자 1, 2가 적힌 공은 홀수개, 숫자 3, 4, 5, 6가 적힌 공은 짝수개 선택한다.

① 36 ② 56 ③ 80 ④ 112

23. 열린구간 $(1, 100)$에서 정의된 함수 $f(x) = \int_x^{2x} \frac{\ln t}{t^2} dt$의 최댓값은? [30점]

① $\frac{1}{4}$ ② $\frac{1}{2}$ ③ 1 ④ 2

24. 한 개의 동전을 8번 던지기로 하자. 이 시행에서 앞면이 연속하여 나타나지 않으면서, 앞면이 3번 이상 나올 확률은? [30점]

① $\frac{21}{256}$ ② $\frac{23}{256}$ ③ $\frac{25}{256}$ ④ $\frac{27}{256}$

25.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f(2)$의 값은? [30점]

(가) 서로 다른 실수 a, b에 대하여 $af(a)+bf(b)>af(b)+bf(a)$이다. (나) $f(1)=1, f'(1)=0$

① 1 ② 2 ③ 3 ④ 4

3. 출제 의도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수학 문제는 정규 대학 이공계열 학과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중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서 습득해야할 개념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과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번 전형의 수학 필기고사는 다항식, 평면도형, 집합, 함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 도함수, 적분, 경우의 수, 확률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 [12수학Ⅰ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2. [12수학Ⅰ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3. [12수학Ⅰ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4.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5. [12수학Ⅱ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6. [12수학Ⅰ01-03]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있다. 7.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8.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9. [12미적02-1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 [12수학Ⅰ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1. [12미적02-09] 음함수와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 [12미적03-01]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3.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4.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5.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6.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7.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8. [10수학01-08]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9.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0.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21. [12확통01-01]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2. [12확통01-02]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3.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24.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25.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고성은	좋은책신사고	2017	
	수학 Ⅰ	황선욱	미래엔	2017	
	수학 Ⅱ	이준열	천재교육	2017	
	확률과 통계	김원경	비상교육	2019	
기타	미적분	권오남	교학사	2019	

5. 문항 해설

1.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의 크기 비교하기
2. 로그를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 구하기
3.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열의 합 구하기
4. 합성함수 미분하기
5.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 결정하기
6.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해 구하기
7.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원의 현의 길이 구하기
8. 사인함수를 치환하여 주어진 함수를 이차함수로 변환하기
9.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곡선의 접선 구하기
10. 일반항을 변형하여 수열의 합 구하기
11. 역함수의 도함수 구하기
12. 역함수를 이용하여 치환 적분하기
13. 정적분 계산하기
14.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구하기
15. 적분 구간을 나누어 정적분 구하기
16.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삼차함수 구하기
17. 사인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 구하기
18. 집합의 연산으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차방정식 결정하기
19.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차례로 적용하여 선분의 길이 구하기
20.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 구하기
21. 순열 구하기
22. 중복 조합 구하기
23.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구한다
24 확률 구하기
25.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삼차 함수가 증가함수임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삼차 함수 결정하기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번호	정답
1	4
2	4
3	1
4	3
5	3
6	2
7	2
8	1
9	1
10	2
11	4
12	2
13	3
14	4
15	2
16	1
17	2
18	3
19	2
20	2

문항번호	정답
21	2
22	2
23	1
24	3
25	2

▶ 논술(KU논술우수자)

[문항카드 4 -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사회 I]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 I / 문제 1,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양극화, 하위 존재, 약자, 도시 생태계, 리비히의 법칙, 윤리적 삶, 예의, 겸손, 존중, 고립과 단절, 이해, 공감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다람쥐나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또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의 축산 산업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이며, 이 사회에 끝없는 악운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種)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지 간에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솜씨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요.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움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 고등학교『독서』

[다]

(1)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2011년)

구분	소득 수준			
	하	중하	중상	상
미치료율(%)	21.2	20.4	17.2	15.5
경제적 이유(%)	29.9	18.2	10.5	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고등학교『통합사회』

(2)



(통계청, 2017)

- 고등학교『한국사』

[라]

※ **앞부분 줄거리** : 도시에서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한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멍이 생기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에 퍼진다. 음식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 간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말예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 보았어요. 제때 빨아 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벌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살내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 도로에서 전조등을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 와서 거기 나를 심어 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물도 잡아 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 와서 내 다리에 부어 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 아름 사 와서 갈아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 준답니다. (중략)

*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아,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지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모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 주시던 우비 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깡충깡충 뛰며 손 흔들어 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지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 오셨어요. 언젠가는 그곳의 선산 기슭에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 봐 나는 멀리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열일곱 살 때였지요.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 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바보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

내 내장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솨솨 메아리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의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 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갗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노말*인데.

쯧, 하고 입맛을 다시며 의사가 중얼거렸지요.

지금 보이는 게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휴지를 몇 장 뽑아 유액을 대충 닦아 주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 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곳저곳을 꾹꾹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 하고 대뜸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토악질*을 했어요. 지하철 구내의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 둘, 셋, 넷,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한없이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솟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푸 위액을 게워 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추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꾸어요. 내 키가 미루나무만큼 드높게 자라나는 꿈을요. 베란다 천장을 뚫고 윗집 베란다를 지나, 십오 층, 십육 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아, 그 생장점*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관 가득 맑은 물을 퍼 올리며, 온 가지를 힘껏 벌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 꿈을 꾸어요.

*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었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었는지요.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냄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더러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 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지요,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 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 쥔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 허공을 휘저어 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구어야 해요. 이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 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 하겠지요.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 명치: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 노말(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 토악질: 먹은 것을 게워 냄. 또는 그런 일.
- 생장점: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생장을 현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

- 고등학교『문학』

3. 출제 의도

2025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력, 분석력, 문학작품 감상능력과 추론적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사회(통합사회, 한국사) 교과서에서 뽑았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다른 한편으로, 독해력과 추론 능력,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상황을 연계하는 적용 능력의 수준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논술고사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문 [가]와 [나]는 [문제1]과 [문제2]의 풀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다]의 도표 자료 및 [라]의 문학 지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념과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출제에서 주안점을 둔 요소는 사회적 약자와 하위 존재다. 지문 [가]는 직접적으로 '(최)하위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다. 지문 [나]는 직접 '약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되는 타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 또는 이해와 공감이다. 요컨대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 자료를 분석하고 [라] 작품에 대해 논함에 있어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 1]의 분석 대상인 [다]의 자료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들을 나열적으로 두루 설명하는 것은 출제 의도에 맞지 않는다.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라는 조건에 비추어 [다]의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남녀의 차이나 중간층의 상황은 중요 정보가 아니며, 상하층에 따른 차이가, 특히 하위층의 처지가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은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미치료율 자료에서는 전체 수치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중요한 정보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의료 양극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기본적 주거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가], [나] 지문과의 연계 속에 이와 같은 분석을 잘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좋은 글로 갈무리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제2]에서는 [가]와 [나]를 참고하여 소설 지문에 해당하는 [라]의 인물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했다. [라]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의 한 부분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내 여자의 열매〉는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를 매우 섬세하고 심오하게 그리고 있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인데, [가]와 [나] 지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인물 간 관계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분석적 논술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가]와 [나] 지문과 연결해서 [라] 지문을 볼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약자'로 이해되는 '나'라는 인물이다. 바닷가 빈촌 출신으로서 도시로 떠나온 '나'는 삭막한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식물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품 속 '나'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묘사되며, 필요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한 채 고립과 단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고통스런 토악질을 하기도 하는 '나'는 한 명의 '환자'이다. 다른 말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심리적 약자'이다. [가]에서 말하는 '하위 존재'인 것이다.

[문제 2]를 풀이함에 있어 이러한 '나'가 주변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특히 주변 인물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에서 말하는바 윤리적 삶의 요건으로서 예의와 존중을 다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작품 속의 '나'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는 인물은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의 온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둘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이는 '나'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작품에서 춥고 외로운 환자로서 '나'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은 의사와 남편인데, 그 몫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있다. 이는 '나'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한다. 남편은 나무가 되어가는 '나'를 정성껏 돌보지만,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온기나 편안한 뿌리내림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다.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자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내와의 단절감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남편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춥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점은 남편이 자기 곁의 약자에 대해 진심의 이해와 최선의 배려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우리 사회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과 안정적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쁜 환경 속에서 심리적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 사람 등 수많은 약자가 존재한다.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관심과 배려를 오롯이 받는 가운데 건강한 공생적 발전을 이루는 일을 화두로 삼았다. 논리적 사고력과 바른 인성을 함께 갖춘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 것이 2025년도 건국대 논술의 출제 의도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td><td>문제1, 문제2</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td><td>문제1, 문제2</td></tr>
<tr><td>성취기준 3</td><td>[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문제1, 문제2</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td><td>문제1, 문제2,</td></tr>
<tr><td>성취기준 2</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2</td></tr>
</table></td></tr>
</table>

성취기준 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1,문제2
성취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6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7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문제2
성취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2
성취기준 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제2
성취기준 4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5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6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1, [대
성취기준 2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1, [대
성취기준 3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문제1, [대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문제1, [대
성취기준 2	[10한사04-07]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문제1, [대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96-97	[가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224	[나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93	[대	×
한국사	최준채 외	금성출판사	2020	299	[대	○ (도표 제목)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272-275	[라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 문제 1

[문제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가]와 [나]에 어떤 관점이 담겨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핵심 포인트는 사회적 약자와 하위 존재이다. 지문 [가]는 직접적으로 '(최)하위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한다. 지문 [나]는 직접 '약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되는 타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 또는 이해와 공감이다. 요컨대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 1]의 분석 대상인 [다]의 자료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들을 나열적으로 두루 설명하는 것은 출제 의도에 맞지 않는다.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라는 조건에 비추어 [다]의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남녀의 차이나 중간층의 상황은 중요 정보가 아니며, 상하층에 따른 차이가, 특히 하위층의 처지가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은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미치료율 자료에서는 전체 수치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중요한 정보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의료 양극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의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기본적 주거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가], [나] 지문과의 연계 속에 이와 같은 분석을 잘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좋은 글로 갈무리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번 논술고사의 [문제 1]은 개념 지문을 '참고'하도록 한 예년의 문제와 달리 '[가], [나] 지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념 지문과 자료 분석의 정합적인 논리적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다]의 도표 자체는 이해하기에 그리 어려운 대상은 아니다. (1)에서 '의료 양극화', (2)에서 '주거 양극화'를 읽어내는 식의 변별이 가능한 정도다. 이번 문제 풀이의 관건은 [다]의 여러 자료에서 지문 [가], [나]

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가려내서 거기 담긴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데 있다.

● 문제 2

[문제 2]는 개념 지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소설 지문에 해당하는 [라]의 인물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 문제 2에서 인물의 심리 대신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했고, [가]와 [나] 지문과의 연계 속에 논의 방향을 잡도록 유도했지만, 인물 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작품에 대한 정독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그치지 않고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해가 전제돼야 정확한 답안을 쓸 수 있다.

[가]와 [나] 지문과 연결해서 [라] 지문을 볼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약자'로 이해되는 '나'라는 인물이다. 바닷가 빈촌 출신으로서 도시로 떠나온 '나'는 삭막한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식물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품 속 '나'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묘사되며, 필요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한 채 고립과 단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고통스런 토악질을 하기도 하는 '나'는 한 명의 '환자'이다. 다른 말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심리적 약자'이다. [가]에서 말하는 '하위 존재'인 것이다. [문제 2]를 풀이함에 있어 이러한 '나'가 주변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특히 주변 인물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에서 말하는바 윤리적 삶의 요건으로서 예의와 존중을 다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작품 속의 '나'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는 인물은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의 온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둘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이는 '나'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런 원초적 연결성과 단절감을 잘 짚어낼 때 좋은 논술이 될 수 있다. 다만, 작품에서 '나'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아서 이를 다루기는 곤란하다. '나'가 어머니(및 어머니로 표상되는 자연)에 강한 이끌림과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적절히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소망이 좌절되고 있는 상황임을 짚어낸다면 더 좋은 독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춥고 외로운 상태로 죽어가는 환자에 해당하는 '나'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은 그녀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그녀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다.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살핌에 있어서 의사와 남편이 약자에 대한 돌봄을, [나]가 말하는 진심의 예의와 존중이라는 윤리적 태도를 오롯이 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논하는 것이 좋은 논술을 위한 요건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둘의 태도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작품을 잘 살펴보면 의사와 남편이 '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돌봄을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나'를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쓸쓸히 죽어가도록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무례함이 있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상대가 불쾌해 하는데도 몸을 꾹꾹 찌르는 행위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 숫자를 세라'는 기계적 처방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스런 토악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약자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의 태도는 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를 표상하는 요소로서,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절망감을 가중시킨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의사와 달리 '나'의 남편은 나무가 되어가는 '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으로 그려진다. 약수를 길어와서 부어주거나 새 흙을 갈아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는 얼핏 윤리적 행위로 보이고 '나' 또한 그 정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나'에 대한 진심의 이해와 충분한 배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아내에게 스웨터를 덮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며, 좁은 화분을 벗어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 아내의 소망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내가 있는 곳에서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행위 또한

아내와의 심리적 단절감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남편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추위와 외로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아내의 진정한 소망에 가 닿는 진심의 배려와 돌봄이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아내가 이토록 취약한 상태로까지 나아가기 전에 남편으로서 필요한 배려와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할 만하다. 아내가 좁고 딱딱한 화분 속에서 아프게 죽어간다는 결말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라] 작품에 그려진 '나무가 되어 가는 사람'은 얼핏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약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약자와 소수자가 많다. [라]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 [나]가 말하는바 이런 하위 존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으로 연결시켜서 논의를 갈무리할 수 있다면 좋은 논술이라고 볼 수 있다.

6. 채점 기준

● **문제 1**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 1</td><td>
<table>
<tr><th>평가 영역</th><th>평가 항목 내용</th></tr>
<tr><td rowspan="2">[가], [나] 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계</td><td>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의 성장 외에 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 존재가 건강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td></tr>
<tr><td>②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지문 [나]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가]와 달리 대상에 대한 관심과 예의라는 윤리적 태도에 주안점을 둔 글이다.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지문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대상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동물'은 인간에 대해 약자인 것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와의 연관 속에서 [다] 자료에 대한 유효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td></tr>
<tr><td>[가], [나] 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td><td>③ [가]와 [나]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지문 [가]와 [나]는 사회적 약자 내지 하위 존재가 처한 상황을 주목하며,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제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다] 자료 분석은 도표의 여러 정보 가운데 상하층의 양극화 상황과 특히 하위 존재가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계 분석이 요청된다. [다] 자료는 하위 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바, 이를 [가]에서 말하는 '최소량의 법칙'과 연결시켜야 하며, [나]와 연관하여 하위 존재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필요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td></tr>
</table>
</td><td>40점</td></tr>
</table>

[다] 자료의 주요 정보에 대한 바른 분석과 활용	④ [다]의 자료 분석에서 핵심 정보를 잘 선별해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가? [다]의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춘 선별 분석이 필요하다. (1)의 암환자 생존율과 미치료율 도표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 정보가 된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자료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문제 2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문제 2]는 [가]와 [나]의 시각을 참고하여 [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양상과 내재한 의미를 논평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tr><th>평가 영역</th><th>평가 항목 내용</th></tr>
<tr><td rowspan="2">[가]와 [나]에 대한 이해</td><td>① [가]와 [나]의 요지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의 성장 외에 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 존재가 건강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문 [나]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예의라는 윤리적 태도에 주안점을 둔 글이다.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지문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대상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동물’은 인간에 대해 약자인 것이다.</td></tr>
<tr><td>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된 의미를 잘 찾았는가?

지문 [가]와 [나]는 생태계와 사회가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약한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하위를 이루는 약한 존재들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 요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 [나]를 연결한 이와 같은 이해는 [라]에 등장하는바 단절감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나’라는 인물을 둘러싼 관계를 논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td></tr>
<tr><td rowspan="2">[라]에 나타난 인물의 처지와 인물 간 관계의 깊고 정확한 이해</td><td>③ [라]에 나타난 ‘나’의 처지와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라]의 소설에서 ‘나’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지만 도시의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가]와 [나]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해당한다. 작품에서 ‘나’가 겪는 어려움은 도시의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의사와 같은 도시인이 보이는 형식적이고 무례한 태도가 ‘나’에게 단절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함께 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이해와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나’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머니로 표상되는 따뜻한 모성이며, 아파트 베란다 화분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몸을 펼치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화분 속에 갇혀 신음하는 상태에 있다. ‘나’의 이러한 처지와 소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편과 의사 등의 주변인물들이 거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td></tr>
<tr><td>④ [가], [나]와의 연관 속에 [라]에 나타난 인물 간의 관계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였는가?</td></tr>
</table>
</td><td>60</td></tr>
</table>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이며, 그와 주요한 관계를 맺는 작품 속 인물로는 어머니와 의사, 남편을 들 수 있다. 어머니는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깊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뜻한 살냄새로 기억되는 어머니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보살펴줄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내적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다. 어머니 역할을 대체할 만한, 주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의사'는 환자로서 '나'를 치료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아픔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라]의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무례하기까지 하다. 약자에 대한 진심의 존중이 없는 이런 태도는 '나'의 아픔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남편'은 식물로 변해가는 아내에게 약수를 길어다 주고 흙도 갈아주는 등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아내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는 '나'의 아픔과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그녀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가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모습은 '나'와의 심리적 단절감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인간관계는 예외적인 존재를 둘러싼 특수한 관계로 치부할 수 없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가], [나]와 관련하여 사회의 여러 약자와 하위 존재에 대한 문제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라]에 대한 바른 독해가 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문제 1**

[가]는 하위 존재의 처지가 개선돼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나]는 동물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윤리적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무관심 속에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타자, 특히 하위 존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다]의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내지 하위 계층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에서 소득이 낮은 층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거의 30%에 달하여 상층 집단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양극화 상황에서 하위 집단이 삶의 기초 요건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2)에서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기초 수준의 주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하위 존재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인간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취약한 최소량'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사람들의 폭넓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 (573자)

● **문제 2**

[라]에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으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 식물화되고 있는 '나'가 등장한다.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가]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며,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이다. 과연 '나'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러한 배려를 받고 있을까?

'나'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어머니다. 과거의 '나'는 가난한 생활에 구속된 어머니를 벗어나 멀리 떠났지만 현재는 따뜻한 모성에 대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싶다는 데서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충족되지 못하며, 이는 '나'를 더 춥고 외롭게 만든다.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따름이다.

의사의 태도는 왜 '나'가 도시에서 소외되며 식물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얼핏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료 행위로 보이지만,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며, 무례함이 있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데도 몸을 찌르는 일,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틀에 박힌 처방을 내리는 일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나'가 지하철 구내에서 고통스런 토악질을 하는 것은 이런 엇갈린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남편의 태도다. 본래 '나'와 갈등 관계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나무로 변해가자 정성껏 그녀를 돌본다. 약수를 부어주고 흙을 갈아주는 남편의 행동은 예절을 지키는 윤리적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더 잘 소통하고 배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 땅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아내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하는 모습에서도 심리적 단절감을 보게 된다.

작품 속의 '나'는 특수한 사례로 볼 일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들을 감싸 안을 때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987자)

[문항카드 5 -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사회Ⅱ]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Ⅱ / 문제 1,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양극화, 하위 존재, 약자, 도시 생태계, 리비히의 법칙, 윤리적 삶, 예의, 겸손, 존중, 물가, 환율, 수요, 공급, 균형, 등비수열, 확률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 고등학교『독서』

[나]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다람쥐나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또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의 축산 산업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

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이며, 이 사회에 끝없는 악운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種)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지 간에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솜씨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요.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움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 고등학교『독서』

[다]

(1)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2011년)

구분	소득 수준			
	하	중하	중상	상
미치료율(%)	21.2	20.4	17.2	15.5
경제적 이유(%)	29.9	18.2	10.5	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고등학교『통합사회』

(2)



(통계청, 2017)

- 고등학교『한국사』

※ [문제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점]

[라]

서로 다른 나라 간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환 비율이 필요한데, 이때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경제』

[마]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개별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이 물가도 변동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물가 지수를 작성한다.

- 고등학교『경제』

[바]

시장 균형이란 특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경제』

[사]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다. 생산자가 상품을 팔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다.

- 고등학교『경제』

[아]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할 때, $F(b)-F(a)$를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int_a^b f(x)dx = F(b)-F(a)$$

와 같이 나타낸다.

- 고등학교『수학II』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_nC_r = \frac{{}_nP_r}{r!} = \frac{n!}{r!(n-r)!} (\text{단}, 0 \le r \le n)$$

- 고등학교『수학』

[차]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P(X=x_i)=p_i (i=1, 2, 3, ..., n)$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① $0 \le p_i \le 1$

② $p_1+p_2+p_3+...+p_n=1$

- 고등학교『확률과 통계』

[카]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P(X=x_i)=p_i (i=1, 2, 3, ..., n)$일 때, 기댓값(평균)은 다음과 같다.

$$E(X) = x_1p_1+x_2p_2+x_3p_3+...+x_np_n$$

- 고등학교『확률과 통계』

[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 여사건의 확률을 q라고 하면, 이 시행을 n회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① $r=0$일 때 q^n

② $1 \le r \le n-1$일 때, ${}_nC_r p^r q^{n-r}$

③ $r = n$일 때, p^n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파]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_n에서 제 n항에 공비 r를 곱하면 제 $(n+1)$항이 되므로

$$a_{n+1} = ra_n \ (n = 1, 2, 3, \ldots)$$

이 성립한다.

- 고등학교 『수학 I』

※ [문제 2-1]: [라], [마]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치즈만 상품으로 거래되는 가상의 경제를 가정하자. 그곳은 치즈를 제외한 모든 용품들을 집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며 그 외에는 우리의 세상과 동일하다. 갑국에서 치즈의 가격은 1995년 1kg당 5천 원이었고 2025년에는 8천 원으로 증가했으며, 을국에서는 1995년 1kg당 4파운드였고 2025년에는 10파운드로 증가했다. 축구선수 건우는 갑국에서 1995년 프로 축구선수로 데뷔했으며 그때의 연봉은 2천만 원이었다. 30년이 지난 뒤 건우의 자녀 건호는 을국에서 2025년 프로 축구선수가 되었고 그의 연봉은 10만 파운드이다. 환율은 1995년에 1,200원/파운드이며 2025년은 1,600원/파운드이다. (여기서 갑국의 화폐 단위는 원이고, 을국의 화폐 단위는 파운드이다.)

(1) 건우의 연봉을 치즈 가격을 이용하여 2025년도 원화 가치로 환산하시오. [5점]

(2) 건호의 연봉을 치즈 가격을 이용하여 1995년도 파운드화 가치로 환산한 뒤, 1995년 환율을 통해 원화로 계산하여 1995년 건우 연봉의 몇 배인지 계산하시오. [10점]

※ [문제 2-2]: [바], [사], [아]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다음은 어느 한 재화에 대한 공급 곡선의 함수이다. 이 식에서 $Q(\geq 0)$는 재화의 공급량, $P(\geq 0)$는 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P(Q) = Q^2 + 2Q$$

다음은 이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의 함수이다. 이 식에서 $Q(\geq 0)$는 재화의 수요량, $P(\geq 0)$는 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P(Q) = 10 - Q$$

(1)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그래프를 한 평면에 그리고, 재화의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단, 그래프의 수직축은 P로, 수평축은 Q로 두는 PQ평면을 이용하시오.) [10점]

(2) 위에서 도출된 재화의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이용하여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하시오. [10점]

※ [문제 2-3]: [자], [차], [카], [타], [파]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증권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 K씨는 투자 집행이 가능한 100만 원을 금융상품 A 또는 B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A의 특징은 모든 시점에 대해 가격의 상승 및 하락 확률이 0.5로 고정되어 있고, 각 시점에서 가격 상승 시 가격이 2배로, 가격 하락 시 가격이 $\frac{1}{2}$ 배로 변화하는 것이다.

㉠ 시점 $a_n = n\,(n = 0, 1, 2, \ldots)$

㉡ 시점 a_n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 b_n이 상승 및 하락할 확률은 각각 0.5이다.

㉢ 시점 a_0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은 100만 원이며, 시점 a_{n+1}에서 A의 가격 b_{n+1}은 시점 a_n에서의 가격 b_n과 다음의 관계가 있다.

$$b_0 = 100,\ b_{n+1} = \begin{cases} 2b_n & (\text{가격 상승 시}) \\ \frac{1}{2}b_n & (\text{가격 하락 시}) \end{cases}$$

직원 K씨는 시점 a_0에 금융상품 A를 100만 원어치 구입하였고 시점 a_0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판매하는 즉시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거래가 집행되며, 거래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거래 차익은 상품의 판매 시점의 판매금액에서 구매 시점의 구매금액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상품 가격의 단위는 만 원이다.

(1)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b_4 = 400$)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5점]

(2) 시점 a_4에서 최초로 금융상품 A를 전부 판매할 때, 거래 차익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정답은 천 원 이하를 버림하여 만 원 단위로 쓰시오.) [10점]

(3) 금융상품 B는 금융상품 A와 마찬가지로 각 시점에서 가격 상승 시 가격이 2배로, 가격 하락 시 가격이 $\frac{1}{2}$ 배로 변화하는 상품이다. 금융상품 B의 가격 또한 일정한 확률로 상승 또는 하락만을 반복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각 시점 a_n에서 금융상품 B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점 a_0에 금융상품 B를 100만 원어치 구입하여 a_2에서 최초로 전부 판매할 때 거래 차익의 기댓값은 0원이었다. 금융상품 B의 가격 상승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 정답이 소수가 나오면 기약 분수 형태로 바꿔서 쓰시오.) [10점]

3. 출제 의도

2025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과 수리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였다.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와 사회, 수학 교과서에서 뽑았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좋은 답을 쓸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다른 한편으로, 독해력과 추론 능력, 수리 능력의 수준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논술고사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문제 1]은 지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도표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와 [나]의 주안점을 찾는 것이 문제 풀이의 요건이 된다. 출제에서 주안점을 둔 요소는 사회적 약자와 하위 존재다. 지문 [가]는 직접적으로 '(최)하위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다. [나]는 직접 '약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되는 타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 또는 이해와 공감이다. 그것을 함께 사는 삶의 요건으로 인식한다. 요컨대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 1]의 분석 대상인 [다]의 자료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들을 나열적으로 두루 설명하는 것은 출제 의도에 맞지 않는다.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라는 조건에 비추어 [다]의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남녀의 차이나 중간층의 상황은 중요 정보가 아니며, 상하층에 따른 차이가, 특히 하위층의 처지가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은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미치료율 자료에서는 전체 수치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중요한 정보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의료 양극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기본적 주거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가], [나] 지문과의 연계 속에 이와 같은 분석을 잘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좋은 글로 갈무리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제 2]는 현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간단한 수리적 이해와 경제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리 논술로 출제하였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분석과 해결에 대한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1]은 어려운 수식 없이도 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리적 논리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칙연산을 통해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리고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도출하는 문제로서,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3]에서는 이산확률변수, 독립시행의 확률의 개념, 자산 가격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제 금융 투자 활동에서 적용되는 기댓값 및 확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 8】“수학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문제1</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2</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4</td><td>[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5</td><td>[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6</td><td>[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1</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1, [다]
성취기준 2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1, [다]
성취기준 3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문제1, [다]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문제1, [다]
성취기준 2	[10한사04-07]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문제1, [다]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문제 2-2
성취기준 2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문제 2-2
성취기준 3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 2-1
성취기준 4	[12경제04-02]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 및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문제 2-1
성취기준 5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문제 2-3

3.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관련
성취기준 1	[2수학01-10] 곱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문제 2-1
성취기준 2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제 2-2
성취기준 3	[10수학01-04]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문제 2-3
성취기준 4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3

과목명: 수학 I		관련
성취기준 1	[12수학I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3
성취기준 2	[12수학I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문제 2-3

과목명: 수학 II		관련
성취기준 1	[12수학II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문제 2-2
성취기준 2	[12수학II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2

과목명: 확률과 통계		관련
성취기준 1	[12확통02-01]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문제 2-3
성취기준 2	[12확통02-04]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2-3
성취기준 3	[12확통02-06]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 2-3
성취기준 4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3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96-97	[가]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224	[나]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93	[다]	×
한국사	최준채 외	금성출판사	2020	299	[다]	○ (도표 제목)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4	148	[라]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4	113	[마]	×
경제	김진영 외	Mirae N	2024	57	[바]	×
경제	김진영 외	Mirae N	2024	61-62	[사]	○
수학 II	권오남 외	교학사	2021	130	[아]	×
수학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4	270	[자]	×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20	95	[차]	×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20	100	[카]	×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20	81	[타]	×
수학 I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123	[파]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 **문제 1**

[문제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가]와 [나]에 어떤 관점이 담겨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핵심 포인트는 사회적 약자

와 하위 존재이다. 지문 [가]는 직접적으로 '(최)하위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한다. 지문 [나]는 직접 '약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되는 타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 또는 이해와 공감이다. 요컨대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 1]의 분석 대상인 [다]의 자료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들을 나열적으로 두루 설명하는 것은 출제 의도에 맞지 않는다.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라는 조건에 비추어 [다]의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남녀의 차이나 중간층의 상황은 중요 정보가 아니며, 상하층에 따른 차이가, 특히 하위층의 처지가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은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미치료율 자료에서는 전체 수치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중요한 정보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의료 양극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기본적 주거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가], [나] 지문과의 연계 속에 이와 같은 분석을 잘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좋은 글로 갈무리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번 논술고사의 [문제 1]은 개념 지문을 '참고'하도록 한 예년의 문제와 달리 '[가], [나] 지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념 지문과 자료 분석의 정합적인 논리적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다]의 도표 자체는 이해하기에 그리 어려운 대상은 아니다. (1)에서 '의료 양극화', (2)에서 '주거 양극화'를 읽어내는 식의 변별이 가능한 정도다. 이번 문제 풀이의 관건은 [다]의 여러 자료에서 지문 [가], [나]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잘 가려내서 거기 담긴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데 있다. 이를 변별 요소로 삼아서 답안을 세심히 살피는 가운데 좋은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

● 문제 2

[문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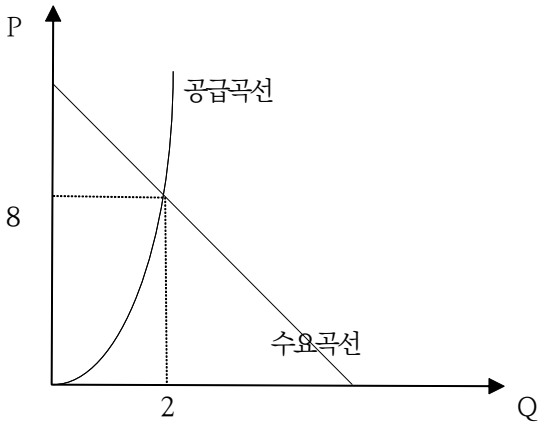
(1) 건우의 연봉 2천만 원을 치즈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건우는 치즈 $\frac{2천만원}{5천원} = 4{,}000kg$을 구매할 수 있다. 건우의 실질 연봉인 $4{,}000kg$의 치즈에 2025년 치즈 가격을 곱하면 2025년 원화가치로 환산한 건우의 연봉을 구할 수있다. 이에 따라 건우의 연봉은 $4{,}000 \times 8천\ 원 = 3천2백만\ 원$ 이 나온다.

(2) 건호의 연봉 10만파운드를 치즈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치즈 $\frac{10만파운드}{10파운드} = 10{,}000kg$을 구매할 수 있다. $10{,}000kg$의 치즈에 1995년 치즈 가격을 곱하면 $10{,}000 \times 4파운드 = 4만파운드$가 나온다. 여기에 환율을 이용하면

4만 파운드 × 1,200 = 4천8백만원이다. 따라서 건호의 연봉은 건우의 연봉보다 $\frac{4천8백만원}{2천만원} = 2.4$배 더 크다.

[문제 2-2]

(1) 이차함수 $P(Q) = Q^2 + 2Q$와 일차함수 $P(Q) = 10 - Q$와의 교점을 구하면 $Q = 2$, $P = 8$이므로 균형 거래량은 2, 균형 가격은 8이다.



(2) (1)에서 구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int_0^2 (10 - Q)dQ - 16 = \left[10Q - \frac{1}{2}Q^2\right]_0^2 - 16 = 18 - 16 = 2$ 이고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16 - \int_0^2 (Q^2 + 2Q)dQ = 16 - \left[\frac{1}{3}Q^3 + Q^2\right]_0^2 = 16 - \frac{20}{3} = \frac{28}{3}$이다.

[문제 2-3]

(1)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하락이 1번, 가격의 상승이 3번이 되어야 하므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 확률을 구하면 ${}_4C_3\left(\frac{1}{2}\right)^3\left(\frac{1}{2}\right) = {}_4C_1\left(\frac{1}{2}\right)\left(\frac{1}{2}\right)^3 = \frac{1}{4}$이다.

(2)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을 확률변수 X(만원)이라 하고 확률을 구하면

$$P\left(X = \frac{25}{4}\right) = {}_4C_0\left(\frac{1}{2}\right)^0\left(\frac{1}{2}\right)^4 = \frac{1}{16}$$

$$P(X = 25) = {}_4C_1\left(\frac{1}{2}\right)^1\left(\frac{1}{2}\right)^3 = \frac{1}{4}$$

$$P(X=100)={}_4C_2\left(\frac{1}{2}\right)^2\left(\frac{1}{2}\right)^2=\frac{3}{8}$$

$$P(X=400)={}_4C_3\left(\frac{1}{2}\right)^3\left(\frac{1}{2}\right)^1=\frac{1}{4}$$

$$P(X=1600)={}_4C_4\left(\frac{1}{2}\right)^4\left(\frac{1}{2}\right)^0=\frac{1}{16}$$

이고,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X	$\frac{25}{4}$	25	100	400	1600	계
P	$\frac{1}{16}$	$\frac{1}{4}$	$\frac{3}{8}$	$\frac{1}{4}$	$\frac{1}{16}$	1

이다.

거래 차익을 확률변수 Y(만원)이라고 하면 $Y=X-100$이므로

거래 차익의 기댓값 $E(Y)=E(X-100)=E(X)-100$이다.

따라서 위의 표를 이용하여 $E(X)$를 구하면

$$E(X)=\frac{1}{16}\left(\frac{25}{4}+100+600+1600+1600\right)=\frac{15620}{64}\approx 244$$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144(만원)이다.

(3) 시점 a_2에서 금융상품 B의 가격을 확률변수 X(만원), 가격 상승의 확률을 p라하고 확률을 구하면

$$P(X=25)={}_2C_0p^0(1-p)^2$$

$$P(X=100)={}_2C_1p(1-p)$$

$$P(X=400)={}_2C_2p^2(1-p)^0$$

이고,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X	25	100	400	계
P	${}_2C_0p^0(1-p)^2$	${}_2C_1p(1-p)$	${}_2C_2p^2(1-p)^0$	1

이다.

거래 차익을 확률변수 Y(만원)이라고 하면 $Y=X-100$이므로

거래 차익의 기댓값 $E(Y)=E(X-100)=E(X)-100$이고

이때, 조건에 의해 $E(X)-100=0$에서 $E(X)=100$이다.

따라서 위의 표를 이용하여 $E(X)$를 구하면

$E(X)=25(1-p)^2+200p(1-p)+400p^2=100$에서

$3p^2+2p-1=(3p-1)(p+1)=0$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확률은 $\frac{1}{3}$이다.

6. 채점 기준

● 문제 1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 1</td><td>
<table>
<tr><th>평가 영역</th><th>평가 항목 내용</th></tr>
<tr><td rowspan="2">[가], [나] 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계</td><td>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의 성장 외에 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 존재가 건강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td></tr>
<tr><td>②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지문 [나]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가]와 달리 대상에 대한 관심과 예의라는 윤리적 태도에 주안점을 둔 글이다.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지문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대상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동물’은 인간에 대해 약자인 것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와의 연관 속에서 [다] 자료에 대한 유효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td></tr>
<tr><td>[가], [나] 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td><td>③ [가]와 [나]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지문 [가]와 [나]는 사회적 약자 내지 하위 존재가 처한 상황을 주목하며,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제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다] 자료 분석은 도표의 여러 정보 가운데 상하층의 양극화 상황과 특히 하위 존재가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계 분석이 요청된다. [다] 자료는 하위 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바, 이를 [가]에서 말하는 ‘최소량의 법칙’과 연결시켜야 하며, [나]와 연관하여 하위 존재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필요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td></tr>
<tr><td>[다] 자료의 주요 정보에 대한 바른 분석과 활용</td><td>④ [다]의 자료 분석에서 핵심 정보를 잘 선별해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가?

[다]의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 별 차이와 남녀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춘 선별 분석이 필요하다. (1)의 암환자 생존율과 미치료율 도표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중</td></tr>
</table>
</td><td>40</td></tr>
</table>

	요 정보가 된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자료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문제 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문제 2-1-(1) (5점)**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최종 답을 정확하게 구함. (5점) A: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1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4점) B: 아무런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만을 맞춤. (3점) C: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2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2점) D: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3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1점) F: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점) **문제 2-1-(2) (10점)**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최종 답을 정확하게 구함. (10점) A: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1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8점) B: 아무런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만을 맞춤. (6점) C: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2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5점) D: 논리에 오류가 없지만 간단한 계산 실수가 3개 있어서 최종 답을 틀리게 계산함. (4점) F: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점)	15

	<table><tr><th>2-1번 합산 점수</th><th>환산 등급</th></tr><tr><td>14 ~ 15</td><td>A+</td></tr><tr><td>12 ~ 13</td><td>A</td></tr><tr><td>10 ~ 11</td><td>B+</td></tr><tr><td>7 ~ 9</td><td>B</td></tr><tr><td>5 ~ 6</td><td>C</td></tr><tr><td>1 ~ 4</td><td>D</td></tr><tr><td>0</td><td>F</td></tr></table>	
2-2	**문제 2-2-(1) (10점)** A+: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P(y축)-Q(x축)평면에 정확하게 그리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정확하게 도출함 (10점) A: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그래프에 사소한 실수(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표시 누락 등)가 있으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정확하게 도출한 경우; 혹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정확하게 그렸으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 과정에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 (8점) B+: 공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정확하게 그렸으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에 실패함; 혹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그리는데 실패했으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정확하게 도출함 (5점) B: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실패했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혹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그래프에 사소한 실수가 있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에 실패함 (3점) C: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실패했고,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을 시도했으나 의미있는 수식 전개가 없음 (2점) D: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실패했고,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 도출의 시도도 못함 (1점) F: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못함 (0점) **문제 2-2-(2) (10점)** A+: 2-2-(1)에서 구한 정답을 활용하여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정확히 계산함 (10점) A: 2-2-(1)에서 구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오답이기는 하나, 그 오답에 근거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정확히 계산함; 혹은 2-2-(1)에서 구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답이기는 하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도출에 사소한 실수가 있음 (8점) B+: 2-2-(1)에서 구한 답이 정답인 것과 관계없이, 2-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풀이를 시도했으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도출 과정 둘 중 하나에 중대한 실수가 존재 (5점) B: 2-2-(1)에서 구한 답이 정답인 것과 관계없이, 2-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풀이를 시도했으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도출 과정 모두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 (3점) C: 2-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지 않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도출을 시도 했으나 그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 (2점) D: 2-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지 않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도출을 시도 했으나 의미있는 수식 전개가 없음 (1점) F: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못함 (0점)	20

	<table><tr><th>2-2번 합산 점수</th><th>환산 등급</th></tr><tr><td>18 ~ 20</td><td>A+</td></tr><tr><td>13 ~ 17</td><td>A</td></tr><tr><td>8 ~ 12</td><td>B+</td></tr><tr><td>4 ~ 7</td><td>B</td></tr><tr><td>2 ~ 3</td><td>C</td></tr><tr><td>1</td><td>D</td></tr><tr><td>0</td><td>F</td></tr></table>	
2-3	**문제 2-3-1 (5점)** A+: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이 될 조건(즉, 3번의 가격 상승과 1번의 가격 하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한 계산 식을 제시하며 정확한 정답을 구함. (5점) A: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이 될 조건(즉, 3번의 가격 상승과 1번의 가격 하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하거나 임의로 경우의 수를 제시하여 정확한 정답을 구함. (4점) B+: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이 될 조건(즉, 3번의 가격 상승과 1번의 가격 하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한 계산 식을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함. (3점) B: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이 될 조건(즉, 3번의 가격 상승과 1번의 가격 하락)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한 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답을 구하지 못함. 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정답만을 정확하게 작성함. (2점) C: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 원이 될 조건(즉, 3번의 가격 상승과 1번의 가격 하락)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또는 가격과 상관 없이 발생 확률만을 정확하게 작성함 (1점) D: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였으나 의미있는 전개가 없음. (0점) F: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못함. (0점) **문제 2-3-2 (10점)** A+: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통해 정확한 정답을 구함. (10점) A: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명확하게 사용하였으나 정확한 정답을 구하지 못함. (8점) B+: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답을 구하지 못함. (6점) B: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정답만을 정확하게 작성함. (4점) C: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3개 이상 제시함. 또는 가격과 상관 없이 발생 확률만을 정확하게 작성함. (2점) D: 시점 a_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A의 모든 가격을 2개 이하로 제시함. (1점) F: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였으나 의미있는 전개가 없거나,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못함. (0점) **문제 2-3-3 (10점)** A+: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 상승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며,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통해 정확한 방정식을 제시하고 전개 및 인수분해를 통해 정확한 가격 상승확률을 구함. 또는 각	25

시점의 거래차익 기댓값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통해 정확한 가격 상승확률을 구함. (10점)

A: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 상승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며,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통해 정확한 방정식을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가격 상승확률을 구하지 못함. (8점)

B+: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 가격 상승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정리를 적용하지 않음. (6점)

B: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발생 가능 가격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분포에 의거 가격 상승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정답만을 정확하게 작성함. (4점)

C: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2개 이상 제시함. (1점)

D: 시점 a_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상품 B의 모든 가격을 1개 이하로 제시하거나, 과정의 노력이 전혀 문제풀이 과정과 관계없이 전개되고 결과도 제대로 도출되지 않음 (0점)

E: 각 과정의 노력이 없고 결과도 제대로 도출되지 않음. (0점)

2-3번 합산 점수	환산 등급
21 ~ 25	A+
16 ~ 20	A
11 ~ 15	B+
6 ~ 10	B
2 ~ 5	C
1	D
0	F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문제 1

[가]는 하위 존재의 처지가 개선돼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나]는 동물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윤리적 삶의 필수요소라고 말한다. 무관심 속에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타자, 특히 하위 존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다]의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내지 하위 계층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에서 소득이 낮은 층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거의 30%에 달하여 상층 집단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양극화 상황에서 하위 집단이 삶의 기초 요건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2)에서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기초 수준의 주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하위 존재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인간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취약한 최소량'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사람들의 폭넓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 (573자)

●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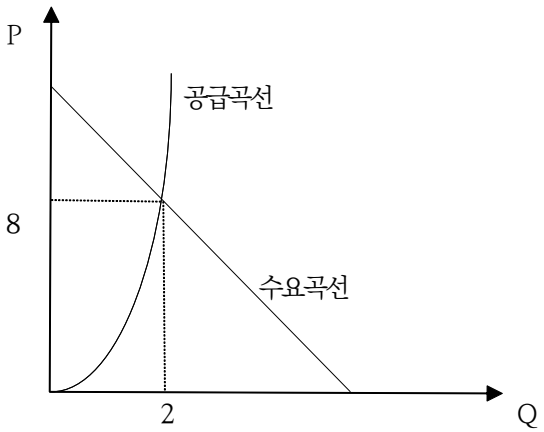
[문제 2-1]

(1) 건우의 연봉 2천만 원을 치즈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건우는 치즈 $\frac{2천만원}{5천원} = 4{,}000kg$을 구매할 수 있다. 건우의 실질 연봉인 $4{,}000kg$의 치즈에 2025년 치즈 가격을 곱하면 2025년 원화가치로 환산한 건우의 연봉을 구할 수있다. 이에 따라 건우의 연봉은 $4{,}000 \times 8천원 = 3천2백만원$ 이 나온다.

(2) 건호의 연봉 10만파운드를 치즈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치즈 $\frac{10만파운드}{10파운드} = 10{,}000kg$을 구매할 수 있다. $10{,}000kg$의 치즈에 1995년 치즈 가격을 곱하면 $10{,}000 \times 4파운드 = 4만파운드$가 나온다. 여기에 환율을 이용하면 $4만파운드 \times 1{,}200 = 4천8백만원$이다. 따라서 건호의 연봉은 건우의 연봉보다 $\frac{4천8백만원}{2천만원} = 2.4배$ 더 크다.

[문제 2-2]

(1) 이차함수 $P(Q) = Q^2 + 2Q$와 일차함수 $P(Q) = 10 - Q$와의 교점을 구하면 $Q = 2$, $P = 8$이므로 균형 거래량은 2, 균형 가격은 8이다.



(2) (1)에서 구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int_0^2 (10-Q)dQ-16=\left[10Q-\frac{1}{2}Q^2\right]_0^2-16=18-16=2$ 이고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16-\int_0^2 (Q^2+2Q)dQ=16-\left[\frac{1}{3}Q^3+Q^2\right]_0^2=16-\frac{20}{3}=\frac{28}{3}$ 이다.

[문제 2-3]

(1)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이 4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하락이 1번, 가격의 상승이 3번이 되어야 하므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 확률을 구하면 ${}_4C_3\left(\frac{1}{2}\right)^3\left(\frac{1}{2}\right)={}_4C_1\left(\frac{1}{2}\right)\left(\frac{1}{2}\right)^3=\frac{1}{4}$ 이다.

(2) 시점 a_4에서 금융상품 A의 가격을 확률변수 X(만원)이라 하고 확률을 구하면

$$P\left(X=\frac{25}{4}\right)={}_4C_0\left(\frac{1}{2}\right)^0\left(\frac{1}{2}\right)^4=\frac{1}{16}$$

$$P(X=25)={}_4C_1\left(\frac{1}{2}\right)^1\left(\frac{1}{2}\right)^3=\frac{1}{4}$$

$$P(X=100)={}_4C_2\left(\frac{1}{2}\right)^2\left(\frac{1}{2}\right)^2=\frac{3}{8}$$

$$P(X=400)={}_4C_3\left(\frac{1}{2}\right)^3\left(\frac{1}{2}\right)^1=\frac{1}{4}$$

$$P(X=1600)={}_4C_4\left(\frac{1}{2}\right)^4\left(\frac{1}{2}\right)^0=\frac{1}{16}$$

이고,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X	$\frac{25}{4}$	25	100	400	1600	계
P	$\frac{1}{16}$	$\frac{1}{4}$	$\frac{3}{8}$	$\frac{1}{4}$	$\frac{1}{16}$	1

이다.

거래 차익을 확률변수 Y(만원)이라고 하면 $Y=X-100$이므로

거래 차익의 기댓값 $E(Y)=E(X-100)=E(X)-100$이다.

따라서 위의 표를 이용하여 $E(X)$를 구하면

$E(X)=\frac{1}{16}\left(\frac{25}{4}+100+600+1600+1600\right)=\frac{15620}{64}\approx 244$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144(만원)이다.

(3) 시점 a_2에서 금융상품 B의 가격을 확률변수 X(만원), 가격 상승의 확률을 p라하고 확률을 구하면

$P(X=25)={}_2C_0\,p^0(1-p)^2$

$P(X=100)={}_2C_1\,p(1-p)$

$P(X=400)={}_2C_2\,p^2(1-p)^0$

이고,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X	25	100	400	계
P	${}_2C_0\,p^0(1-p)^2$	${}_2C_1\,p(1-p)$	${}_2C_2\,p^2(1-p)^0$	1

이다.

거래 차익을 확률변수 Y(만원)이라고 하면 $Y=X-100$이므로

거래 차익의 기댓값 $E(Y)=E(X-100)=E(X)-100$이고

이때, 조건에 의해 $E(X)-100=0$에서 $E(X)=100$이다.

따라서 위의 표를 이용하여 $E(X)$를 구하면

$E(X)=25(1-p)^2+200p(1-p)+400p^2=100$에서

$3p^2+2p-1=(3p-1)(p+1)=0$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확률은 $\frac{1}{3}$이다.

[문항카드 6 - 논술(KU논술우수자)_자연]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 / 문제 1, 2, 3, 4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 적분, 곡선 사이의 넓이, 삼각함수, 코사인법칙, 이면각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제시문 1

(가) 두 각 α, β의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alpha+\beta$, $\alpha-\beta$의 코사인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라고 한다.

$$\cos(\alpha+\beta)=\cos\alpha\cos\beta-\sin\alpha\sin\beta$$

$$\cos(\alpha-\beta)=\cos\alpha\cos\beta+\sin\alpha\sin\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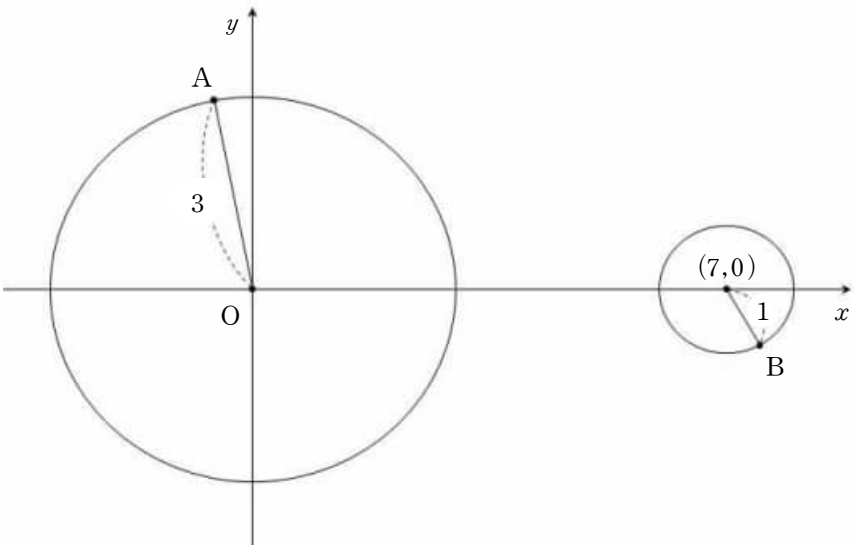
(나) 좌표평면 위에서 점 A는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이 3인 원 C를 따라 움직이고, 점 B는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따라 움직인다. 점 A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x=3\cos t,\ y=3\sin t$$

이고, 점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x=7+\cos 3t,\ y=\sin 3t$$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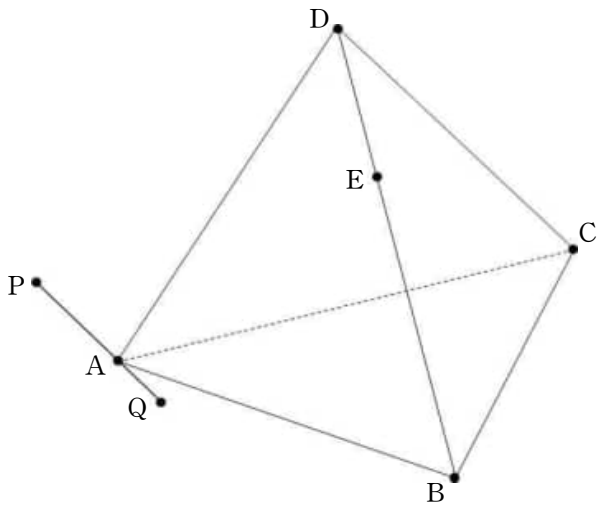
[문제 1] (20점)

(나)에서 $t=0$ 부터 $t=2\pi$ 까지 점 A와 B가 움직이는 동안 선분 AB와 원 C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t의 범위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2

(가) 두 반평면 α, β의 교선을 l이라고 할 때, 두 반평면 α, β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또 직선 l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 α, β를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직선 l 위의 한 점 O를 지나고 l에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두 반평면 α, β 위에 각각 그을 때, $\angle$AO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면각 중에서 그 크기가 크지 않은 쪽의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나) 그림에서 사면체 ABCD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이고, 점 E는 모서리 BD
위에 있는 점으로 $\overline{DE} = 2$이다.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선분 PQ는 평면 ABC 위에 있으며
점 A를 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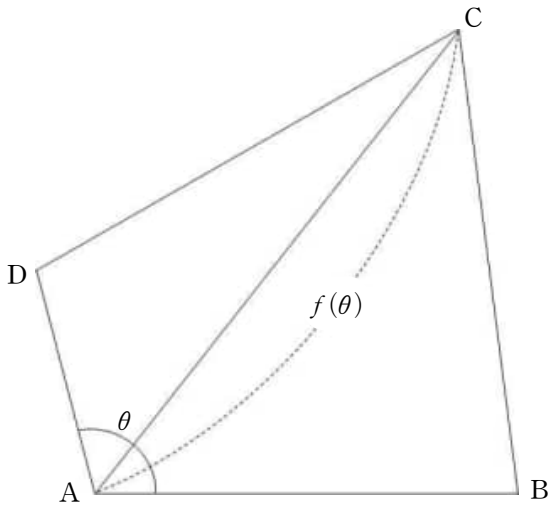
[문제 2] (23점)
(나)에서 사면체 DEPQ의 부피가 최대일 때, 평면 EPQ와 평면 A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라 하자. $\cos\theta$의 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3

(가) 미분가능한 두 함수 $y = f(u)$, $u = g(x)$에 대하여 합성함수 $y = f(g(x))$의 도함수는

$$\frac{dy}{dx} = \frac{dy}{du} \times \frac{du}{dx} \quad \text{또는} \quad \{f(g(x))\}' = f'(g(x))g'(x)$$

(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의 각 변의 길이가 각각
$\overline{AB} = \sqrt{3}$, $\overline{BC} = 2$, $\overline{CD} = 2$, $\overline{DA} = 1$이다. $\angle BAD$의 크기가 θ일 때
대각선 AC의 길이는 θ의 함수 $f(\theta)$이다.



[문제 3] (27점)

(나)에서 미분계수 $f'\left(\frac{\pi}{2}\right)$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4

(가)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 \geq 0$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_a^b f(x)dx$$

(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좌표평면 위에 곡선 $y=x^2\ (x \geq 0)$과 점 $\mathrm{P}(0,10)$이 있다.
점 A와 B는 곡선 위에 있고 $\angle \mathrm{OPA}=\thet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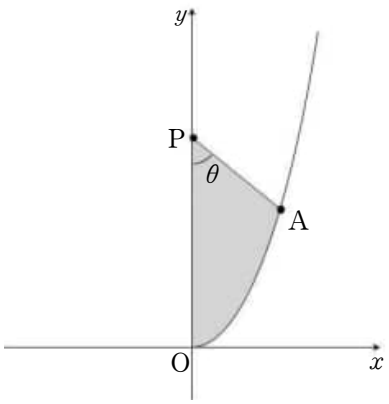
[그림 1]에서 곡선과 선분 OP, 선분 P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f(\theta)$이다.

(단, O는 원점이고 $0<\theta<\pi$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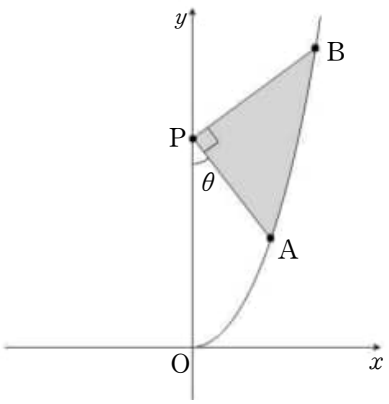
[그림 2]에서 $\angle \mathrm{APB}=\frac{\pi}{2}$이고 곡선과 선분 PA, 선분 P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g(\theta)$이다.

$0<\theta<\frac{\pi}{2}$ 일 때, 두 함수 $f(\theta)$와 $g(\theta)$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g(\theta)=f\left(\theta+\frac{\pi}{2}\right)-f(\theta)$$



[그림 1]



[그림 2]

[문제 4] (30점)

(1) (나)에서 점 A의 x좌표가 t일 때, $f'(\theta)$를 t의 식으로 표현하시오.

(2) (나)에서 $g'(\theta)=0$일 때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a, b라 하자.

이때 a^2+b^2, ab, $g(\theta)$의 값을 모두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3. 출제 의도

[문제1]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 이면각과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3] 삼각함수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각의 변화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4]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삼각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제 1	수학I - (2) 삼각함수 [1] 삼각함수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 - (2) 미분법 [1]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문제 2	기하 -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1] 공간도형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기하03-03]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	미적분-(2) 미분법 [1]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2) 미분법 [2]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문제 4	수학1 - (2) 삼각함수 [1] 삼각함수 [12수학 I 02-02]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 - (2) 미분법 [1]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 - (2) 미분법 [2]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 - (3) 적분법 [2] 정적분의 활용 [12미적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62
	미적분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0	89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0	139
	기하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113
기타					

5. 문항 해설

[문제1]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삼각함수 및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 이면각과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3]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의 변화에 대한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4]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삼각함수 미분 및 합성함수 미분을 활용하여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B+: $\cos t = u$라 두고 풀어 부등식 $u < \frac{1}{2}$ 또는 접하는 경우의 방정식 $u = \frac{1}{2}$을 얻음. B: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부등식 $2\cos^2 t + 7\cos t - 1 < 3$ 또는 방정식 $2\cos^2 t + 7\cos t - 1 = 3$ 을 얻음. C: 문제의 풀이를 위해 부등식 $\overline{AB}^2 + 3^2 > \overline{OB}^2$또는 방정식 $\overline{AB}^2 + 3^2 = \overline{OB}^2$을 t에 대한 식으로 적음.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0점
2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 때 최대임을 적고 $\overline{\mathrm{EG}}$와 $\overline{\mathrm{FG}}$를 구함 B+: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 때 최대임을 적고, $\overline{\mathrm{EG}}$ 또는 $\overline{\mathrm{FG}}$를 구함 B: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 때 최대임을 적음, C: $\overline{\mathrm{EG}}$ 또는 $\overline{\mathrm{FG}}$를 구함.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3점
3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angle ABC$를 ϕ라고 하고 $\phi'(\frac{\pi}{2}) = -\frac{1}{2}$을 구한 경우 B+: 식 (1)과 함께 (2)를 구한 경우 B: 식 (1)을 구한 경우 C: $\theta = \frac{\pi}{2}$일 때 각 변의 길이와 각을 구한 경우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7점
4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a와 b에 대한 관계식 (*)와 (**)를 모두 구함. B+: a와 b에 대한 관계식 (*)와 (**) 중 하나를 구함. C: 문제 (1)의 답이 맞음. $(f'(\theta) = \frac{dt}{d\theta} = \frac{(10 - t^2)^2 + t^2}{2})$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30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제 1] **(답)** $\frac{\pi}{3} < t < \frac{5\pi}{3}$

(풀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OAB가 예각이 되어야 하므로

$$\overline{\mathrm{AB}}^{\,2} + 3^2 > \overline{\mathrm{OB}}^{\,2}$$

에 해당한다. 이 식에 좌표를 대입하여 쓰면

$$\{3\cos t - (7+\cos 3t)\}^2 + (3\sin t - \sin 3t)^2 + 9 > (7+\cos 3t)^2 + (\sin 3t)^2$$

이 식을 정리하면, $7\cos t + \cos t\cos 3t + \sin t \sin 3t < 3$ 이고, 이 부등식의 좌변은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7\cos t + \cos 2t$와 같으며,

$$\cos 2t = \cos(t+t) = \cos^2 t - \sin^2 t = 2\cos^2 t - 1$$

이므로 $7\cos t + \cos 2t = 2\cos^2 t + 7\cos t - 1$ 이다.

부등식 $2\cos^2 t + 7\cos t - 1 < 3$으로부터 $(2\cos t - 1)(\cos t + 4) < 0$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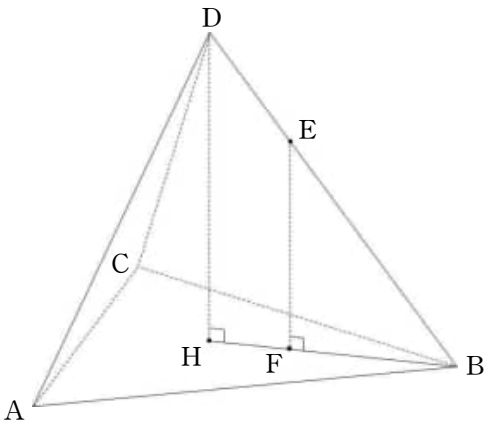
따라서 $\cos t < \frac{1}{2}$이고, t의 범위는 $\frac{\pi}{3} < t < \frac{5\pi}{3}$이다.

[문제 2] **(답)** $\frac{\sqrt{15}}{5}$

(풀이) 삼각형 PDE의 넓이는 삼각형 PDB의 넓이의 $\frac{1}{3}$이므로

사면체 DEPQ의 부피는 사면체 BDPQ의 부피의 $\frac{1}{3}$이다.

따라서 사면체 DEPQ의 부피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사면체 BDPQ의 부피가 최대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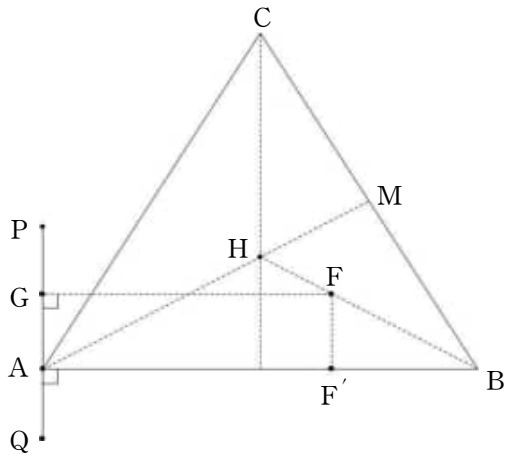
점 D에서 평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점 H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사면체 BDPQ의 부피는 $\frac{1}{3}$ ×(삼각형 BPQ의 넓이) × $\overline{\mathrm{DH}}$이므로

삼각형 BPQ의 넓이가 최대이어야 한다.

이때는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 때이다.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이라고 하자. 점 E에서
평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F, 점 F에서
직선 PQ에 내린 수선의 발을 G라 하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직선 EG와 직선 PQ는 수직으로 만난다.

직각삼각형 EFG에서 θ는 각 EGF의 크기와 같으므로 $\cos\theta = \frac{\overline{FG}}{\overline{EG}}$이다.

$\overline{FG}$를 구하자. 점 F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F′이라 하면 $\overline{FG} = \overline{AF'} = \overline{AB} - \overline{BF'} = 6 - 3 \times \frac{2}{3} = 4$이다.

$\overline{DH}$와 $\overline{EF}$를 구하자. 삼각형 AHD는 직각삼각형이고 $\overline{AD} = 6$이다,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AM은

점 H를 지나고 $\overline{AH} = \frac{2}{3} \times \overline{AM} = \frac{2}{3} \times 3\sqrt{3} = 2\sqrt{3}$ 이다.

따라서 $\overline{DH} = \sqrt{\overline{AD}^2 - \overline{AH}^2} = \sqrt{36-12} = \sqrt{24} = 2\sqrt{6}$ 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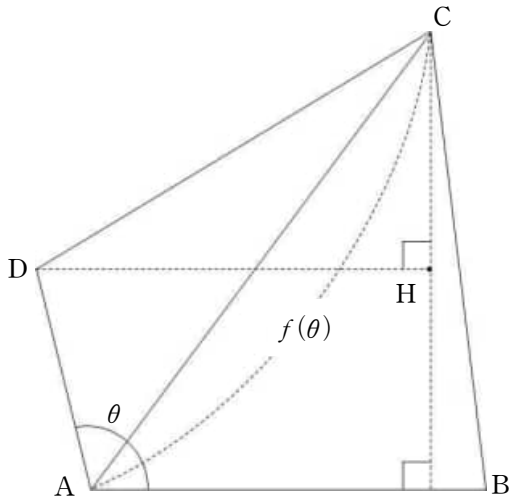
$\overline{EF} = \frac{2}{3} \times \overline{DH} = \frac{2}{3} \times 2\sqrt{6} = \frac{4\sqrt{6}}{3}$이다.

$\overline{EG}$를 구하자, 직각삼각형 EFG에서 $\overline{EG} = \sqrt{\overline{EF}^2 + \overline{FG}^2} = \sqrt{\frac{32}{3} + 16} = \sqrt{\frac{80}{3}} = \frac{4\sqrt{15}}{3}$.

따라서 $\cos\theta = \frac{\overline{FG}}{\overline{EG}} = \frac{4}{\frac{4\sqrt{15}}{3}} = \frac{3}{\sqrt{15}} = \frac{3\sqrt{15}}{15} = \frac{\sqrt{15}}{5}$이다.

[문제 3] **(답)** $f'(\theta) = -\frac{\sqrt{21}}{7}$

(풀이)



$\angle$ABC를 ϕ라고 하자. 그림의 직각삼각형 CDH에서

$\overline{\mathrm{DH}} = |\sqrt{3} - \cos\theta - 2\cos\phi|$, $\overline{\mathrm{CH}} = |2\sin\phi - \sin\theta|$ 이므로

(1) $$4 = (\sqrt{3} - \cos\theta - 2\cos\phi)^2 + (2\sin\phi - \sin\theta)^2$$

ϕ를 θ의 함수로 보고 θ에 대해 미분하면

(2) $$0 = (\sqrt{3} - \cos\theta - 2\cos\phi)(\sin\theta + 2\phi'\sin\phi) + (2\sin\phi - \sin\theta)(2\phi'\cos\phi - \cos\theta)$$

$\theta = \frac{\pi}{2}$ 이면 $\phi = \frac{\pi}{2}, f(\theta) = \sqrt{7}$ 이고 식 (2)는 $0 = \sqrt{3}(1 + 2\phi'(\frac{\pi}{2}))$이 된다.

따라서, $\phi'(\frac{\pi}{2}) = -\frac{1}{2}$.

코사인법칙에 따라 $f(\theta)^2 = 4 + 3 - 4\sqrt{3}\cos\phi$.

이 식을 θ에 대해 미분하면 $2f(\theta)f'(\theta) = 4\sqrt{3}\phi'(\theta)\sin\phi$.

$\theta = \frac{\pi}{2}$ 일때 $f'(\theta) = -\frac{\sqrt{3}}{\sqrt{7}} = -\frac{\sqrt{21}}{7}$.

[문제 4] **(답)** (1) $f'(\theta)=\dfrac{(10-t^2)^2+t^2}{2}$ (2) $a^2+b^2=19,\ ab=9,\ g(\theta)=\dfrac{29}{3}$

(풀이)

(1)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면

사다리꼴 OPAQ의 넓이 $\dfrac{t}{2}(10+t^2)$에서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뺀 값이

$f(\theta)$이다. 따라서

$$f(\theta)=\frac{t}{2}(10+t^2)-\int_0^t x^2dx=\frac{1}{6}t^3+5t.$$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직각삼각형 APH에서 $\tan\theta=\dfrac{t}{10-t^2}$이다.

t가 θ의 함수이므로, 양변을 θ에 대하여

미분하면 $\sec^2\theta=\dfrac{10+t^2}{(10-t^2)^2}\dfrac{dt}{d\theta}$이다.

$\sec^2\theta=1+\tan^2\theta=1+\left(\dfrac{t}{10-t^2}\right)^2=\dfrac{(10-t^2)^2+t^2}{(10-t^2)^2}$이므로

$$\frac{dt}{d\theta}=\frac{(10-t^2)^2+t^2}{10+t^2},\qquad f'(\theta)=\left(\frac{1}{2}t^2+5\right)\frac{dt}{d\theta}=\frac{(10-t^2)^2+t^2}{2}.$$

(2) $f'(\theta)=\dfrac{(10-a^2)^2+a^2}{2}$이고 같은 방법으로 $f'\left(\theta+\dfrac{\pi}{2}\right)=\dfrac{(10-b^2)^2+b^2}{2}$이다.

$g'(\theta)=0$일 때 $f'(\theta)=f'\left(\theta+\dfrac{\pi}{2}\right)$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frac{(10-b^2)^2+b^2}{2}=\frac{(10-a^2)^2+a^2}{2}$$

따라서

$$\begin{aligned}\{a^2+(a^2-10)^2\}-\{b^2+(b^2-10)^2\}&=a^2-b^2+(a^2-10)^2-(b^2-10)^2\\&=(a^2-b^2)+(a^2-b^2)(a^2+b^2-20)=(a^2-b^2)(a^2+b^2-19)=0\end{aligned}$$

$a^2\neq b^2$이어야 하므로 $a^2+b^2=19$를 얻는다.

또한 $\overline{AP}$와 $\overline{BP}$가 수직이므로

(**) $$\frac{a^2-10}{a}\cdot\frac{b^2-10}{b}=-1$$이고 $(a^2-10)(b^2-10)+ab=0.$

$$\begin{aligned}(a^2-10)(b^2-10)+ab&=a^2b^2-10(a^2+b^2)+100+ab\\&=(ab)^2-10\cdot19+100+ab=(ab)^2+ab-90=(ab-9)(ab+10)\end{aligned}$$

이로부터 $ab=9$를 얻는다. $a^2+b^2=19$와 $ab=9$을

연립하여 풀면 $a+b=\sqrt{37}$이고,

$$a=\frac{\sqrt{37}-1}{2},\qquad b=\frac{\sqrt{37}+1}{2}.$$

이때 $b-a=1$이고 $b^3-a^3=(b-a)(b^2+ba+a^2)=19+9=28$이다.

이때 $g(\theta)$의 값은

$$g(\theta)=\left(\frac{1}{6}b^3+5b\right)-\left(\frac{1}{6}a^3+5a\right)=\frac{1}{6}(b^3-a^3)+5(b-a)=\frac{28}{6}+5=\frac{29}{3}.$$

[문항카드 7 - 논술(KU논술우수자)_KU자유전공학부]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 / 문제1, 문제2-1, 문제2-2, 문제2-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수학, 수학I,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통섭, 다양성, 입체파, 다시점, 데페이즈망, 전치(轉置), 창조적 파괴, 점과 직선의 거리, 삼각함수, 경우의 수, 미분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문제 1]: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에 대하여 논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통섭(統攝)이라는 말은 원효 대사의 말에서 빌려 온 단어로, 사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단어의 뜻은 줄기 '통(統)'과 잡다 '섭(攝)'이라는 한자를 합쳐, 큰 줄기를 잡아 다루는 것, 즉 '전체를 도맡아 다스리다.'입니다. 이제 통섭은 바람직한 미래 학문 형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연 과학과 인문 과학, 사회 과학이 각자의 지식을 융합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요.

세상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지요.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격이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려면 결국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중략)

이 복잡 무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인지 과학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한 가지 잣대로만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심리학, 철학, 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같은 부모 학문들이 통섭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국어』

[나]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견고함마저 사라졌다.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 했다면, 입체파는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피카소의 작품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

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1점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 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조르주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

- 고등학교 『독서』

[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골콘다」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 고등학교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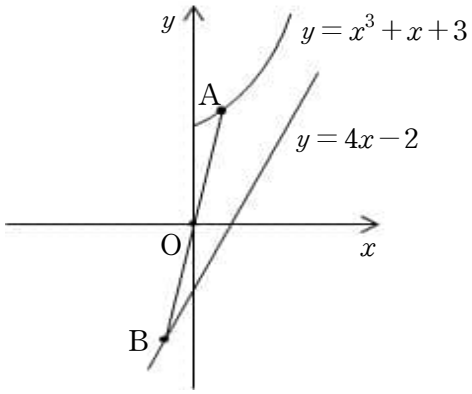
제시문 2-1

(가)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0$이고 $x=a$의 좌우에서

(1)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는 $x=a$에서 극대이고,

(2)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는 $x=a$에서 극소이다.

(나) 그림에서 점 A는 곡선 $y=x^3+x+3$ $(x \geq 0)$ 위에 있고, 점 B는 직선 $y=4x-2$ 위에 있다. 선분 AB는 원점 O를 지난다.



[문제 2-1] (나)에서 $\d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2-2

(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n$이다.

[문제 2-2]

9장의 카드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고, 각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는 서로 다르다. 이 중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20점]

제시문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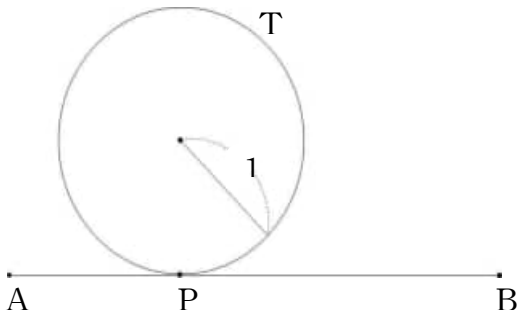
(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고 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d<r$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 $d=r$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접한다.)

(3) $d>r$이면 만나지 않는다.

(나) 그림에서 원 T는 반지름이 1이고 선분 AB와 점 P에서 접한다. $\overline{AB}=4$이고 $\overline{AP}=t$이다.



[문제 2-3] (25점)

(1) (나)에서 $t = \frac{1}{2}$일 때 원 T 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 의 넓이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2) (나)에서 원 T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 가 존재할 t 의 범위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3. 출제 의도

[문제1]

2025학년도 KU자유전공 논술고사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의 논술 능력과 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학업에 필요한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수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지문들을 교과서에서 뽑았다.

[문제 1]은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다. 계열 경계를 넘어선 인재를 선발한다는 자유전공학부 전형 취지에 맞추어 '통섭적 사고'를 기본 주제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에서는 통섭적 접근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 [가] 지문을 참고하여, 현대 미술의 특징적 조류를 설명한 지문 [나]와 [다]에 대하여 논하도록 했다. [나]와 [다]는 각기 입체파와 데페이즈망을 다룬 것인데, [가]의 '통섭적 사고' 개념을 적용해서 그 특징과 의의를 핵심적으로 짚어낼 필요가 있다. 입체파와 데페이즈망의 특성을 설명하는 식의 단순 요약으로는 부족하며, '통섭'의 관점에서 두 유파의 새로운 접근법과 표현방식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내고 의의를 적절히 도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층위의 지문을 통섭적으로 가로지르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논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제2-1]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2]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하여 빠짐없이 셀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3]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점과 직선의 거리와 두 직선의 평행조건을 삼각함수를 응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1. 국어과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4</td><td>[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3</td><td>[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4</td><td>[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5</td><td>[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1</td></tr>
<tr><td>성취기준 6</td><td>[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1</td></tr>
</table>
</td></tr>
</table>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문제1
성취기준 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성취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2. 사회과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제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 8】“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제 2-1	수학 - (2) 기하 - 1 평면좌표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 (2) 기하 - 2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 II - (2) 미분 2 도함수 [12수학II02-04] 함수 $y=x^n$(n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II - (2) 미분 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2-2	수학 - (5)-확률과 통계 1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3	수학 - (2) 기하 2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 Ⅰ - (2) 삼각함수 1 삼각함수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0	36 -37	문제1 [가]	X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129	문제1 [나]	X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20	187	문제1 [다]	X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85
	수학	이진호 외	좋은책신사고	2020	127
	수학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0	145
	수학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261

5. 문항 해설

● 문제 1

자유전공학부 [문제 1]은 '통섭적 사고'를 주제로 하여, 현대사회 학문의 통섭에 대한 설명을 미술이라는 분야에 적용해서 횡단적이고 통섭적인 사유를 수행하고 이를 논리적 글쓰기로 풀어내도록 한 것이다. 서로 층위가 다른 [가] 지문과 [나], [다] 지문을 효율적으로 매개해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춘 글을 쓰는 것이 관건이다. [나]와 [다]는 미술의 조류를 설명한 것인데, 거기 통섭적 사고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를 적절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지문이 나란히 있는 만큼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짚어내서 논술했을 때 훌륭한 풀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문 [가]는 세계가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통섭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인간의 두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철학, 공학의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요컨대 [가] 지문의 핵심 화제는 학문의 통섭이다.

문제는 지문 [나]와 [다]가 학문이 아닌 예술 분야의 조류를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와 [다]는 각기 입체파와 데페이즈망이라는 미술의 조류에 대해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 1]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말하는 '학문의 통섭'에 대한 내용에서 '통섭'의 일반적 개념과 방법을 추출해서 이를 미술 분야에 매끄럽고 합리적인 형태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 지문의 내용과 [나], [다]의 내용이 겉돌 경우 문제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지문과 [나], [다] 지문의 적절한 융합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라는 뜻이다.

지문 [나]와 [다]에서 다루고 있는 입체파 그림과 데페이즈망 미술에는 각기 어떤 통섭적 사고가 반영돼 있을까? [나]는 조르주 브라크와 피카소의 예를 들어 입체파의 특성을 논하고 있는데, 세잔의 그림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맥상 세잔은 입체파가 아니며, [나]의 기본 논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나]를 세잔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잘못된 독해에 해당한다. 브라크와 피카소 등 입체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입체파 그림의 통섭적 접근법은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다시점의 관찰과 그것의 종합에 있다. 인간의 두뇌를 심리학과 철학, 공학 등 여러 관점에서 보고 이를 하나로 연계 통합하는 것과 통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접근이 단순한 기교나 실험이 아니라 대상의 진실을 오롯이 드러내는 방법론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실제로 물체와 공간을 볼 때 전후좌우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이를 종합한다고 하는 점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이 입체파 그림이라는 것이 지문 [나]의 시각이다.

지문 [다]에서 다룬 데페이즈망 미술에 반영된 통섭적 관점은 입체파 그림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입체파가 하나의 대상을 다시점에서 보고 이를 종합하는 쪽이라면, 데페이즈망은, '전치(轉置)'라는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의 이질적 배치를 특성으로 한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을 놓는 방식으로 이질적 대상을 한 자리에 배치해서 결합하는 것이 데페이즈망의 특징적 기법이다. 지문에 예시된 마그리트의 그림 '골콘다'는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떠있는 수많은 남자를 담고 있는데, 그 자체로 낯설고 이질적인 비현실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배경을 이루는 집과 하늘은 정상적인 쪽이다. 현실적 배경 이미지와 비현실적 인물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통섭의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골콘다'에서 이와 같은 이질적 요소의 결합을 읽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이를 잘 짚어냈다면 탁월한 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친숙한 대상을 낯선 상황에 병치시켜 제시하거나 물리학적 법칙을 초월한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통념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을 보여줬다는 점을 잘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독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데페이즈망 또한 입체파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실험이나 기교를 넘어서 세계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인식을 지향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데페이즈망의 통섭적 접근이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을 일깨우는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을 낳는다고 하는 [다]의 논지를 주목해야 한다. 데페이즈망의 파괴는 '창조적 파괴'로서, 통섭의 관점에서 '창조적 통섭'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600자 이내의 글에서 위의 모든 요소를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험생이 각자의 관점에서 핵심 요소를 적절히 반영해서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쓴 경우 좋은 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적 연결과 융합이다. [나]와 [다] 지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글이나, 지문 내용을 따로 요약한 뒤 '둘 다 통섭으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봉합한 답안은 좋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제2-1]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2]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하여 빠짐없이 셀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2-3] 원의 접선을 이용하여 주어진 원을 내접원으로 갖는 삼각형을 찾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 문제 1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table>
<tr><th>평가 영역</th><th>평가 항목 내용</th></tr>
<tr><td rowspan="2">[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td><td>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는 점점 다변화하되는 가운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과 지식의 틀에 의존하는 전통 방식을 벗어나 각 학문의 관점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섭'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는 것이, 또는 서로 다른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통섭적 접근이라는 점을 잘 짚어낼 필요가 있다. 발상과 전환과 창의적 상상력도 통섭의 의미요소에 해당한다.</td></tr>
<tr><td>② [가]의 핵심 내용을 [나]에 잘 적용하였는가?
[나]는 고정된 1인칭 시점에 근거해 대상의 충실한 재현에 치중했던 전통 회화나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을 살리는 데 집중한 세잔과 구별되는 입체파 미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 핵심은 사물을 다각적 시선으로 관찰하고 이를 내적 심상의 원리에 따라 종합해서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 평면에 다시점의 이미지를 배치함으로써 기하학적이면서도 입체적인 효과를 발현한다. 지문에 예시된 조르주 브라크의 그림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얼핏 입체파 그림은 대상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회화 원리를 파괴한 도발적 실험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상에 대한 다면적 인식과 이의 종합이라는 통섭적 접근 원리가 반영돼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진실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창의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입체파 그림의 이러한 특징과 의의를 [가]의 통섭 개념과 연관해서 적절히 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의 핵심 내용을 [다]에 잘 적용하였는가?

[다]는 데페이즈망 미술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특징을 [가]의 '통섭적 사고'와 잘 연결해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 데페이즈망 미술은 친숙한 대상을 낯선 상황에 병치시켜 제시하거나 물리학적 법칙을 초월한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성취하게 한다. 그 핵심은 이질적인 것의 연결과 대상의 비현실적 배치에 있으며, 이는 [가]에서 말하는 통섭적 접근에 해당한다. 데페이즈망이 추구하는 파괴는 '창조적 파괴'로 볼 수 있으며, [가]와 관련해서 이를 '창조적 통섭'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을 잘 짚어낸 경우 좋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td></tr>
</table>
</td><td>40</td></tr>
</table>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④ [가]와 [나], [다]의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문제1을 풀이함에 있어 위에 설명한 바 지문 [가]와 [나], 지문 [가]와 [다]의 연결성을 적절히 매개 통합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된다. 문제의 요구 사항이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에 대해 논하라는 것인데, 만약 [나]에 대한 논의와 [다]에 대한 논의가 따로 논다면 좋은 답안이라 할 수 없다. 상호간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평가시 답안의 내용이 내적으로 잘 연결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⑤ [나]와 [다]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 연결성을 지니는가? 문제는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에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에서 직접 양자를 '비교'하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의 '통섭'이라는 연결고리를 준 만큼 [나]와 [다]를 상호 연결해서 다루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가]의 '통섭적 사고' 개념을 축으로 해서 입체파 그림과 데페이즈망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짚어냈을 때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유파는 '통섭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창의적 발상과 표현, 그리고 그를 통한 새롭고 깊은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그 구체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입체파가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시점의 인식을 종합하는 쪽이라면 데페이즈망 미술은 이질적인 것의 연결과 대상의 비현실적 배치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논한 경우 높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만약 [나]와 [다]를 지문에 의거해서 단순 요약하는 데 그쳤다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된다. 필요한 논의 없이 '[나]와 [다]가 둘 다 통섭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단순 연결한 경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⑥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⑥의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
A	95	①에서 ⑥ 중 다섯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⑥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⑥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⑥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⑥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2-1	A+: 답과 풀이가 맞음. A: $\frac{\overline{OA}}{\overline{OB}} = \frac{\lvert a^3-3a+3\rvert}{2}$를 구함 B+: 점 B의 좌표 $\left(\frac{2a}{4a-(a^3+a+3)}, \frac{2(a^3+a+3)}{4a-(a^3+a+3)}\right)$를 구함. 그리고, $\frac{\overline{OA}}{\overline{OB}}$를 a에 대하여 구하였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B: 점 B의 좌표 $\left(\frac{2a}{4a-(a^3+a+3)}, \frac{2(a^3+a+3)}{4a-(a^3+a+3)}\right)$를 구함. C: 직선 OA의 방정식 $y=\frac{a^3+a+3}{a}x$을 구함.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15
문제2-2	A+: 답과 풀이가 맞음. A: (1)-(5) 중에서 세 개를 정확히 구함 B+: (1)-(5) 중에서 두 개를 정확히 구함 B: (1)-(5) 중에서 하나를 정확히 구함 C: 가능한 4의 배수가 12, 16, 20, 24, 28의 경우임을 적음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0
문제2-3	A+: 답과 풀이가 맞음. A: $t=\frac{1}{2}$일 때 넓이 $\frac{28}{3}$을 구하고, $t^2-4t+1<0$을 구함. B+: $t=\frac{1}{2}$일 때 넓이 $\frac{28}{3}$을 구하고, $\mathrm{A}+\mathrm{B}<\pi$를 구함. B: $t=\frac{1}{2}$일 때 넓이 $\frac{28}{3}$을 구함. C: $t=\frac{1}{2}$일 때 직선 AC, 직선 BC의 방정식이나 교점 C를 구함.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5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문제 1**

[가]는 복잡한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융합하는 통섭적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가]의 화제는 학문의 통섭이지만, 통섭적 접근은 예술을 포함한 인간활동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나]와 [다]는 미술의 새로운 조류를 설명한 것인데, 통섭의 측면에서 특성과 의의를 논할 수 있다. [나]에서 다룬 입체파 그림은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을 한 평면에 기하학적으로 배치하여 입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점의 관찰과 종합이라는 방식으로 통섭적 표현을 수행한 경우다. 이에 대하여 [다]의 데페이즈망은 이질적인 대상을 상식을 넘어서는 형태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통섭적 사고를 구현한다. 예시된 그림 '골콘다'는 정상적으로 서있는 건물과 무중력 상태로 떠있는 남자들을 결합해서 낯선 느낌을 전한다. 입체파와 데페이즈망의 이러한 통섭적 접근은 단순한 실험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입체파는 인간이 물체와 공간을 실제로 인식하는 방식을 반영해서 대상의 진실을 표현하며, 데페이즈망은 통념을 넘어선 상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이와 같은 창의적 접근법을 인간활동 각 분야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590자)

[문제 2-1] 답) $\frac{1}{2}$

풀이)

$\mathrm{A}(a, a^3+a+3)$이라 하자.

1) $a=0$일 때

점 A의 좌표는 $(0,3)$이고 선분 AB는 O를 지나므로 점B의 좌표는 $(0,-2)$이다.

따라서 $\frac{\overline{\mathrm{OA}}}{\overline{\mathrm{OB}}} = \frac{3}{2}$이다.

2) $a \neq 0$일 때

직선 OA의 방정식은 $y = \frac{a^3+a+3}{a}x$이다.

$\frac{a^3+a+3}{a}x = 4x-2$에서 $x = \frac{2a}{4a-(a^3+a+3)}$이고,

점 B의 좌표는 $\left(\frac{2a}{4a-(a^3+a+3)}, \frac{2(a^3+a+3)}{4a-(a^3+a+3)}\right)$이다.

$\overline{\mathrm{OA}} = \sqrt{a^2+(a^3+a+3)^2}$ 이고,

$\overline{\mathrm{OB}} = \sqrt{\frac{4(a^2+(a^3+a+3)^2)}{(4a-(a^3+a+3))^2}} = \frac{2\sqrt{(a^2+(a^3+a+3)^2}}{|a^3-3a+3|}$ 이다.

따라서 $\frac{\overline{\mathrm{OA}}}{\overline{\mathrm{OB}}} = \frac{|a^3-3a+3|}{2}$이다.

$f(x)=x^3-3x+3$ $(x \geq 0)$이라 하자.

$f'(x)=3x^2-3=3(x-1)(x+1)$이다. $f'(1)=0$이고 $f'(x)$는 $x=1$의 좌우에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따라서 $x \geq 0$일 때 $f(x)$는 $x=1$의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x \geq 0$일 때 $f(x)$의 최솟값은 $f(1)=1$이고 $f(x) \geq 0$이다. 따라서 $x \geq 0$일 때 $|f(x)|$의 최솟값은 $f(1)=1$이다.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은 $\frac{f(1)}{2} = \frac{1}{2}$이다.

1)과 2)에서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은 $\frac{1}{2}$이다.

[문제 2-2] **답) 32**

풀이)

4개의 수의 합이 최소일 때는 1+2+3+4=10이고 최대일 때는 6+7+8+9=30이다.
따라서 4개의 수의 합으로서 가능한 4의 배수는 12, 16, 20, 24, 28이다.
4개의 수를 a, b, c, d라 하자. 순서에 상관없고 서로 다른 수이므로 $a < b < c < d$로 생각할 수 있다.

$a+b+c+d = k$라 하자.
$a+(a+1)+(a+2)+(a+3) \le k \le (d-3)+(d-2)+(d-1)+d$ 이므로
$a \le \frac{k-6}{4}$, $d \ge \frac{k+6}{4}$ ----------(*)

(1) $k = 12$인 경우
(*)에 의해 $a = 1$, $d \ge 5$이고 이때 가능한 경우는
$(a,b,c,d) = (1,2,3,6), (1,2,4,5)$의 2개이다.

(2) $k = 16$인 경우
(*)에 의해 $a \le 2$, $d \ge 6$이고 이때 가능한 경우는
$a = 1$일 때 $(a,b,c,d) = (1,2,4,9), (1,2,5,8), (1,2,6,7), (1,3,4,8), (1,3,5,7), (1,4,5,6)$
$a = 2$일 때 $(a,b,c,d) = (2,3,4,7), (2,3,5,6)$

(3) $k = 20$인 경우
(*)에 의해 $a \le 3$, $d \ge 7$이고 이때 가능한 경우는
$a = 1$일 때 $(a,b,c,d) = (1,2,8,9), (1,3,7,9), (1,4,6,9), (1,4,7,8), (1,5,6,8)$
$a = 2$일 때 $(a,b,c,d) = (2,3,6,9), (2,3,7,8), (2,4,5,9), (2,4,6,8), (2,5,6,7)$
$a = 3$일 때 $(a,b,c,d) = (3,4,5,8), (3,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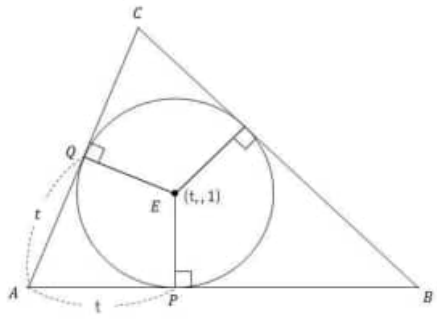
(4) $k = 24$인 경우
(*)에 의해 $a \le 4$, $d \ge 8$이고 이때 가능한 경우는
$a = 1$일 때 $(a,b,c,d) = (1,6,8,9)$,
$a = 2$일 때 $(a,b,c,d) = (2,5,8,9), (2,6,7,9)$
$a = 3$일 때 $(a,b,c,d) = (3,4,8,9), (3,5,7,9), (3,6,7,8)$
$a = 4$일 때 $(a,b,c,d) = (4,5,6,9), (4,5,7,8)$

(5) $k = 28$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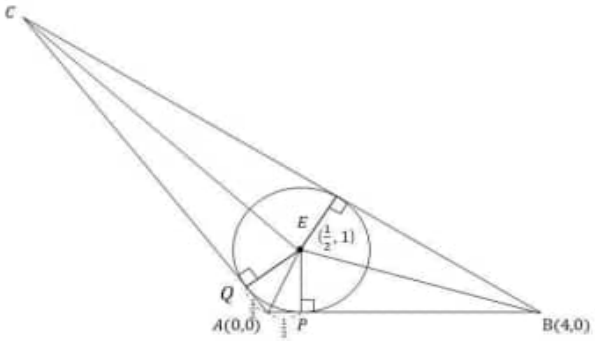
(*)에 의해 $a \le 5$, $d = 9$이고 이때 가능한 경우는
$(a,b,c,d) = (4,7,8,9), (5,6,8,9)$의 2개이다.
위 5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경우의 수는 2+8+12+8+2=32개이다.

[문제 2-3] **답)** **(1)** $\frac{28}{3}$, **(2)** $2-\sqrt{3} < t < 2+\sqrt{3}$

풀이)



[그림 1]



[그림 2]

$A(0,0)$, $B(4,0)$, 원의 중심을 $E(t,1)$이라 하자 [그림 1].
직선 AC의 기울기를 m이라 하면, 직선 AC의 방정식은 $y = mx$ $(m \neq 0)$이다. 직선 AC와 점 E사이의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1과 같으므로 $\frac{\left|1-m\frac{1}{2}\right|}{\sqrt{m^2+1}} = 1$, 따라서 $m = -\frac{4}{3}$이다.
직선 BC의 기울기를 n이라 하면, 직선 BC의 방정식은 $y = n(x-4)$ $(n \neq 0)$이다.
직선 BC와 점 E사이의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1과 같으므로 $\frac{\left|n\frac{1}{2}-1-4n\right|}{\sqrt{n^2+1}} = 1$이다.
그러므로 $n = -\frac{28}{45}$이다. 직선 AC $y = -\frac{4}{3}x$와 직선 BC $y = -\frac{28}{45}(x-4)$의 교점을 구하면 C $\left(-\frac{7}{2}, \frac{14}{3}\right)$이다 [그림 2].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frac{1}{2} \times \overline{AB} \times (\text{C의 } y\text{좌표}) = \frac{28}{3}$이다.

(2)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려면 $A + B < \pi$이어야 한다.
즉 $\pi - A > B$이므로 $\frac{\pi}{2} - \frac{A}{2} > \frac{B}{2}$, 따라서 $\tan\left(\frac{\pi}{2} - \frac{A}{2}\right) > \tan\frac{B}{2}$이다.
그런데,

$\tan\left(\frac{\pi}{2}-\frac{A}{2}\right)=\frac{\sin\left(\frac{\pi}{2}-\frac{A}{2}\right)}{\cos\left(\frac{\pi}{2}-\frac{A}{2}\right)}=\frac{\cos\frac{A}{2}}{\sin\frac{A}{2}}=\frac{1}{\frac{\sin\frac{A}{2}}{\cos\frac{A}{2}}}=\frac{1}{\tan\frac{A}{2}}$ 이므로

$\tan\frac{A}{2}\tan\frac{B}{2}<1$ 이다.

$\tan\frac{A}{2}=\frac{1}{t}$, $\tan\frac{B}{2}=\frac{1}{4-t}$이고 $t(4-t)>1$ 즉 $t^2-4t+1<0$이므로

$2-\sqrt{3}<t<2+\sqrt{3}$ 이다.

□ 검증위원 의견서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공통(영어)]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OO고등학교	성명	안OO
검토 과목	영어		
적용 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증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증 등

제시문의 적절성
2015교육과정을 적용한 문항으로 고교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표현으로 출제됨.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2015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적절함
4. 종합 의견
2015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출제되었으며 고교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출제됨.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인문, 예체능계(국어)]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OO고등학교	성명	최OO
검토 과목	국어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토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토 등

제시문의 적절성
고등학교 국어, 독서, 문학의 범위 내에서 전체 40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모든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발췌되었으므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과 독서, 문학 영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시문들이 적절히 출제되었다.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법 영역의 경우, 국어의 특성과 국어의 운용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음운, 단어, 문장 수준의 다양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른 국어 활용 능력을 학습한 지원자라면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자 사회 문화적 소통 활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대시와 고전시가,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수필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학의 형상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수용자의 입장에서 작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다양한 문항을 통해 묻고 있으며,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출제의 의도와 정답의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 예술, 과학 등의 제시문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사실적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지원자의 대학 수학 능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재외국민와 외국인전형 필기고사의 경우 국어 40문항이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즉, 지원자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국어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역량이 중요시되는 평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문항 해설을 통해 제시문의 출처와 출체 의도, 정답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자신의 답안의 적절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필기고사의 국어 영역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되었으며,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역량 평가를 위해 문학, 독서, 문법 영역에서 전반적인 국어 활용 능력을 다양하게 묻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자연계(수학)]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OO고등학교	성명	장OO
검토 과목	수학		
적용 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토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토 등

제시문의 적절성
2015교육과정을 적용한 문항으로 고교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표현으로 출제됨.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2015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적절함.
4. 종합 의견
2015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출제됨.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사회(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인문사회Ⅰ, Ⅱ(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Ⅰ 논술고사의 제시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논술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 [가], [나]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1]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간의 관계 양상을 논하는 [문제2]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 매우 익숙한 형태였을 것이다.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은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리비히의 법칙'을 통해서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위 존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된 타자를 대하는 윤리적 삶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다. 윤리적 삶이란 대상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공감, 이해, 관심, 배려 등이 윤리적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시문 [다] 통합사회와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도표 자료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양태를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한강 작가의「내 여자의 열매」의 일부로 '나', '어머니', '의사', '남편'등의 인물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나'를 약자라고 볼 수 있으며, '나'를 중심으로 다른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각 제시문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며,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여 제시된 도표 자료를 분석하거나,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유형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 논제의 요구사항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 제시문에서

언급한 ‘리비히의 법칙’을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나] 제시문의 ‘윤리적 삶’에 대한 관점의 공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여러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지식적으로 접근하여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의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이해하여 글을 작성해야 한다. [다]에 제시된 자료는 통합사회,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료이며, 이를 주어진 지문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문제2]는 [라]의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가]의 ‘리비히의 법칙’의 관점과 [나]의 ‘윤리적 삶’이 의미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논제를 구성하고 있다. [라]의 ‘나’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가는 존재이므로 [가], [나]의 관점에서 말하는 ‘약자’에 해당한다. ‘나’를 중심으로 ‘어머니’, ‘의사’, ‘남편’의 모습을 [가], [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해야 한다. ‘어머니’의 온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적으로 부리되어 있어서 ‘나’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점, 형식적으로 의례적이며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의사, ‘나’를 정성껏 돌보지만, 공감, 이해, 배려가 부족한 ‘남편’을 얼마나 잘 서술하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1-02]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학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통합사회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한국사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1-02]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

			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학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 인문사회 I 에서는 국어, 사회 교과의 여러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등 국어 교과에서 다수의 과목에 관련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교과에서도 통합사회와 한국사 등 특히 타 대학에서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역사 영역의 자료까지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학생이 더 충실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의 설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인문사회 I 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제시문과 문제의 핵심 내용과 논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항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고 있다.

[문제1]의 문항 해설의 경우, 우선 [가], [나] 지문에서 논제의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다]의 도표 자료에서는 각 도표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와 가치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자료(1)에서는 암 환자의 소득 수준별 차이가 담겨 있다. 또한 질병 미치료율의 비율과 그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2)에서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 관점에서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해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2]의 문항 해설의 경우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나'가 왜 약자인지에 대한 설명, '나'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설명, '나'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에 대한 설명, 특히 '남편'의 태도에 대한 설명에서는 작품의 세부적인 부분을 근거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자료를 읽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시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설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구체적인 채점 기준(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명확한 논술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문제1]의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 [나], [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제시문들이 어떠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서술해야 할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평가 항목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들(표면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자료에 제시된 여러 집단 중 하위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등)도 명시해주어서 조금 더 채점 기준을 명확히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문제2]의 채점 기준의 경우 [라]에 나타난 인문들의 관계를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제시한 각 요소들을 명시하고, 그 요소들에 대하여 어머니, 의사, 남편이라는 각 인물별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분리되어 있어서 내적 소망을 성취할 수 없는 어머니,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무례한 의사의 태도, 관심은 있지만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보기에 어려운 남편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서술로 풀어 설명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해설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문단 간 구성과 설득력 있는 전개 등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문제1]의 예시 답안의 경우 도표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그 속에서 [가]와 [나]의 관점이 반영되고 제시문 간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는 서술을 해야 함이 명시되고 있다.

[문제2]의 예시 답안의 경우에는 문항 해설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더 압축적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와 인문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이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잘 서술하고 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Ⅰ 논술고사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윤리적 삶의 태도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분야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문과 도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출제자가 의도한 제대로 된 답을 구성할 수 있기에 독해력뿐만 아닌 종합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기출문제, 평가기준 등)가 풍부하여 따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대학 논술고사로서의 적절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논제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에 관한 생각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한다. 논술고사는 다른 고사와 달리 답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논제의 경우에는 주제에서부터 문항 서술까지 논술고사라는 전형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사회(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인문사회Ⅰ, Ⅱ(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Ⅰ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에서만 제시문을 뽑아 통합적으로 구성했다. 고등학교 『독서』에서 산문 2개, 『문학』에서 소설 1 작품, 『통합사회』와 『한국사』에서 의 도표 그래프 자료를 융합해서 제시문을 구성하여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제시문과 자료의 난이도를 평이하게 하면서도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여 수험생들이 평소 충실히 준비한 대로 독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1]

[가]는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요소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리비히의 법칙(최소량의 법칙)이 동물과 인간의 성장, 사회나 국가의 역량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나]는 타자와 자연에 대한 무례함이 축제성-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과 상호소통을 가로막는다는 폐해를 지적하며 핵심 논지인 ‘약한 존재에 대한 이해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는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5분위 계층의 암 환자 생존율의 격차를 보여주는 [도표 1]과 주거 양극화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도표 2]로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과 자료는 모두 ‘2015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인간과 삶, 사회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성적인 인재, 나아가 약자의 위치에 놓인 타자와 대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인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문제 2]

[가]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최하위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존중할 때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나]는 모든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고, 약한 존재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강조한 글들이다. [라]는 점점 나무로 변하여 남편의 보살핌을 받는 여인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모성과 생태학적 세계관을 통해 도시 문명의 황폐함을 비판하고 자연 순환적인 생명성을 다룬 작품으로, 작가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의 절정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모든 제시문을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독해력, 분석력, 문학적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답안에 필요한 논지를 찾을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논리·비판적 사고, 이해·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 고사의 목표에 적합하다. 더불어 약자와의 바람직한 관계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제시문들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 1]은 소득에 따른 의료 양극화라는 보건 의료 제도의 문제점과 주거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다]의 자료들에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적용해서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에서 사회와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배려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준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에서 약한 존재를 예의와 겸손함으로 배려하는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준거로 추출해야 한다. 논제의 요구사항이나 답안 서술 방향을 제시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며, 학문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이해·분석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인간과 세상을 지성적, 비판적,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함으로써 고도의 사고력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인성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와 교육적 가치에 적합하다.
[문제 2]는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해서 [라]의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분석적으로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로서 점차 나무로 변하는 '약자'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 의사, 어머니의 자세를 통해 필요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의, 상호 이해와 소통 등 예비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인식과 올바른 자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갖춘 논제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하다. 또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타자와 존재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지성적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독서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독서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통합사회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통합사회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한국사	[10한사04-04]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독서	[12독서04-02]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학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2015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 평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자료를 모두 교과서에서만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출제 근거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제 1]

문항 해설을 통해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 핵심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좋은 답안 작성을 위해 제시문 [가], [나]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논지와 이를 [다]의 도표 자료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 내용과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각 내용의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내용과 답안 구성 방향, 내용 구상의 핵심 요소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도표 1]과 [도표 2]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 상황, [가], [나]의 논지와 도표 자료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해설하고, 바람직한 답안 작성의 초점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문제 2]

[라]의 인물들의 관계 양상에 [가], [나]의 관점을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중요 개념과 논점, 내용 파악에서 놓쳐서는 안 된 것들을 상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아내를 대하는 의사의 무례함,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의 부족은 쉽게 논할 수 있지만, ‘나’의 남편이 나름대로 정성껏 나무가 돼 가는 아내를 돌보는 자세에도 진심의 이해와 충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사고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심층적인 독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답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상술하고 해설하였다. 앞으로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의 논술 고사 대비, 고등학교 현장의 논술 수업에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문제 1]
채점 기준에서 평가 항목을 구조화하여 밝힘으로써 [가]와 [나]의 핵심 요지와 의미 파악의 정확성, 두 제시문의 내용상 연관성과 이면적 의미의 파악, [다]의 도표의 의미 파악, [가], [나]의 논지를 [다]의 도표에 적용한 분석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한, 논지 전개의 일관성과 설득력, 문장 표현과 구성 능력, 적절한 어휘 사용과 정확한 문장 구사 등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평가에도 적합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내용을 8단계로 세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2]
[라] 작품의 중심인물인 '나'가 건강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사회적 약자 혹은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채점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와 [나]의 관점 파악의 정확성과 두 제시문의 의미적 연관성, 이면에 있는 심층적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이는 통합적으로 제시문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연결하여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채점 기준으로 적합하다. 특히, [가]와 [나]의 중요 논지들을 [다]의 인물 관계 양상에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채점 내용을 세분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 1]의 예시 답안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를 통합해서 도표 자료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수준 높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이해력과 분석력, 추론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 답안이다. 즉, 예시 답안은 사회적 약자인 하위 존재, 의료와 주거라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 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적·사회 구조적 차원의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모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지성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2]의 예시 답안은 사회적 약자로서 모성적 생명력을 갈구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인물인 '여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즉,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무례함에서 배려와 이해, 존중이 없는 잘못된 자세를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생명의 근원으로서 따뜻한 어머니, 즉, 모성을 그리워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양상도 적절하게 서술해야 한다. 특히, 나무로 변해가는 아내를 정성껏 돌보는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도, 심리적 단절감이 있다는 점까지 파악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2번의 답안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다양한 글을 읽으며 현대 사회와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지성인의 소양을 평가한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현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올바른 인간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논술 고사가 지닌 교육적 의의도 보여주고 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Ⅰ 논술 고사 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심도 있는 사고로 확장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 도구이다.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사고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독해력, 이해·분석력, 논리적인 내용 파악과 구성 및 논리 전개 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에 부합한다.
자료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와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고도의 사고력 평가를 위해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과 제시 자료를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와 사회과의 과목들에서 발췌함으로써 충실하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교육을 통해 배운 배경지식을 심층적·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존의 논제 유형을 유지하고, 난해하지 않은 제시문과 제시 자료들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현장을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 도구라 할 것이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사회(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황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인문사회Ⅰ, Ⅱ(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Ⅰ 논술고사는 두 개의 제시문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도표를 분석하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기존 건국대학교 논술고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리비히의 법칙'을 소개하며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최하위 존재와의 공존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나]는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타자와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와 윤리적 삶을 위한 자세를 제시한다. [다]에서는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 미치료율과 그 경제적 이유를 나타난 표와 주거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는 한강의「내 여자의 열매」일부로 식물이 되어가는 '나'와 주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다루고 있다.

[문제1]에서는 [가]와 [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인 최하위 존재, 약자, 공존, 윤리적 삶 등을 활용하여 [다]의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자료를 통해 암 환자 생존율이 남녀 모두 소득 수준별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며, 경제적 이유가 미치료율의 주된 요인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상황의 차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문제2]의 경우 [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학 작품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므로 정독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의 요구에 맞게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참고하면 '나'와 남편, 의사, 어머니의 관계 양상을 논하는 데 무리가 없다.

제시문의 분량이나 독해의 난이도를 평이하게 하면서도 전년도 기출 문제나 2025학년도 대비 모의논술 고사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작품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의 수준에서도 문학적으로 의미있는 작품의 분석적 논술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은 [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하위 존재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알고 [나]에서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이나 대상화되는 타자에 주목하여 이러한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 이해와 공감이라는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의 자료를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라는 조건에 맞추어 '약자', '하위 존재'을 초점으로 정보를 분석하도록 출제하였다.

[문제2]는 [라]에서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를 매우 섬세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있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한강의 소설 일부를 '[가]와 [나]를 참고하여' 지문과의 연계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인물 간 관계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출제하였다. [가]와 [나]에서 드러난 사회적 약자와 하위 존재 개념을 참고하여 [라]의 '나'가 돌봄이 필요한 약자이며, 이러한 약자와 '하위 존재'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태도를 통해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몫을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바른 인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의 취지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사회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통합사회	[10통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한국사	[10한사04-05]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2015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 평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자료를 모두 교과서에서만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출제 근거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을 통해 문제에서 파악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 제시문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답안 작성의 방향과 핵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문제1]에서는 제시문 [가]에 직접 제시된 '(최)하위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나]는 직접 '약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동물이 약자 내지는 하위 존재에 놓일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의 자료를 분석하는 초점이 약자 혹은 하위 존재에 맞추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문제2]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그치지 않고 [가]와 [나]에서 파악한 핵심 요소를 참고로 [라] 작품 속 인물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인물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여 논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와 '어머니', '의사'의 관계 양상은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와 '남편'의 관계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파악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는 '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문항 해설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 있어, 이견없이 문항을 해석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답안 작성의 유의점, 평가자가 특히 유념해야 할 점 등을 제시문의 세세한 항목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채점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답안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제1]의 채점 기준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제시문들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파악하고 그 연관성을 서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나]의 제시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서술을 '약자' 내지는 '하위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여 채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다]의 자료 분석에서 여러 정보 가운데 선별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문제2]의 채점 기준의 경우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요소들을 명시하였다. 또한 [라]에 나타난 '나'의 처지와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의 답안에서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와 주요한 관계를 맺는 작품 속 인물들 -어머니, 의사, 남편- 의 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주어진 글자수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적 전개,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1]의 경우 [가]와 [나] 제시문을 통해 파악한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해석하는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자료(1)과 자료(2)에서 파악한 정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문제2]의 경우 [라]의 '나'를 [가]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며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나'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논하였다. 예시 답안을 통해 각 문항의 논리적 답안 작성의 방향과 구성의 방법을 알고 작품 속 '나'의 상황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 I 논술고사는 기존의 논제 유형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교과서 지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 I 논술고사의 경우, 무엇보다 기존의 논제 유형을 유지하고, 제시문의 분량이나 독해의 난이도를 평이하게 하면서도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작품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 수준에서도 문학적으로 의미있는 작품의 분석적 논술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출제 의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건강한 공생적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제를 다룸으로써 논리적 사고력과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사회Ⅱ(사회)]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박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인문사회Ⅱ(사회)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문제1]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Ⅱ 문제1 (가) 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표로 제시되는 (다)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 기존 논술고사와 유사한 방식이며, 두 개의 지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와 하위존재에 대해 찾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할 때 이를 위해 제시된 지문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과서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제시문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확인할 수 있었음.

제시문[가]는 최하위 존재의 건강한 생존이 사회 발전에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시문[나]는 대상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며 이는 함께 사는 삶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제시문[다]는 (1)에서는 암환자의 생존률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자료를, (2)에서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가) 와 (나)를 통해 파악되는 사회적 약자와 하위존재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시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2] 제시문(라)~(사) 의 지문은 경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경제 교과서내에서 발췌된 제시문으로 문제 2번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제시문에 해당한다.

제시문 (라) 환율의 개념이며 (마)는 물가지수, (바)시장균형에 대한 개념 설명에 해당하며, (사) 사회적 잉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임을 설명하는 제시문임.

[문제 2-1] 제시문 (라)와 (마)는 환율과 물가 지수의 개념을 제시문을 통해 개념을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답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임.

[문제 2-2] 제시문(바) 경제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 있도록 제시된 지문이며, 제시문(사)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인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구하는 문제에 적절한 제시문으로 적절함.

[문제 2-3] 금융투자 상품에서의 기댓값과 확률 계산을 통해 수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문제임.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이

해력, 분석력, 논증력, 수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출제의도가 있음을 밝히는 바, 문제가 제시된 출제의도에 맞게 적정하게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함.

[문제 1] 제시문을 통해 최하위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예의와 존중, 공감의 필요성을 유추해 내는 과정을 통해 이해력과 논증력을 평가하는 출제의도는 적절했음.

[문제2-1] 환율과 물가지수의 기본 지식을 통해 기본적인 수리적 논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의도는 적절했음.

[문제2-2]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고자는 출제의도는 적절했음.

[문제 2-3]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사례를 통해 수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려는 출제 의도는 적절했음.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제2018-162호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1	제2018-162호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12경제04-02]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 및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2		경제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2-3		경제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12경제05-03]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문제1, 문제2-1, 2-2, 2-3 및 (다) ~ (사)제시문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사회과 교육과정(제2018-162호)'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을 출처 근거로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함.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제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며 (가)와 (나) 지문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지문을 통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세를 관심과 배려를 파악한 후 (다)의 자료를 분석할 때, 사회적 약자나 하위 존재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개념 지문과 자료 분석의 정합적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주요정보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는 문항 해설은 적절함.

[문제2] 수리 문제에 대한 문항 해설은 풀이과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문제 1] (가)와 (나)의 핵심 요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평가 항목과 (가)와 (나)의 관점과 (다) 자료분석의 논리성 평가항목, (다) 자료에서의 핵심정보 파악을 논리적 근거 활용 여부, 지문 요지와 핵심개념의 활용과 논리적 전개와 일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채점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 1]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답안의 작성 내용과 답안 논리적 전개의 과정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있음.

[문제2] 문항별 배점에 맞게 문제에 대한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등급표를 제시하여 답안 작성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항별 배점과 평가 요소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적절한 채점 기준임을 확인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1]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윤리적 삶의 필수 요소인 예의와 존중을 필요한 태도가 예시 답안에 나타나 있으며, (다)의 (1)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인 소득에 따른 암환자 생존률의 격차와 암에 대한 미치료율의 하층과 상층 간의 격차의 원인이 경제적인 면에 있다는 것과 최소한의 주거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와 국가 차원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예시 답안을 적절함.

[문제2] 풀이과정을 통해 답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풀이 과정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며 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었음.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논술고사의 문제 및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받은 학생이면 큰 어려움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육과정내에서 출제되었으며,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고 했던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증력과 수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목적에 맞게 출제가 되었음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음.

수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변별력있는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지만,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없이 학교수업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어 논술고사의 준비과정도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함.

문제의 난이도와 관련해서 2025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와 경향을 큰 변동없이 유지해서 모의 논술을 통해 건국대 논술고사를 준비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2025 논술고사에 새롭게 추가된 자유전공학부의 논술의 경우 인문계열 논술과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루어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사회Ⅱ(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구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인문사회계Ⅱ(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수학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 제시문 관련

건국대학교 논술 모집 요강의 수학 논술고사 범위 안에서 제시문을 제시함.

▶ 문제 관련

[문제 2-1]

제시된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계산하는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문제 2-2]

(1) 이차함수와 일차함수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들의 교점을 구하는 문항

(2) (1)문제의 그래프에서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

[문제 2-3]

(1) 독립시행의 확률을 활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문항

(2) 이산확률분포를 만들고 확률을 구하여 기댓값(평균)을 구하고, 기댓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

(3) 이산확률분포를 만들고 제시된 기댓값(평균)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문항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 2-1] 문제는 경제적 문제 상황(환율, 물가지수)을 이해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임. [문제 2-2] 문제는 경제 교과에서 학습하는 용어(균형거래량, 균형가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이해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교점을 구하고,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임. [문제 2-3] 문제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표현을 이해하여 제시된 상황을 독립시행의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산확률분포를 구성하여 문항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답안을 서술하는 문제임. 출제된 3문항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지원자의 수학적 능력을 평

가하기에 적합한 문제임.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 2-1]	2015 개정	수학	[2수학01-10] 곱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문제 2-2]	2015 개정	수학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Ⅱ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이해한다.
		수학Ⅱ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3]	2015 개정	수학	[10수학01-04]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수학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Ⅰ	[12수학Ⅰ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수학Ⅰ	[12수학Ⅰ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2-01]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2-04]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2-06]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출제된 인문사회계Ⅱ [문제2]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문항으로 출제됨.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제 2-1] 문제는 경제적 문제 상황(환율, 물가지수)을 이해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표현함. [문제 2-2] 문제는 경제 교과에서 학습하는 용어(균형거래량, 균형가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이해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교점을 구하고,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표현함, [문제 2-3] 문제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표현을 이해하여 제시된 상황을 독립시행의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산확률분포를 구성하여 문항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답안을 서술하는 과정을 표현함. 출제된 3문항의 해설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지원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개념, 수식)을 이용하여 문항 해설을 제시함.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경제 과목에서 학습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연산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을 제시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지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개념, 수식)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제시됨.

8) 종합 의견

출제된 3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며,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성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자연(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양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자연계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자연계의 제시문 1~4번은 기존의 논술고사와 유사하게 문제 해결의 핵심 개념과 관련한 제시문과 문제 상황 및 조건을 나타내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제시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었고, 제시문의 개념, 용어, 기호는 공통과목 수학, 일반선택과목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진로선택과목 기하 과목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1의 (가)는 〈미적분〉의 미분법 단원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미적분〉의 미분법 단원의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과 관련하여 [문제1]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제시문 2의 (가)는 〈기하〉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단원의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면각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공간에서 정사면체 ABCD와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선분 PQ이 포함된 제시문으로서 [문제2]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제시문 3의 (가)는 〈미적분〉의 미분법 단원의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각 변의 길이가 각각 일정한 사각형 ABCD와 관련하여 [문제3]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제시문 4의 (가)는 〈수학Ⅱ〉의 적분 단원의 정적분의 활용에서 도형의 넓이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y=x^2$과 두 함수 $f(\theta)$, $g(\theta)$와 관련하여 [문제4]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제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의 출제 의도는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시문과 문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과 결론을 논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문과 문제는 수학Ⅰ, 미적분, 기하에서 인용하였고, 각 과목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문제1]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선분과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와 관련한 문제로 〈수학Ⅰ〉의 삼각함수,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선분 AB가 원 C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 각 OAB가 예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이다.

[문제2]는 이면각에 대한 이해와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하는 문제로 〈기하〉의 이면각, 삼수선의 정리, 삼각함수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사면체 DEPQ의 부피가 최대이기 위해 선분 AB와 선분 PQ가 서로 수직임을 파악하고, 여기에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3]은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의 변화에 대한 대각선 길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angle ABC = \phi$를 θ의 함수로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관계식을 연립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4]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여 주어진 식을 미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수학Ⅰ〉의 삼각함수,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법, 정적분의 활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나)에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과 삼각함수의 개념, 합성함수 미분법을 활용하여 점의 좌표와 θ사이의 관계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자연계 [문제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미적분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자연계 [문제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기하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기하03-03]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자연계 [문제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미적분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자연계 [문제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미적분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025 건국대 논술고사 자연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Ⅰ, 미적분, 기하의 여러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시문 또한 교과서의 개념 내용을 인용하였기에 출제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제1]은 수학Ⅰ, 미적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선분과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와 관련한 문제이다. 추론 능력, 수학적 표현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2]는 기하에서 출제된 문제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하는 문제이다. 기하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과 수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해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3]은 미적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의 변화에 대한 대각선 길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4]는 수학Ⅰ, 미적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여 주어진 식을 미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수학적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자연계)의 문항 해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성취기준, 학습 요소 및 평가의 유의점 등을 고려한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1]은 문제 해결의 핵심인 선분의 길이와 삼각함수 덧셈정리를 제시함으로써 문항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문제2]은 이면각과 삼수선의 정리를 통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문항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문제3]은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식을 통해 각의 변화에 대한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문항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문제4]는 정적분을 활용해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활용하여 미분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문항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의 채점 기준은 각 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문항별 출제의도에 부합되는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은 수학의 절차적 단계 학습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분류하여 평가의 단계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풀이 과정에 대한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과 부분 점수 부여는 적절한 채점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생 답안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답안 작성의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어 논술고사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이전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와 논술가이드북, 모의논술고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가 되었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답안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통해 이해력, 수학적 표현력, 문제해결능력, 풀이 과정의 정확성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1]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OAB가 예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overline{\mathrm{AB}}^{\,2}+3^2>\overline{\mathrm{OB}}^{\,2}$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좌표를 이 식에 대입한 후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를 활용해 간단한 삼각방정식을 얻고, 이를 통해 t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문제2]

사면체 DEPQ의 부피가 최대이기 위해 사면체 BDPQ의 부피가 최대이어야 하고, 이는 선분 AB와 선분 PQ가 서로 수직일 때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와 이면각의 개념을 활용하여 $\cos\theta=\dfrac{\overline{\mathrm{FG}}}{\overline{\mathrm{EG}}}$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면 ABC에서 각 점과 선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예시 답안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문제3]

$\angle\mathrm{ABC}=\phi$라 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여 θ와 ϕ사이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ϕ를 θ의 함수로 보고 삼각함수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theta=\dfrac{\pi}{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문제4]

정적분을 활용하여 문제의 $f(\theta)$와 $g(\theta)$를 구하고, 삼각함수를 활용해 θ와 t사이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 $f'(\theta)$를 t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하여 $g'(\theta)$와 $a^2+b^2, ab, g(\theta)$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용되는 개념, 용어,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예시 답안의 내용과 표현은 시중에서 출간되고 있는 검인정교과서 3종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였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절하게 안내되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자연계)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추론 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한 평가 도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와 학생들이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료(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 평가기준 등)와 출제 경향, 출제 범위 및 난이도 등이 유지됨에 따라 교과서 및 기출문제 등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시문과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수준의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고, 보통의 자연계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도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가 수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해결 방법이 특정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자연(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자연계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 문항은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제시문으로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1]은 (가)에서 두 각 α, β에 대하여 $\alpha+\beta$, $\alpha-\beta$의 삼각함수를 α, β의 코사인함수로 나타내는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에 해당한다. (나)에서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을 따라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코사인 및 사인값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의 원의 방정식의 정의와 '수학Ⅰ'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활용한 것으로 제시문1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제시문2]는 (가)에서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α, β로 이루어진 도형 이면각과 이면각의 변, 이면각의 면을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정사면체에서 한 모서리 위에 있는 점과 평면 위에 있는 일정한 길이의 선분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하'의 이면각 정의를 활용한 것으로 제시문2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제시문3]은 미분가능한 두 함수 $y=f(u)$, $u=g(x)$에 대하여 합성함수 $y=f(g(x))$의 도함수를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각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θ일 때, 대각선을 길이를 $f(\theta)$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적분'의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수학Ⅰ'의 코사인법칙을 활용한 것으로 제시문3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제시문4]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

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좌표평면에 $y=x^2$과 한 정점 그리고 곡선 위의 두 개의 동점이 주어질 때, 곡선과 두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f(\theta)$, $g(\theta)$라 하고 $f(\theta)$와 $g(\theta)$ 사이에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Ⅱ'의 정적분의 정의와 '미적분'의 합성함수 미분을 활용한 것으로 제시문4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건국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이며 해당 제시문 모두 교과서에서 3종 이상 동일한 표현된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학과 자연계 출제범위를 근거하여 제시문으로 제시하였다.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그것을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셋째 답안의 서술을 검토하였을 때 문항의 결과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추론 과정까지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의도성으로 판단한다.

[문제1]은 제시문(나)에서 $t=0$부터 $t=2\pi$까지 점 A와 B가 움직이는 동안 선분 AB와 원 C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t의 범위를 구하는 문항이다. 이는 원에 직선이 접하는 상황으로 문제풀이를 접근하여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활용하고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해결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해하였다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수학'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수학I'의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및 부등식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2]는 제시문(나)에서 사면체의 부피가 최대일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라 하고 이때, $\cos\theta$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길이의 비가 6, 2인 것을 관찰하면 사면체의 부피를 추측할 수 있으며, 선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cos\theta$의 값을 알 수 있다. 이후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길이의 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기하'의 삼수선 정리, 이전의 수학적 개념적 지식인 부피의 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길이의 비를 이용하고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활용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3]는 제시문(나)에서 각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에서 $\angle \mathrm{BAD}$의 크기가 θ일 때, 대각선을 길이를 $f(\theta)$라 하고 미분계수 $f'(\frac{\pi}{2})$를 구하는 문항이다. 제시문(나)에서 주어진 $\angle \mathrm{BAD}$와 $f(\theta)$를 유심히 관찰하였다면 $\angle \mathrm{BAD}=\theta$를 대각선 AC로 나누어진 부분의 각을 각각 α, β라 표현할 수 있고 이후 '수학I'의 코사인법칙에 의해 $\cos\alpha$, $\cos\beta$를 $f(\theta)$로 나타낼 수 있으며 '미적분'의 합성함수를 미분을 적용하면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 즉, 수학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4]는 제시문(나)에서 [그림1]에서 좌표평면 위에 곡선과 y축의 위의 한 점과 곡선 위의 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f(\theta)$로 나타내고 $f'(\theta)$를 구하는 문항이다. [그림2]는 $\angle \mathrm{APB}=\frac{\pi}{2}$로 조건으로 주어진 두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g(\theta)$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f(\theta)$와 $g(\theta)$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g(\theta)$를 구하는 문항이다. 이는 '수학II'에서 학습한 정적분을 활용한 넓이라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추가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다른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과정을 반성하는 역량인 추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국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에 대해 총평하면 '기하' 과목과 관련한 1문항 그리고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과목을 두루 활용한 문항의 출제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해당 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의 공통범위와 선택 과목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부분을 고려한 출제 의도로 판단된다. 더불어 [문제3]과 [문제4]는 유사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변별에 대한 부분도 답안 채점 기준에도 일부 반영되어 각 문항의 배점을 27점, 30점으로 익숙한 점수 배정은 아니지만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배점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 고득점자를 우선한다는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의논술에서 '기하'가 출제됨으로 본 논술에서도 문항 출제를 예측하여 이것에 대한 범위를 학습한 학생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출제이었다고 판단된다. 단, 특정 과목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출제범위의 고른 출제를 반영한 문항 분포의 적절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그것을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셋째 답안의 서술을 검토하였을 때 문항의 결과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추론 과정까지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의도성으로 판단한다.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교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도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2)기하 ① 평면좌표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Ⅰ	(2)삼각함수 ① 삼각함수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	(2)미분법 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문제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기하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① 공간도형 [12기하03-01]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2)삼각함수 ① 삼각함수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적분	(2) 미분법 ②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문제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Ⅱ	(3)적분 ③ 정적분의 활용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미적분	(2) 미분법 ②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학과 성취기준을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문제1]의 제시문은

'미적분'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2019년 발행) 68페이지, '미적분' 지학사 홍성복 외(2019년 발행) 63페이지, '미적분' 미래엔 황선욱 외(2019년 발행) 67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수학Ⅰ' 비상교육 김원경 외(2020년 발행) 86페이지, '수학Ⅰ' 지학사 홍성복 외(2020년 발행) 87페이지, '수학Ⅰ' 좋은책 신사고 고성은 외(2020년 발행) 84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문제2]의 제시문은

'기하' 이준열 외(2019 발행) 121페이지, 122페이지, '기하' 좋은책 신사고 고성은 외(2019년 발행) 116페이지, 118페이지, '기하'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2019년 발행) 131페이지, 133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문제3]의 제시문은

'수학Ⅰ' 동아출판 박교식 외(2018년 발행) 90페이지, '수학Ⅰ' 지학사 홍성복 외(2018년 발행) 99페이지, '수학Ⅰ' 교학사 권오남 외(2018년 발행) 101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적분'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2019년 발행) 104페이지, '미적분' 비상교육 김원경 외(2019년 발행) 80페이지, '미적분' 천재교육 박교식 외(2019년 발행) 82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문제4]의 제시문은

'수학Ⅱ'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2018년 발행) 133페이지, '수학Ⅱ' 천재교육 이준열 외(2018년 발행) 134페이지, '수학Ⅱ' 지학사 홍성복 외(2018년 발행) 142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적분'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2019년 발행) 104페이지, '미적분' 비상교육 김원경 외(2019년 발행) 80페이지, '미적분' 천재교육 박교식 외(2019년 발행) 82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모든 문항에 제시된 소재와 개념이 현행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3종 이상에 등장함을 확인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자료 출처)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의 해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해설로 표현된 개념과 그 방법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고려한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1]은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삼각함수 및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해설되었다.

[문제2]는 이면각과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 때 최대임을 찾아내고,이를 이용하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에 대해 $\cos\theta$를 구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해설되었다.

[문제3]은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의 변화에 대한 대각선 길이를 표현하고, 그 길이를 표현한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설되었다.

[문제4]는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삼각함수 미분 및 합성함수 미분을 활용하여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해설되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의 채점 기준은 각 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문항별 출제 의도에 부합되는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은 수학의 절차적 단계 학습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분류하여 평가의 단계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풀이 과정에 대한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과 부분 점수 부여는 적절한 채점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심한 단계적 채점 및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풀이 방법도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 1]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OAB가 예각이 되어야 함을 알고 $\overline{\mathrm{AB}}^{\,2}+3^2>\overline{\mathrm{OB}}^{\,2}$ 을 찾아내고, 좌표를 대입하여 $\{3\cos t-(7+\cos 3t)\}^2+(3\sin t-\sin 3t)^2+9>(7+\cos 3t)^2+(\sin 3t)^2$ 을 도출하게 된다. 준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부등식의 좌변을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7\cos t+\cos 2t$로 계산하면 $7\cos t+\cos 2t=2\cos^2 t+7\cos t-1$가 된다.

이후 부등식 $2\cos^2 t+7\cos t-1<3$을 계산하여 $\cos t<\frac{1}{2}$이고, t의 범위를 $\frac{\pi}{3}<t<\frac{5\pi}{3}$로 구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문제 2] 삼각형 PDF의 넓이는 삼각형 PDB의 넓이의 $\frac{1}{3}$임을 찾아내고 사면체 DEPQ의 부피는 사면체 BDPQ의 부피의 $\frac{1}{3}$임을 확인한다. 이때, 사면체 DEPQ의 부피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사면체 BDPQ의 부피가 최대임을 알아내고, 이후 사면체 BDPQ의 부피는 $\frac{1}{3}\times$(삼각형 BPQ의 넓이) $\times\overline{\mathrm{DH}}$이므로 삼각형 BPQ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선분 PQ와 선분 AB가 수직일때임을 알아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알아낸 후 점 E에서 평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F, 점 F에서 직선 PQ에 내린 수선의 발을 G라 한다면 삼수선의 정리와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cos\theta$를 구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문제 3] 문제의 조건에 주어진 θ를 대각선을 이용하여 나눈 후, 점 C에서 선분 $\overline{\mathrm{AB}}$에 수선의 발을 내린 후,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고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며, 이후 코사인법칙을 사용하면 $f(\theta)$를 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문제 4]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면 사다리꼴 OPAQ의 넓이에서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뺀 값을 $f(\theta)$로 나타낸 후,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직각삼각형 APH에서 $\tan\theta$를 구할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각각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f'(\theta)=f'\left(\theta+\frac{\pi}{2}\right)$를 관찰하면 $\overline{\mathrm{AP}}$와 $\overline{\mathrm{BP}}$가 수직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얻어진 식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b^3-a^3=(b-a)(b^2+ba+a^2)$로 인수분해하여 해결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건국대학교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 답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답안으로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고 답안에 사용된 개념과 표현 방법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문항으로 제시된 소재와 개념이 고교 교육과정 교과서 3종 이상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상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준수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그것을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셋째 답안의 서술을 검토하였을 때 문항의 결과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추론 과정까지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및 부등식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 즉, 수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추가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다른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과정을 반성하는 추론의 역량 등을 모두 보여주어야 하는 등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수학 학습 태도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낸 학생이라면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평가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대입에 제공되는 성적처리 방식에 연연하여 일반 선택 과목의 학습을 중점으로 학습한 학생보다는 자연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 또한 대학 진학 이후 심화 확장 될 학문 탐구를 고려한다면 성적처리 방식과는 별도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였다. 물론 수학과의 교과 특성상 과목의 중요도에 대한 경중이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미적분' 과목은 지식, 개념, 법칙, 원리에서부터 응용까지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탐구태도가 중요함을 알게 해준 평가로 해당 논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자연(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자연계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의 제시문 1번~4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교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익숙한 내용을 통해 논술 문항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함.

제시문1의 (가)는 미적분 교과의 미분법 단원 중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좌표평면 위에 시각 t에 따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구하며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부등식을 해결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2의 (가)는 기하 교과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단원 중 ‘이면각’의 개념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하여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사면체라는 입체도형에서 이면각과 삼수선의 정리를 통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조건에 맞게 해결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3의 (가)는 미적분 교과의 미분법 단원 중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네 변의 길이가 정해진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각의 변화에 따른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4의 (가)는 미적분 교과의 적분법 단원 중 닫힌구간에서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정적분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각 θ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삼각함수의 미분 및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해결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 문제들은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들에 있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제시

문에서 충분히 출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문제해결의 단계적 접근에서 고교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개념들이 활용되어 자연계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종합적 사고력과 이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르게 기술하는 것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 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I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문제 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기하	[12기하03-0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기하	[12기하03-03]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I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문제 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I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은 수학, 수학Ⅰ, 미적분 교과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미적분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수학 Ⅰ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등의 개념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

[문제 2]은 기하 교과에서 출제되었고, 기하 교과에서 학습한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삼수선의 정리, 정사영 등 공간도형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활용하도록 함.

[문제 3]은 수학Ⅰ,미적분 교과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었고, 수학I 교과에서 학습한 코사인법칙, 미적분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미분법 및 합성함수의 미분법 개념을 활용하도록 함.

[문제 4]은 수학, 수학Ⅰ, 미적분 교과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수학 Ⅰ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미적분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미분법, 함성함수의 미분법, 정적분을 활용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등을 활용하도록 함.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제시문 및 문제에 대한 문항 해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안내되었고,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됨.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의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의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 안에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또한, 논술고사의 특성 및 취지에 맞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과정 및 접근 방법에 충분히 점수가 부여되도록 A+부터 F까지 8단계의 단계별 채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성과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으며, 풀이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기호, 표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시함. 또한, 향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적절히 제공됨.

[문제1]은 조건에 맞는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코사인함수의 덧셈정리 및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t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2]는 공간도형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정사영과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여 사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θ를 구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사면체의 꼭짓점 및 주어진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표현함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자세히 설명함.

[문제3]은 그림과 함께 사각형의 다른 한 각과 수선의 발 등을 내려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대각선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나타내고 합성함수의 미분 및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4]의 (1)은 정적분을 활용하여 $f(\theta)$를 t의 식으로 표현하고, t와 θ의 관계를 삼각형에서 찾아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f'(\theta)$를 찾는 방법을 제시함. (2)는 삼각함수의 미분법 및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안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출제된 문항들의 예시 답안 및 풀이과정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절한 기준과 준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기본 개념 등을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또한, 모든 문항에 그림을 삽입하여 수험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스스로 추론해보도록 유도함. 모의논술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됨.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의 제시문은 제시문 [가]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통섭’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나], [다]이 대하여 논하는 형식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은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통섭’을 현대사회 학문의 기본 개념과 계열 경계를 넘어서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자유전공학부의 성격에 적합한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나], [다]는 미술의 조류를 설명한 것인데, [나]는 입체파의 그림을 통해서, [다]는 데페이지망의 개념과 ‘골콘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섭’의 관점에서 두 유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제시문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며, 핵심 개념을 방탕으로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논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유형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 논제의 요구사항은 [가]의 ‘통섭’ 개념을 참고하여 [나]와 [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항이다. [가] 제시문에서 언급한 ‘통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제시문의 입체파와 [다] 제시문의 데페이즈망에 통섭적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미술사에 대한 지식적으로 접근하여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의 개념으로 미술 조류의 특징을 이해하여 글을 작성해야 한다. 두 제시문에 나타난 미술 조류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찾고, 통섭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출제 의도에서 문해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자유전공학부의 전형 취지를 감안하여 어떻게 문항을 설계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출제 의도를 통해서 추후 자유전공학부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통합사회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 KU자유전공학부에서는 국어, 사회 교과의 여러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등 국어, 사회 교과에서 다수의 과목에 관련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학생이 더 충실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의 설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2025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제시문과 문제의 핵심 내용과 논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항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고 있다.

우선 [가] 지문에서 논제의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 통섭적 사고가 필요함과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보아야 함을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다]에서는 학문 영역이 아니라 미술 영역이라는 다른 층위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나]의 입체파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다시점으로, [다]의 데페이즈망은 현실적 요소와 비현실적 요소의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물리학적 법칙을 초월한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찾아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설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구체적인 채점 기준(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명확한 논술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등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체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평가 항목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서술로 풀어 설명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해설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문단 간 구성과 설득력 있는 전개 등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가]를 통하여 통섭적 사고가 필요함, 예술을 포함한 인간 활동에 통섭적 접근이 적용될 수 있음, [나]에서는 입체파의 특징과 통섭적 사고와의 관계, [다]에서는 데페이즈망에 있는 통섭적 사고의 '골콘다'의 사례에 나타난 통섭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활동에 통섭적 사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더 압축적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잘 서술하고 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유전공학부라는 모집 단위의 성격에 충실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는 2025 대입에서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문 논술 분야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 취지에 매우 부합한다. 인문 문항의 경우 모의 논술의 경향을 유지하고, 적정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학교 교육 중심의 논술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전형의 성격상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논술 영역 간에 적절한 난이도의 안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정 영역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될 경우 전형의 취지나 성격과 달리 특정 성향의 학생들만 입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문과 수리 영역의 성격이 매우 다른 관계로 두 영역간의 적절한 조화를 꾸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출제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필요할 것이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KU자유전공학부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국어』『독서』에서 발췌한 글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여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평이한 수준의 제시문이어서 수험생들이 평소 충실히 준비한 대로 독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융합을 통해 통섭적으로 연구하는 현대의 학문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1점 원근법을 부정하고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는 입체파 그림을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다]는 상식과 통념, 법칙과 논리로만 인식하지 않고 시적·예술적 상상과 추리를 통해 세계를 심층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페이즈망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각 제시문과 자료는 모두 '2015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통섭적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지성적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대학 학업에 필요한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계열 구분 없이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자유전공학부 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주제를 '통섭적 사고'로 잡은 것도 적절하다. 특히, 제시문의 내용이 학문적 흐름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과 관련된 것으로 계열을 떠나 지성인이 갖춰야 할 문화 예술적 소양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종합적으로 다른 분과의 지문을 통섭적으로 융합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갖춰야 함을 역설한 출제 의도라 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독서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고등학교 2015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 평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자료를 모두 교과서에서만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출제 근거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을 통해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 핵심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좋은 답안 작성을 위해 제시문 [가], [나], [다]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논지 중요 내용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각 내용의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답안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답안 구성 방향, 내용 구상의 핵심 요소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학문적 분과나 내용이 다른 제시문들을 통합해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지, ‘논하시오’에는 제시문 [나]와 [다]에 관해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분석할 때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힘으로써 수험생의 심층적 사고가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밝혔다.

[나]의 입체파 그림은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여 전체의 모습을 구성하는 입체파의 방식이 통섭과 관련성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다]의 데페이즈망은 다각적으로 사물과 현상, 현실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섭적인 인식과 일맥상통함도 서술해야 한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채점 기준에서 평가 항목을 구조화하여 밝힘으로써 [가], [나], [다]의 핵심 요지와 의미 파악의 정확성, 제시문들의 내용상 유기적 연결성과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가]의 통섭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나], [다]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기준도 적절하게 제시했다.

논지 전개의 일관성과 설득력, 문장 표현과 구성 능력, 적절한 어휘 사용과 정확한 문장 구사 등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평가에도 적합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내용을 8단계로 세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를 통합해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준 높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가]~[다]의 공통 개념을 연결하고, 미술 분야의 글이지만 [나]와 [다]를 적절하게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이해력과 분석력, 추론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 답안이다. 즉, 예시 답안은 학문의 통섭을 예술과 인간 활동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창의적 사고와 접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KU자유전공학부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심도 있는 사고로 확장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 도구이다.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사고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독해력, 이해·분석력, 논리적인 내용 파악과 구성 및 논리 전개 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논술 고사의 취지에 부합한다.

제시문을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 과목들에서 발췌함으로써 충실하게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교육을 통해 배운 배경지식을 심층적·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음 시행한 해이지만, 기존의 인문사회계 논술을 참고하고, 모의논술을 통해 제공한 정보대로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국어)]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황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는 2025학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세 개의 제시문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파악하여 논하는 유형이다. 기존의 논술고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선정하였으며, 2025학년도 KU모의논술과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기에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는 난이도의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출제 의도에 부합한다.

[가]는 '통섭'이 바람직한 미래 학문의 형태임을 말하며 지식의 융합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나]는 세잔의 그림과 입체파의 그림을 예로 들어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말하고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해야 함을 제시한다. [다]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예로 들어 '데페이즈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 1]에서는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여 [가]의 학문적 '통섭'을 예술 분야의 조류를 설명하는 [나]와 [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제시문의 경우 명확한 제시어가 제시되어 있기에 제시문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유형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2025학년도 KU자유전공 논술고사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재를 평가하여 선발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통섭적 사고'를 기본 주제로 한 [문제1]은 계열 경계를 넘어선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 취지에 적합하며, [가] 제시문을 통해 통섭적 접근의 개념과 의의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나]와 [다]의 현대 미술의 특징적 조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두 유파의 새로운 접근과 표현 방식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서로 다

른 층위의 제시문을 파악하고 이를 통섭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출제 의도에 부합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2]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독서	[12독서01-02]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고등학교 2015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 평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자료를 모두 교과서에서만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출제 근거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2025학년도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문제1]은 '통섭적 사고'를 주제로 하여, 서로 층위가 다른 [가], [나],[다] 제시문을 통해 통섭적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에서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를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는 다변화되는 세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섭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양한 학문 사이의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 지문의 핵심 화제이다.

[나]와 [다]는 예술 분야의 조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입체파에 대한 설명으로, 입체파 그림의 통섭적 접근법은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다시점 관찰과 종합에 있다. [다]는 데페이즈망 미술에 반영된 통섭적 관점에 대한 글이다. 데페이즈망은 '전치'라는 뜻에서처럼 이질적 대상을 한 자리에 배치해서 결합하는 기법을 말하며 [다]에서 예로 든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이질적 요소의 결합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을 통해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내적 연결과 융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국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논술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문항 해석의 지침과 대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답안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가]의 핵심 요지인 '통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나]와 [다]에 잘 적용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나]에서 세잔과 구별되는 입체파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세잔의 미술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잘못된 독해이며, 입체파 미술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상에 대한 다면적 인식과 종합이라는 통섭적 접근 원리를 파악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나]와 [다]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둘 다 통섭으로 볼 수 있다'는 막연한 서술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여 평가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변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와 [다]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 연결성을 지닐 수 있도록 채점 기준을 제시하여 두 유파의 공통적 특징과 구체적 방식에서의 차이를 짚어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주어진 글자수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적 전개,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1]은 [가]의 핵심 내용인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융합하는 통섭적 사고에 대해 서술하고 학문적 통섭이 예술을 포함한 인간활동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나]와 [다]의 예술적 분야에서 통섭적 측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예시 답안을 통해 [가]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나]와 [다]의 공통적 특징과 구체적 방식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8) 종합 의견

2025년도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제시문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고사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의 논술 능력과 수리 능력을 모두 갖춘 계열 경계를 넘어선 인재를 선발한다는 자유전공학부 전형 취지에 맞는 '통섭적 사고'를 기본 주제로 한 논제를 선정하여 취지에 부합한다.

고등학교 국어와 독서 교과서 자료와 그림에 담긴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학교에서 학습한 배경지식을 심층적·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2025학년도에 신설되었음에도 모의논술자료와 기존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논제 유형을 유지하고, 난해하지 않은 제시문과 제시 자료들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현장을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양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의 제시문 2-1~2-3번은 기존의 논술고사와 유사하게 문제 해결의 핵심 개념과 관련한 제시문과 문제 상황 및 조건을 나타내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제시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었고, 제시문의 개념, 용어, 기호는 공통과목 수학, 일반선택과목 수학Ⅰ, 수학Ⅱ 과목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2-1의 (가)는 〈수학Ⅱ〉의 미분 단원의 도함수의 활용에서 극대와 극소의 판정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수학〉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하여 [문제2-1]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제시문 2-2의 (가)는 〈수학〉의 경우의 수 단원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합의 법칙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다.

제시문 2-3의 (가)는 〈수학〉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원과 직선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원에 접하는 접선으로서 [문제2-3]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상황 및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제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의 출제 의도는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시문과 문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과 결론을 논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문과 문제는 수학, 수학Ⅰ, 수학Ⅱ에서 인용하였고, 각 과목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문제2-1]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점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을 극대, 극소의 판정 개념을 활용하여 구하는 문제로 〈수학〉의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 사이의 거리, 〈수학Ⅱ〉의 미분, 극대와 극소 판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문제2-2]는 합의 법칙을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수학〉의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5가지 경우를 구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를 세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2-3]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개념을 통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t = \frac{1}{2}$일 때, 원 T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의 넓이와 원 T가 내접원인 삼각형 ABC의 존재 조건을 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나)의 상황에 좌표를 설정하고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의 관계가 $d = r$이라는 점을 통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각 소문항 (1), (2)의 조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에서는 원 T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대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수학〉의 직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수학Ⅰ〉의 삼각함수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KU자유전공학부 [문제2-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수학Ⅱ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Ⅱ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KU자유전공학부 [문제2-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KU자유전공학부 [문제2-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2025 건국대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여러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시문 또한 교과서의 개념 내용을 인용하였기에 출제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제2-1]은 수학, 수학Ⅱ에서 출제된 문제로 좌표평면 위의 수학적 상황을 대수적으로 표현하여 미분을 통해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추론 능력, 수학적 표현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2-2]는 수학에서 출제된 문제로 주어진 상황에서 맥락에서 경우의 수를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셀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사건의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 및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2-3]은 수학에서 출제된 문제로 내접원 T와 삼각형 ABC의 관계에 좌표평면을 도입하여 이를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기하적 대상을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직관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자유전공학부)의 문항 해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성취기준, 학습 요소 및 평가의 유의점 등을 고려한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2-1]은 직선의 방정식과 극대, 극소 개념을 통해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문항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문제2-2]은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총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경우의 수를 세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2-3]의 (1)의 경우 좌표평면을 도입해 점 C의 좌표를 구하고 이를 통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한 해설로 판단된다. (2)의 경우 원 T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기 위한 조건을 각 조건 $A+B<\pi$를 제시하고, 이에 tan개념을 적용한 적절한 해설로 판단된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의 채점 기준은 각 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문항별 출제의도에 부합되는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은 수학의 절차적 단계 학습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분류하여 평가의 단계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풀이 과정에 대한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과 부분 점수 부여는 적절한 채점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생 답안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답안 작성의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어 논술고사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이전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와 논술가이드북, 모의논술고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가 되었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답안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통해 이해력, 수학적 표현력, 문제해결능력, 풀이 과정의 정확성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2-1]

우선 점 A의 좌표를 설정하고, 점 A의 x좌표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해설을 제시하고, 직선 AB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조건과 점 B가 직선 AB와 직선 $y=4x-2$의 교점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점 B의 좌표를 구한 후 극대, 극소 개념을 통해 $\frac{\overline{OA}}{\overline{OB}}$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문제2-2]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총 5가지로 분류하고, 각 경우마다 4개의 수 a, b, c, d 중 가장 작은 수인 a와 가장 큰 수인 d의 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시 답안이다.

[문제2-3]

(1)의 경우 제시문 (가)의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착안하여 좌표평면을 도입해 직선 AC와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통해 점 C의 좌표를 구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2)의 경우 원 T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기 위한 조건으로 $A+B<\pi$이어야 하고, 이를 tan값의 범위로 t의 범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예시 답안으로 적절하다.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용되는 개념, 용어,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예시 답안의 내용과 표현은 시중에서 출간되고 있는 검인정교과서 3종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였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절하게 안내되었다.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자유전공학부)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추론 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한 평가 도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올해 KU자유전공학부의 논술고사가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이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료(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 평가기준 등)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기존의 자료와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등을 유지함으로써 충실하게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하적 대상을 직관적 사고력으로 해결하는 역량, 좌표평면을 도입하여 기하적 대상과 상황을 논리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으로 해결하는 역량, 주어진 상황 및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셀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대학 논술고사로의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문항은 수학, 수학Ⅰ, 수학Ⅱ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적절한 제시문으로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2-1]은 (가)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0$이고 $x=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극대, 극소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위의 점을 주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수학II' 과목의 극대, 극소의 개념과 '수학' 과목의 좌표평면에서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및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한 것으로 [문제 2-1]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제시문 2-2]는 (가)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 과목에서 경우의 수를 활용한 것으로 [문제2-2]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제시문 2-3]은 (가)에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학생들의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제시문을 제시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길이가 일정한 선분과 접할 때, 그 접점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조건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수학' 과목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방정식을 활용한 것으로 [문제 2-3]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다.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이며 해당 제시문 모두 교과서에서 3종 이상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시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 2-1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2)기하 [1] 평면좌표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2)기하 [2]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 II	(2)미분 [3]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Ⅱ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문제 2-2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5) 확률과 통계 [1]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3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 문자와 식 [6]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	(2)기하 [2]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2)기하 [3] 원의 방정식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학과 성취기준을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문제 2-1]의 제시문은
'수학II' 지학사 홍성복 외(2020년 발행) 88페이지, '수학II' 금성출판사 배종숙 외(2021년 발행) 89페이지, '수학II' 비상교육 김원경 외(2021년 발행) 88페이지, '수학II' 동아출판 박교식 외(2021년 발행) 91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문제 2-2]의 제시문은
'수학' 미래엔 황선욱 외(2018년 발행) 261페이지, '수학' 지학사 홍성복 외(2018년 발행) 260페이지, '수학' 비상교육 김원경 외(2018년 발행) 243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문제2-3]의 제시문은
'수학' 교학사 권오남 외(2020년 발행) 136페이지, '수학' 비상교육 김원경 외(2020년 발행) 132페이지,

'수학' 지학사 홍성복 외(2020년 발행) 149페이지 등 현재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문항의 해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해설로 문항 해설에 표현된 개념과 그 방법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고려한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 2-1]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의 길이, 넓이, 각도 등의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활용하여 해설함으로써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한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 2-2]는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조건을 탐색하여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 분석하며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해설함으로써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수학적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여준 해설로 판단된다.

[문제 2-3]은 기하적 대상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도형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설함으로써 직관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로 판단된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의 채점 기준은 각 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문항별 출제 의도에 부합되는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은 수학의 절차적 단계 학습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분류하여 평가의 단계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풀이 과정에 대한 A+에서 F까지의 8단계 채점 기준과 부분 점수 부여는 적절한 채점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심한 단계적 채점 및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풀이 방법도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2-1] 곡선 $y=x^3+x+3$ 위의 한 점을 $\mathrm{A}(a, a^3+a+3)$라 하고, $a=0$인 경우와 $a\neq 0$인 경우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a=0$인 경우 y축 위에 두 점이 있는 경우는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하였다. $a\neq 0$인 경우는 OA의 직선의 방정식과 AB의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한 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이때, $x\geq 0$인 범위에서 증가, 감소 및 최솟값을 구하여 $a=0$인 경우에서 구한 두 값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최솟값을 결정하였다.

[문제2-2] 4개의 수의 합이 최소일 때는 1+2+3+4=10이고 최대일 때는 6+7+8+9=30로 우선적으로 범위를 설정한 후, 4개의 수의 합으로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12, 16, 20, 24, 28의 5가지로 한정하였다. 4개의 수를 a, b, c, d (단, $a<b<c<d$인 자연수이다.)라 하고 각 경우를 모두 서술하였다.

[문제2-3] 우선 좌표축을 그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두 점을 각각 $\mathrm{A}(0,0)$, $\mathrm{B}(4,0)$, 원의 중심을 $\mathrm{E}(t,1)$이라 표현하였다. 직선 AC의 기울기를 m이라 하고,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한 후, 직선 AC와 점 E사이의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1과 같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찬가지로 직선 BC의 기울기를

n이라 하고,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한 후 직선 BC와 점 E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해결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였다, 또한, 삼각형 ABC가 존재하려면 $A+B<\pi$ 임을 알고 $\tan\frac{A}{2}=\frac{1}{t}$, $\tan\frac{B}{2}=\frac{1}{4-t}$로 표현하고 $\tan\frac{A}{2}\tan\frac{B}{2}<1$ 을 활용하여 삼각형이 존재할 t의 범위를 구하였다.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 답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답안으로 사용된 개념·용어·기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통용되는 것들이고 답안에 사용된 개념과 표현 방법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예시 답안은 '수학', '수학Ⅰ', '수학Ⅱ' 과목의 출제범위의 교육과정을 준거하여 서술하였다고 판단된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준의 문항으로 제시된 소재와 개념이 고교 교육과정 교과서 3종 이상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상에 명시된 과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의 유의점을 준수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수식과 기호 위주의 수학의 단순한 계산 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적절한 수학적 아이디어로 풀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을 평가할 수 있는 제시문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과서와 친숙한 문항, 제시문의 문맥 간 의미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문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한 모의 논술 고사 및 해설 영상을 통해 예시 답안, 평가 기준을 접한 학생이라면 건국대학교 출제 경향 및 채점 기준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논술고사는 수학과 교과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반영하여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고, 고교 교육과정 동안 주어진 조건을 관찰과 탐구 상황에서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논리적인 전개 등 개연적인 추론에 능숙한 학생,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끈기 있게 도전한 학생,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거나 다양한 시도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창의적인 사고의 학생 등 고교 생활 동안 중 특정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습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평가로 판단된다.

[2025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KU자유전공학부(수학)]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교사)
❍ 검토 계열	KU자유전공학부(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 제시문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의 2-1, 2-2, 2-3 제시문 및 문항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수학Ⅰ, 수학Ⅱ 교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익숙한 내용을 통해 논술 문항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함.

제시문 2-1의 (가)는 수학Ⅱ 교과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 중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좌표평면 위에 곡선 위의 한 점 A와 직선 위의 한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O를 지날 때, 선분 OA의 길이를 선분 OB의 길이로 나눈 값의 최솟값을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극솟값이 최솟값이 됨을 알고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 2-2의 (가)는 수학 교과의 경우의 수 단원 중 '합의 법칙'의 개념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카드 중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카드에 적한 수의 합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절히 제시됨.

제시문 2-3의 (가)는 수학 교과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 중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을 교과서에 사용된 표현과 동일하게 적절히 제시함. (나)에서 반지름이 1인 원 T가 길이가 4인 선분 AB와 선분 AP의 위의 점 P에서 접하고 선분 AP의 길이가 t인 상황이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 문제들은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들에 있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제시문에서 충분히 출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문제해결의 단계적 접근에서 고교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개념들이 활용되어 자연계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종합적 사고

력과 이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르게 기술하는 것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 2-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I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2-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7]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I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문제 2-1]은 수학, 수학II 교과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수학II 교과에서 학습한 '함수의 극소' 등의 개념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

[문제 2-2]은 수학 교과에서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에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의 개념과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개념을 활용하도록 함.

[문제 2-3]은 수학, 수학Ⅰ 교과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차부등식', 수학I 교과에서 학습한 삼각함수의 성질에 관한 개념을 활용하도록 함.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의 2-1, 2-2, 2-3까지의 제시문 및 문제에 대한 문항 해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안내되었고,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됨.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의 2-1, 2-2, 2-3까지의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 안에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또한, 논술고사의 특성 및 취지에 맞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과정 및 접근 방법에 충분히 점수가 부여되도록 A+부터 F까지 8단계의 단계별 채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성과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 2-1]은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설정하여 원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하고, 조건에 맞는 값의 식에서 함수의 극소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범위에서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 2-2]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4개의 수의 합 중 가장 작은 10과 가장 큰 30 사이에 4의 배수가 12, 16, 20, 24, 28임을 찾고, 각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찾아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 2-3]의 (1)은 주어진 선분과 원을 점 A가 원점이고 선분 AB가 x축 위에 있도록 좌표평면을 설정하고 $t=\frac{1}{2}$일 때, 원 T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되도록 직선 AC와 직선 BC가 원 T에 접하는 경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구하고 두 직선의 교점의 y좌표를 찾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2)는 t의 범위가 $0 \le t \le 4$에서 원 T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보고,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cos t$의 범위를 구한 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t의 범위를 찾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출제된 문항들의 예시 답안 및 풀이과정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절한 기준과 준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8) 종합 의견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KU자유전공학부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기본 개념 등을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전체적으로 논술고사의 취지에 적당한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정형화된 패턴의 암기 및 계산식 풀이보다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음.

모의논술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됨.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